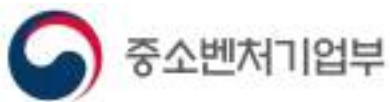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8 Survey of Korea Venture Firms)

2018. 12



제 출 문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본 보고서를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안건준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영수	사	무	국	장
참여연구원 :	이정민	부	소	장	
	이재남	실		장	
	엄수지	선	임	연	구
	서옥산	주	임	연	구
실사 협력 :	한국기업데이터(주)				
통계 자문 :	한근식	한신대학교		교수	

<보고서 이용 안내>

1. 본 통계는 2017년 12월말 기준 벤처확인기업의 일반현황과 경영 성과 등에 관한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한 것임
2. 본 보고서는 2,059개 벤처확인기업의 표본조사 결과를 모수(35,187개, 예비벤처제외) 추정한 결과임
3. 모집단 추정을 위한 가중치는 설계변수 업종×종사자규모로 산출함. 이에 따라 분석의 지역, 성장단계, 업력은 모집단 분포와 다를 수 있음
4. 통계표상의 증감률은 2개년 비교재무제표 방식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단순히 전년도 책자에 수록된 항목 금액과 비교한 증감률과는 차이가 있음
5. 본 통계자료의 수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로써 세부적인 내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함. 이로 인해 설문 구성비의 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음
6. 통계표에 관한 특기사항과 수식은 통계표 하단에 “주”로 표시하였으며 자료 출처도 명기함
7.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0 : 0.0단위 미만, - : 해당 없음
8. 본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와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음
9. 이외 본 보고서에 대한 질의사항은 벤처기업협회 담당자(Tel: 02-6331-7064, 7065)에게 문의 바람

● ● ● 목 차 ● ● ●

요 약	1
제1장 조사개요	15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17
1. 조사배경	17
2. 조사목적	17
3. 조사연혁	17
제2절. 조사설계	18
1. 조사개요	18
2. 조사내용	19
3. 표본설계	21
4. 가중치	24
5. 모수추정	24
6. 상대표준오차	26
제2장 조사결과	27
제1절.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29
1. 경영성과	29
2. 재무현황	32
3. 지분구조 현황	35
4. 매출 구조	37
5. 정부 정책지원(출연, 용자, 보증서 지원)	39
6. 신규자금 조달현황	42
7. 자금 투자처별 투자현황	43
8. 스톡옵션	45
제2절. 인력 및 조직현황	47
1. 인력현황	47
2. 종사자 직종별 인력구성 현황	49
3.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 현황	51
4. 2017년도 퇴사 임직원 수	53
5. 신규인력 채용계획	55
6. 신규채용 희망 학력	57

7.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신규 채용계획이 없는 이유	59
8. 인력확보 애로 직종	61
제3절. 기업 일반현황	63
1. 벤처기업 확인유형	63
2. 업종분포 현황	65
3. 지역별 분포 현황	66
4. 업력 현황	67
5. 기업 성장단계	69
6. 제조 및 비제조 여부	71
7. 상장 현황	72
8. 본사 및 공장·연구소 현황	73
제4절. 대표자 및 창업주 특성	75
1. 대표이사 특성	75
2. 창업주 특성	79
제5절. 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87
1. 주력 제품(서비스) 기술	87
2. 산업재산권 현황	89
3. 주력 제품(서비스) 개발단계	93
4. 주력 제품(서비스) 구성 전략	95
5. 주력 제품(서비스) 기술수준 평가	97
6. 연구개발 조직현황	101
7. 경쟁력 비교 현황	103
8. 장기적 성장 전망성	105
제6절. 마케팅 및 해외진출 현황	106
1. 브랜드 보유현황	106
2. 영업 및 마케팅 활동방법	108
3. 시장점유율	109
4. 원자재 및 부품 수입	110
5. 해외 수출 및 진출 현황	112
제7절. 제휴 및 협력 현황	117
1. 협력 경험	117
2. 협력활동 유형	119
3. 협력활동 유형별 도움정도	120
4. 협력 의사	121

5. 협력 희망 분야	123
-------------------	-----

제8절. 벤처캐피탈 및 인수합병(M&A) 현황 124

1. 엔젤투자	124
2.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현황	124
3. 인수합병 현황	127
4. 인수합병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132

제9절. 공정거래 질서 현황 133

1. 거래처별 납품단가 변동현황	133
2. 현재 이익률 및 희망 적정이익률	135
3.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및 심각성 정도	136
4. 기업간 거래 시 애로사항	137

제10절. 지원제도 및 교육, 경영애로사항 140

1. 인증제도 유형별 현황	140
2.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효과성 평가	142
3. 벤처 인프라 수준	143
4. 교육 및 훈련	145
5. 현재 필요교육	147
6.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 참여	150
7. 경영 애로사항	152

<별첨> 설문지157

● ● ● 표 목 차 ● ● ●

<표 1-2-1> 조사개요.....	18
<표 1-2-2> 조사내용(계속).....	19
<표 1-2-3> 모집단 분포.....	22
<표 1-2-4> 표본배분.....	23
<표 1-2-5> 가중값.....	23
<표 1-2-6> 종업원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6
<표 2-1-1>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29
<표 2-1-2> 2017년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30
<표 2-1-3>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31
<표 2-1-4> 벤처기업 재무현황.....	32
<표 2-1-5> 2017년 벤처기업 재무현황.....	33
<표 2-1-6>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자기자본비율 및 부채비율 비교.....	34
<표 2-1-7>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36
<표 2-1-8> 2017년 매출 구조.....	38
<표 2-1-9> 2017년 정책자금 수령 경험 및 금액(평균).....	40
<표 2-1-10> 2017년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현황.....	41
<표 2-1-11> 2017년 투자처별 투자액.....	43
<표 2-1-12>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비교.....	43
<표 2-1-13> 2017년 투자현황.....	44
<표 2-2-1> 인력 규모 현황.....	47
<표 2-2-2> 외국인 수.....	47
<표 2-2-3> 2017년 벤처기업 인력현황.....	48
<표 2-2-4> 직종별 인력구성, 부족인력 수 및 비율.....	49
<표 2-2-5> 직종별 인력구성.....	50
<표 2-2-6>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 현황.....	52
<표 2-2-7> 2017년도 퇴사 임직원 수.....	54
<표 2-2-8> 신규인력 채용계획.....	56
<표 2-2-9> 신규채용 희망 학력.....	58
<표 2-2-10>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없는 이유.....	60
<표 2-2-11> 인력확보 애로 직종(1+2순위).....	62
<표 2-3-1> 벤처기업 확인유형.....	64
<표 2-3-2> 업력분포 현황.....	68
<표 2-3-3> 기업 성장단계.....	70
<표 2-3-4> 본사 및 공장·연구소 현황.....	74
<표 2-4-1> 대표이사의 이전 직장 업무경력 분야.....	78

<표 2-4-2> 창업주의 이전 근무지 유형.....	82
<표 2-4-3>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 및 결과.....	86
<표 2-5-1> 주력 제품(서비스) 기술.....	88
<표 2-5-2> 산업재산권 보유 및 출원 현황.....	89
<표 2-5-3> 산업재산권 현황(현재 보유 기준).....	90
<표 2-5-4> 해외특허 및 국제규격 보유 현황.....	92
<표 2-5-5> 주력 제품(서비스)의 개발 단계.....	94
<표 2-5-6> 주력 제품(서비스) 구성전략.....	96
<표 2-5-7> 세계 최고수준 기업과 기술력 수준 평가.....	98
<표 2-5-8> 국내 최고수준 기업과 기술력 수준평가.....	100
<표 2-5-9> 연구개발 조직현황.....	102
<표 2-5-10> 경쟁력 비교 현황(5점 척도).....	104
<표 2-5-11> 경쟁력 비교 현황(상위응답률).....	104
<표 2-6-1> 브랜드 보유 현황.....	107
<표 2-6-2> 원자재 및 부품 수입.....	111
<표 2-6-3> 해외 직·간접수출 현황.....	113
<표 2-6-4> 해외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	116
<표 2-7-1> 협력활동 경험률.....	118
<표 2-7-2> 벤처기업이 경험한 협력활동 유형.....	119
<표 2-7-3> 협력활동 유형별 도움정도.....	120
<표 2-7-4> 협력의사 희망률.....	122
<표 2-7-5> 타 기관과의 협력 희망 분야.....	123
<표 2-8-1>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	125
<표 2-8-2> 인수합병(M&A) 경험.....	128
<표 2-8-3> 인수합병(M&A) 목적(1+2순위).....	129
<표 2-8-4> 인수합병(M&A)의 고려 수준.....	131
<표 2-9-1> 거래처별 평균 인상률 및 인하율.....	134
<표 2-9-2>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및 심각성 정도.....	136
<표 2-9-3> 기업간 거래 시 애로사항(1+2순위)(계속).....	138
<표 2-10-1> 인증제도 유형별 현황.....	141
<표 2-10-2>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효과성 평가.....	142
<표 2-10-3> 벤처 인프라 수준(계속).....	144
<표 2-10-4> 교육방법.....	146
<표 2-10-5> 현재 필요교육(계속).....	148
<표 2-10-6>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 참여.....	151
<표 2-10-7> 경영 애로사항(5점 척도)(계속).....	153
<표 2-10-8> 경영 애로사항(상위 응답률)(계속).....	154

●●● 그 림 목 차 ●●●

<그림 2-1-1>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31
<그림 2-1-2>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자기자본비율 및 부채비율 비교.....	34
<그림 2-1-3>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35
<그림 2-1-4> 매출 구조.....	37
<그림 2-1-5> 2017년 정부 정책지원 경험 및 지원자금 규모	39
<그림 2-1-6> 2017년 신규자금 조달규모 및 방법.....	42
<그림 2-1-7>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비교.....	43
<그림 2-1-8> 스톡옵션 경험.....	45
<그림 2-1-9> 스톡옵션 실시 목적.....	45
<그림 2-1-10> 스톡옵션 활용하지 않는 이유.....	46
<그림 2-2-1> 2017년 인력 규모 현황.....	47
<그림 2-2-2> 종사자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인력 수.....	49
<그림 2-2-3>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 현황.....	51
<그림 2-2-4> 2017년도 퇴사 임직원 수.....	53
<그림 2-2-5> 신규인력 채용계획	55
<그림 2-2-6> 신규채용 희망 학력.....	57
<그림 2-2-7>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없는 이유.....	59
<그림 2-2-8> 인력확보 애로 직종.....	61
<그림 2-3-1> 벤처기업 확인유형.....	63
<그림 2-3-2> 8대 업종분포 현황.....	65
<그림 2-3-3> 권역별 분포 현황.....	66
<그림 2-3-4> 17개 시도별 분포 현황.....	66
<그림 2-3-5> 업력 현황.....	67
<그림 2-3-6> 기업 성장단계.....	69
<그림 2-3-7> 제조 및 비제조 여부.....	71
<그림 2-3-8> 상장 현황 및 계획.....	72
<그림 2-3-9> 창업 후 상장까지 소요기간.....	72
<그림 2-3-10> 본사 및 공장·연구소 현황.....	73
<그림 2-4-1> 대표이사 성별.....	75
<그림 2-4-2> 대표이사 연령분포.....	75
<그림 2-4-3> 대표이사 최종학력.....	76
<그림 2-4-4> 대표이사 전공분야.....	76
<그림 2-4-5> 대표이사의 이전 근무지.....	77

<그림 2-4-6> 대표이사의 이전 직장 업무경력 분야.....	77
<그림 2-4-7> 창업주와 대표이사의 동일 여부.....	79
<그림 2-4-8> 창업주 성별.....	79
<그림 2-4-9> 창업당시 창업주 연령.....	80
<그림 2-4-10> 창업주의 창업당시 최종학력.....	80
<그림 2-4-11> 창업주 전공.....	81
<그림 2-4-12> 창업주의 이전 근무지 유형.....	81
<그림 2-4-13> 창업 방식.....	83
<그림 2-4-14> 공동창업 방식	83
<그림 2-4-15> 공동창업자 역할.....	84
<그림 2-4-16> 창업당시 목표시장.....	84
<그림 2-4-17> 창업주의 창업당시 관련분야 실무경험 년수.....	85
<그림 2-4-18>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 및 결과.....	85
<그림 2-5-1> 주력 제품(서비스) 기술.....	87
<그림 2-5-2> 산업재산권 보유 및 출원 현황.....	89
<그림 2-5-3> 해외특허 및 국제규격 보유 현황.....	91
<그림 2-5-4> 주력 제품(서비스) 개발단계.....	93
<그림 2-5-5> 주력 제품(서비스) 구성 전략.....	95
<그림 2-5-6> 세계 최고수준 기업과 기술력 수준 평가.....	97
<그림 2-5-7> 국내 최고수준 기업과 기술력 수준 평가.....	99
<그림 2-5-8> 연구개발 조직현황.....	101
<그림 2-5-9> 경쟁력 비교 현황.....	103
<그림 2-5-10> 장기적 성장 전망성.....	105
<그림 2-6-1> 자사브랜드 보유 현황	106
<그림 2-6-2> 공동브랜드 보유 현황.....	106
<그림 2-6-3> 영업 및 마케팅 활동방법.....	108
<그림 2-6-4> 국내 시장점유율.....	109
<그림 2-6-5> 해외 시장점유율.....	109
<그림 2-6-6> 원자재 및 부품 수입.....	110
<그림 2-6-7> 해외 수출 및 진출 현황.....	112
<그림 2-6-8> 해외 진출 및 직·간접 수출 지역별 현황.....	114
<그림 2-6-9> 해외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	115
<그림 2-7-1> 협력활동 경험률.....	117
<그림 2-7-2> 협력활동 유형별 도움정도.....	120
<그림 2-7-3> 협력의사 희망률.....	121
<그림 2-8-1> 엔젤투자 경험.....	124
<그림 2-8-2>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	124
<그림 2-8-3> 벤처캐피탈 도움 정도.....	126

<그림 2-8-4> 인수합병(M&A) 경험 및 목적.....	127
<그림 2-8-5> 인수합병(M&A) 고려 수준 및 형태.....	130
<그림 2-8-6> 인수합병(M&A)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132
<그림 2-9-1> 거래처별 납품단가 변동현황.....	133
<그림 2-9-2> 거래처별 현재 이익률 및 희망 적정이익률.....	135
<그림 2-9-3>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및 심각성 정도.....	136
<그림 2-9-4> 기업간 거래 시 애로사항.....	137
<그림 2-10-1> 인증제도 유형별 현황.....	140
<그림 2-10-2> 인증제도 확인 방법.....	140
<그림 2-10-3>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효과성 평가.....	142
<그림 2-10-4> 벤처 인프라 수준.....	143
<그림 2-10-5> 교육·훈련에 대한 성향.....	145
<그림 2-10-6> 교육방법.....	145
<그림 2-10-7> 현재 필요교육.....	147
<그림 2-10-8>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 참여.....	150
<그림 2-10-9> 경영 애로사항.....	152

요약

<요약>

□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 벤처기업의 2017년 12월말 기준 총 매출액은 약 225.3조원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6,40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함. 평균 영업이익이 267백만원, 평균 순이익 1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매출액영업이익률(4.4%→4.2%)과 매출액순이익률(3.0%→2.5%) 모두 소폭 감소함
- 2017년 12월말 기준, 벤처기업의 평균 자산은 6,106백만원, 평균 부채가 3,458백만원, 평균 자본은 2,64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함. 자기자본비율은 43.4%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130.6%로 감소함

<2017년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비용 (이자비용)		순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2016년	206,921,101	5,881	9,144,339	260	2,750,846	78	6,257,007	178	4.4%	3.0%
2017년	225,275,344	6,402	9,380,726	267	3,066,146	87	5,701,567	162	4.2%	2.5%
증가율	8.9%		2.6%		11.5%		-8.9%		-	-

주) 본조사(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2,059개 기업의 최근 2개년(16년, 17년)의 경영성과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함

<2017년 벤처기업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2016년	196,318,997	5,579	113,414,295	3,223	82,904,701	2,356	42.2%	136.8%
2017년	214,864,789	6,106	121,673,889	3,458	93,190,900	2,648	43.4%	130.6%
증가율	9.4%		7.3%		12.4%		-	-

주) 본조사(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2,059개 기업의 최근 2개년(16년, 17년)의 경영성과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함

-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결과, 벤처기업(전체)의 매출액증가율은 대기업보다 높게, 중소기업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보다 낮게 중소기업보다 높게, 매출액순이익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낮게 조사됨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주)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출처 : 2017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창업자의 지분보유 비율이 6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반 임직원(9.9%), 창업자 가족이나 친지(6.5%), 창업자 아닌 대표 이사(5.9%), 개인 투자자(5.4%),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지(3.6%) 순임
- 벤처기업의 매출 구성비는 B2B가 7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B2G(15.4%), 해외매출(7.4%), B2C(3.7%) 순으로 나타남
- 2017년도 정부 정책자금 수령 경험이 있는 기업은 34.1%였으며, 자금규모는 기업당 평균 342백만원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규모는 평균 51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자금 조달 방법은 정부 정책지원금(60.5%)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17년 벤처기업 총 투자액은 평균 451.7백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국내 R&D투자액 223백만원, 국내 설비투자액이 143백만원으로 조사됨

- 2017년 벤처기업의 매출액연구개발비율은 3.5%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보다 높게 나타남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비교>

구 분	전체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연구개발비율	1.5%	0.7%	3.5%	2.5%	1.3%	3.0%

주)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출처: 2017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 과거 스톡옵션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0.7%, 현재 실시중인 기업은 1.0%,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2.2%로 나타남
- 스톡옵션 실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주요 목적은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66.5%), '핵심인력 이탈방지'(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톡옵션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36.5%),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25.6%) 등을 이유로 들

□ 인력 및 조직현황

- 2017년 12월말 기준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762,856명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21.7명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함
- 이 중 정규직은 평균 21.5명, 비정규직은 0.2명이었으며, 외국인 종사자 수는 기업당 평균 0.5명으로 조사됨

<2017년 인력 규모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전체 증감률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종사자 수	전체	542,036명	189,356명	731,392명	565,275명	197,581명	762,856명	4.3%
	평균	15.4명	5.4명	20.8명	16.1명	5.6명	21.7명	
정규직 종사자 수	전체	539,111명	186,414명	725,525명	562,276명	194,548명	756,824명	4.3
	평균	15.3명	5.3명	20.6명	16.0명	5.5명	21.5명	
비정규직 종사자 수	전체	2,925명	2,942명	5,867명	2,999명	3,033명	6,032명	2.8%
	평균	0.1명	0.1명	0.2명	0.1명	0.1명	0.2명	

주) 본조사(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2,059개 기업의 최근 2개년(16년, 17년)의 인력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함

- 벤처기업의 직종별 인력구성은 생산직이 평균 8.7명으로 가장 많고, R&D가 4.6명, 관리직 4.3명, 기타 2.2명, 영업직 1.9명 순임. 벤처기업의 인력부족률은 평균 2.0%이며, 직종별로는 영업(2.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R&D(2.5%), 생산(2.3%), 관리(1.0%), 기타(0.6%)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퇴사 임직원 수는 2.7명이며 사원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기 관리자급 0.6명, 중간 관리자급 0.2명으로 조사됨
- '2018년 하반기와 2019년'에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벤처기업이 38.4%였으며, 시기별로 2018년 하반기에는 평균 2.0명, 2019년에는 평균 0.5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인력확보 애로직종은 R&D(75.4%), 생산기능(50.8%), 영업 및 마케팅(34.2%), 경영기획/전략(14.5%) 순으로 나타남(1+2순위)

□ 기업 일반현황

- 벤처기업의 확인유형은 기술평가보증기업이 82.2%로 가장 많으며, 이어 연구개발기업이 8.2%, 기술평가대출기업 6.6%, 벤처투자기업 3.0% 순임
- 벤처기업의 4대 업종 현황을 살펴보면 48.2%가 일반제조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첨단제조 20.8%, 소프트웨어/정보통신 17.5% 순으로 나타남
- 8대 업종 분류로는 기계/제조/자동차 업종이 25.4%, 음식료/섬유/(비)금속 22.8%, 소프트웨어 개발 10.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0.5%의 순임

<8대 업종분포 현황>

에너지/의료/정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통신기기/방송기기	음식료/섬유/(비)금속	기계/제조/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방송서비스	기타
6.7%	10.5%	3.6%	22.8%	25.4%	10.8%	6.7%	13.5%

- 벤처기업의 47.7%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대전/세종/충청/강원 24.3%, 부산/경남/울산 12.4%, 대구/경북 9.5%, 광주/전라/제주 6.1% 순으로 분포해 있음

- 국내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11.0년이며, 현재 상장된 벤처기업(1.7%)의 창업 후 상장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0.7년임
- 기업 성장단계는 고도성장기 기업이 5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성숙기 27.7%, 초기성장기 19.1%, 창업기 1.1%, 쇠퇴기 0.2% 순임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1.1%	19.1%	51.9%	27.7%	0.2%

- 벤처기업의 40.4%는 ‘일부 제조와 일부 외주(아웃소싱)’를 병행하고 있으며, ‘자체제조’ 기업은 33.1%로 조사됨

□ 대표자 및 창업주 특성

- 대표이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93.2%가 남성이며, 연령은 50대(45.8%)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대표이사의 최종학력은 49.6%가 대졸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공은 학사와 석사이상 모두 ‘공학(엔지니어)’이 각각 62.7%, 64.7%로 가장 높음
- 대표이사의 이전 근무지로 일반중소기업이 64.2%, 업무경력 분야는 기술개발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주와 현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는 87.5%이며, 창업당시 창업주 연령은 40대(44.8%)가 가장 많음

<창업주 연령분포>

20대(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9%	38.8%	44.8%	11.7%	1.8%

- 창업주 역시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다수(94.4%)이며, 대학 졸업자가 절반 이상(51.6%), 전공은 학사와 석사이상 모두 ‘공학(엔지니어)’(64.2%, 65.9%) 비중이 가장 높음. 이전 근무지 유형도 일반중소기업(65.3%)에서 근무한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 방식은 ‘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업한 경우’가 94.8%이며 ‘국가연구소나 대학교 등에서 창업보육(BI) 과정을 거쳐 창업’(3.3%)한 경우가 ‘대기업 등 기업의 분사 또는 계열사 형식으로 창업’(2.0%)한 경우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공동 및 팀 창업을 하는 경우는 전체기업의 9.8%이며, 평균 2.7명의 인원이 공동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2%였으며, 이 가운데 성공은 74.5%, 실패 경험 비율은 25.5%로 나타남. 또한 성공 및 실패 평균 횟수는 각각 1.2회로 조사됨

□ 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평균 8.7건임. 그 중 특허권이 5.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상표권 1.3건, 디자인권 1.0건, 실용신안권, 해외 산업재산권 각각 0.3건 순으로 조사됨

<산업재산권 보유 및 출원 현황>

구 분	국내 산업재산권				해외 산업재산권	합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현재 보유	5.8건	0.3건	1.0건	1.3건	0.3건	8.7건
출원 진행 중	0.6건	0.0건	0.0건	0.0건	0.1건	0.7건

- 벤처기업은 ‘국제규격(ISO, CE 등)’(46.4%), ‘해외특허’(4.8%), ‘해외유명 규격(UL, JIS 등)’(0.7%)의 순으로 해외특허 및 국제규격을 보유함
- 벤처기업의 주력 제품(서비스)의 개발 단계를 조사한 결과, ‘시장확대단계’가 6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기 시장진출단계’ 26.3%, ‘제품화 또는 상용화 실현단계’ 4.1% 순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주력 제품(서비스) 구성 전략은 ‘2~3개 정도의 제품(서비스)’에 주력이 60.7%로 가장 많고, ‘1개 대표 제품(서비스)에만 집중’이 20.2%, ‘4개 이상 복수의 제품(서비스)’에 주력이 19.1% 순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현재 기술력 수준과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비교한 결과, ‘약간 미흡’이라는 의견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흡’ 38.7%, ‘세계 최고 수준과 동일’ 5.7%의 순으로 나타남

<세계 최고수준 기업과 기술력 수준 평가>

세계 유일기술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	약간 미흡	미흡	경쟁 열세
0.2%	5.7%	51.1%	38.7%	4.3%

- 국내 최고수준 기업의 기술력과 비교시에는 ‘약간 미흡’ 46.9%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이 41.8%, ‘미흡’ 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65.0%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설연구소는 없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의 경우는 14.8%,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는 없지만,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한 경우는 9.9%임
- 동종업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과 (분야별)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기술경쟁력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품질경쟁력(3.6점), 디자인경쟁력과 조직관리경쟁력이 각각 3.4점, 가격경쟁력과 마케팅 경쟁력이 각각 3.3점 순임
-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은 긍정적인 응답이 79.1%, 보통을 제외한 부정적인 응답은 0.3%로 조사됨

□ 마케팅 및 해외진출 현황

- 자사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36.3%로 브랜드 보유 개수는 평균 2.1개임. 공동브랜드 보유 벤처기업은 1.4%이며 브랜드 보유 개수는 평균 2.9개임
- 벤처기업의 평균 국내 시장점유율은 6.9%, 해외 시장점유율은 0.3%로 나타남
-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25.3%로 나타났으며, 해당 국가로는 중국이 36.5%로 가장 많고, 미국 21.7%, 일본 17.2%, 유럽 13.9%, 동남아시아 5.6% 순임
- 벤처기업 중 해외 수출 기업은 25.9%이며, 이 가운데 ‘직접수출’ 기업 18.8%, ‘간접수출’ 기업은 1.9%, ‘직접수출+간접수출’ 병행기업은 5.2%, 수출이 없는 기업은 74.1%로 조사됨

- 해외 진출 지역은 동남아시아가 30.5%로 가장 많고, 미국 24.5%, 중국 20.9%, 유럽 8.6%, 일본 7.3% 순이며, 해외 직·간접수출 지역 역시 동남아시아가 25.8%로 가장 많고, 중국 24.9%, 미국 13.1%, 일본 13.0%, 유럽 10.2% 순임

<해외 진출 및 직·간접수출 현황>

구 분	동남아시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캐나다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기타
해외진출	30.5%	24.5%	20.9%	8.6%	7.3%	5.6%	1.1%	0.8%	0.6%	-	-	-	-
해외 직·간접수출	25.8%	13.1%	24.9%	10.2%	13.0%	2.9%	0.9%	1.3%	4.2%	1.6%	1.2%	0.9%	-

- 벤처기업이 해외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 '시장정보 부족(47.0%)'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그 다음은 '무역 전문 인력 부족' 30.6%, '기술력 부족' 30.0%, '해외진출 필요자금의 부족' 27.8%, '수출관련 절차적 규제 부담(선적, 통관 등)' 26.8%, '현지시장 규격 및 인증 획득의 어려움' 25.5% 순으로 나타남(1+2순위)

□ 제휴 및 협력 현황

- 벤처기업의 협력활동 경험은 대학과의 협력이 31.5%로 가장 많고,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이 15.8%, 대기업 3.3%, 중소벤처기업 3.1% 등의 순임
- 벤처기업이 경험한 협력활동 유형은 '공동 기술·연구개발'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벤처기업의 협력활동 유형별 도움정도는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86.6%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상위 응답률)
- 협력 희망률은 '대학'이 21.7%,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 16.0%, '대기업' 4.2%, '중소벤처기업' 2.5% 순으로 나타남

<협력의사 희망률>

구 분	대학	정부 및 국가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해외 외국계기업
협력 희망	21.7%	16.0%	1.4%	2.5%	4.2%	1.4%
협력 비희망	78.3%	84.0%	98.6%	97.5%	95.8%	98.6%

- 타 기관과의 협력 희망 분야로 ‘공동 기술·연구개발’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해외 외국계 기업과는 각각 ‘해외진출’ 및 ‘마케팅/판로/유통’ 분야 협력 희망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벤처캐피탈 및 인수합병(M&A) 현황

-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2.6%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94.2%는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기업은 5.8%임
- 한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의 93.4%가 벤처캐피탈이 ‘자금투자 외에는 거의 역할이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벤처기업 경영에 일정 부분 역할 담당’ 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6.6%임
-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은 1.7%정도이며, 목적은 ‘기술 및 인력 확보’ 70.2%, ‘규모의 경제 달성’ 58.4%, ‘시장지배력 확대’ 34.2% 순임(1+2순위). 기업들의 인수합병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98.1%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인수합병(M&A)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55.1%가 ‘기업 가치 평가시스템 구축’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M&A 전문가 및 중개기관 육성’ 48.3%, ‘M&A 매물정보의 질적/양적 확대’ 44.4% 순으로 응답함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및 인수합병 경험 비율>

엔젤투자 경험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		인수합병 경험	
예	아니오	투자유치 경험 있음	투자유치 경험 없음	있음	없음
2.6%	97.4%	5.8%	94.2%	1.7%	98.3%

□ 공정거래 질서 현황

- 벤처기업의 거래처별 납품단가 변동현황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납품단가가 인상된 경우는 ‘중소벤처기업’이 7.4%로 가장 높고, 인하된 경우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5.9%로 높게 나타남

- 평균 인상률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와 ‘중소벤처기업’이 각 6.3%로 가장 높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6.1%, ‘해외기업’ 4.1% 순임
- 평균 인하율은 ‘해외기업’이 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 6.8%,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6.3%,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 6.2% 순임
- 매출처별 현재 이익률은 ‘해외기업’이 1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 11.7%,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10.4%,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 9.9%의 순으로 나타남
- 거래처별 희망 적정이익률은 ‘해외기업’이 1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 18.8%,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17.2%,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 16.5%의 순임
- 현재 이익률과 희망 적정이익률과의 차이(Gap)는 7.3%p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벤처기업’이 7.1%p,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6.8%p,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 6.6%p로 나타남
- 거래처별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와 거래 시 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가 4.1%, ‘중소벤처기업’ 3.9%, ‘해외기업’ 2.0% 순임
- 불공정거래 심각성 정도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와 거래 시 1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해외기업’이 11.6%, ‘중소벤처기업’ 8.2%,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7.3%의 순임(상위 응답률)
- 기업간 거래 시 애로사항은 ‘구두 발주 및 취소’가 3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낮은 납품 단가’ 34.7%,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32.7%, ‘기술도용’ 30.1%, ‘납품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미지급’ 28.0%, ‘기술 및 원가정산 자료 요구’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1+2순위)

□ 지원제도 및 교육, 경영애로사항

- 벤처기업이 보유한 인증제도 유형별 현황은 ‘벤처확인인증’만을 받은 기업이 64.2%이며, 다음으로 ‘벤처확인+이노비즈’를 함께 받은 기업 29.4%, ‘벤처확인+이노비즈+경영혁신’ 모두 인증을 받은 기업이 4.7%, ‘벤처확인+경영혁신’을 함께 받은 기업 1.7% 순으로 나타남

<인증제도 유형별 현황>

벤처확인 인증만	벤처확인+이노비즈 인증	벤처확인+경영혁신 인증	벤처확인+이노비즈+ 경영혁신 인증
64.2%	29.4%	1.7%	4.7%

-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효과성은 '세계 혜택 효과'가 6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등 홍보효과'가 65.2%, '자금조달 및 투자 유인효과' 61.8%, '정부 지원제도 참여 유리' 58.5%, '기술개발 촉진효과' 5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상위 응답률)
- 벤처기업에서 생각하는 벤처 인프라 수준은 전반적으로 평균 3.0~3.2점 수준이며, 특히 '과학기술/교육분야' 인프라가 타 분야 인프라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의 17.4%가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2.6%는 비적극적인 성향을 보임. 벤처기업에서 시행되는 교육방법은 '자체+외부·위탁교육'이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벤처기업이 현재 필요로 하는 교육은 '기술사업화 교육'이 3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 트렌드 교육' 24.7%, '영업/마케팅 교육' 16.9%, '생산/품질관리 교육' 6.0%, 'CEO 및 임원 교육' 4.6%, '인사/조직관리 교육' 4.5%, '신입사원 역량강화 교육' 4.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 참여는 '윤리/투명경영'이 11.6%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후원활동' 5.9%, '물질 기부/기증' 4.3%, '지역사회 봉사활동' 3.2%, '재능기부' 2.0%,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 0.4%의 순임
-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7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애로' 63.1%,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애로' 54.9%, '국내 판로개척 애로' 51.8% 등의 순으로 나타남(상위 응답률)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설계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1. 조사배경

- 최근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과 주력산업들이 침체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뚜렷한 미래성장동력의 제시 없이 특유의 역동성을 급격히 상실
-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급격한 고용환경의 악화 초래 및 장기적인 경제성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
- 저성장 기조 타파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현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
- 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벤처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수적임

2. 조사목적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벤처확인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그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함
 - 벤처확인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기업 일반 현황 등을 제공하고,
 - 시계열 관점에서 벤처확인기업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조사연혁

- 1999년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최초 시행(국가승인통계 제14203호),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 2008년 :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표본 수 1,000개)로 전환
- 2009년 : 표본 수 2,000개로 확대
- 2010년 : 업종, 종사자, 지역, 성장단계 등 주요변수 중심으로 교차분석 실시
- 2014년 : 벤처확인기업 전체에 대한 추정 실시
- 2016년 : 표본설계 방식 개편(비례할당 → 먹등배분)
- 2018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계정에 따라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로 적용

제2절. 조사설계

1. 조사개요

- 2017년 12월말 현재 벤처확인기업 35,187개(예비 벤처기업 제외)를 조사 대상으로 표본조사 실시
-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본설계는 업종(8대 업종), 종사자규모(5개 규모)로 역등배분을 실시하고, 표본추출 시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층 내에서 사업체를 매출액으로 정렬 후 계통추출을 통해 총 2,059개의 유효표본을 획득함
- 모집단 구성비에 맞도록 유효표본에 가중치(weight) 부여 후 통계분석을 실시함

<표 1-2-1>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2017년 12월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35,187개(예비 벤처기업 제외)
조사 주기	매년
조사 기간	2018년 8월 8일 ~ 10월 19일 (약2.5개월)
표본배분	역등배분
표본추출방법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층 내에서 매출액을 내재적 층화변수로 활용하여 정렬 후 계통추출 함
신뢰도	신뢰도 95%, 표본오차 ±2.03%
유효표본	총 2,059개
조사 방법	온라인조사(Online Survey), 전화, Fax, E-mail 조사 병행
자료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2. 조사내용

<표 1-2-2> 조사내용(계속)

구분	내용
<p>경영성과 및 재무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 지분구조 ▪ 매출 구조(국내, 해외) ▪ 정부 정책지원 수혜 현황 ▪ 신규 자금조달 규모 및 방법 ▪ 투자 현황 ▪ 스톡옵션 이용 현황
<p>인력 및 조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현황 ▪ 직종별 인력구성 ▪ 학력별 인력구성 ▪ 전년도 퇴사 임직원 수 ▪ 신규인력 채용 계획 ▪ 인력확보 애로직종
<p>기업 일반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확인유형 ▪ 업종분포 현황 ▪ 지역별 분포 현황 ▪ 업력 현황 및 기업 성장단계 ▪ 제조 및 비제조 ▪ 상장 현황 ▪ 본사 및 공장·연구소 현황
<p>대표자 및 창업주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 및 창업주 특성 ▪ 창업방식 및 창업당시 목표 시장 ▪ 창업주의 창업 당시 관련분야 실무경험 년수
<p>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 현황 ▪ 산업재산권 현황 ▪ 해외특허, 국제규격 보유 현황 ▪ 주력 제품(서비스)의 개발단계 및 구성 전략 ▪ 국내 및 해외 최고수준 기업과 기술력 수준 평가 ▪ 연구개발 조직 현황 ▪ 경쟁력 비교 현황 ▪ 장기적인 성장전망

<표 1-2-2> 조사내용

구분	내 용
마케팅 및 해외진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보유현황 ▪ 영업 및 마케팅 활동현황 ▪ 국내·해외 시장점유율 ▪ 원자재/부품 수입현황 ▪ 해외진출 현황 및 애로사항
제휴 및 협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협력현황 ▪ 기관별 협력활동 유형 ▪ 기관별 협력의 도움정도 ▪ 타기관 협력의사 ▪ 타기관 협력 희망 분야
벤처캐피탈 및 M&A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젤 투자 경험 ▪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 ▪ 벤처캐피탈의 역할, 도움 분야, 도움 정도 ▪ M&A 경험 및 목적 ▪ M&A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공정거래 질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 납품단가 변동현황 및 변동 폭 ▪ 현재 이익률 및 희망 적정이익률 ▪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및 심각성 정도 ▪ 기업간 거래 시 애로사항 발생빈도
지원제도 및 교육, 경영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 유형별 현황 ▪ 벤처확인제도의 효과성 ▪ 벤처 인프라 수준 ▪ 교육 및 훈련 ▪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 참여 ▪ 경영 애로사항

3. 표본설계

○ 모집단 및 표본틀

- 목표모집단 : 2017년 12월말 기준 벤처확인기업(예비 벤처기업 제외) 35,187개 업체
- 조사모집단 : 2017년 12월말 기준 등록되어 있는 벤처확인기업으로 목표모집단과 동일
- 표본추출틀 : 2017년 12월말 기준 벤처확인기업(예비 벤처기업 제외) 리스트
 - ※ 모집단에 예비 벤처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벤처확인기업은 우수한 기술평가만으로 벤처확인이 가능하지만 예비 벤처기업은 기업을 준비 중인 자료 조사시점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므로 모집단에서 제외함

○ 벤처기업 업종분류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 해당 기업을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게 8대 산업으로 재분류

○ 층화기준

- 8대 업종 : 에너지/의료/정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통신기기/방송기기, 음식료/섬유/(비)금속, 기계/제조/자동차, 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기타
- 5대 종사자규모 : 1~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인 이상

○ 표본크기의 결정

- 전체 표본수는 대표성 및 시계열 유지 등을 고려하여 2,059개로 설정함
- 표본크기 결정식

$$n = \frac{\sum_{h=1}^L w_h s_h^2}{\sum_{h=1}^L w_h s_h^2 / N + \left(\alpha \sum_{h=1}^L w_h \bar{y}_h \right)^2}$$

L : 층의 수

w_h : h 층의 가중치

s_h^2 : h 층의 표본분산

N : 업체 총수

\bar{y}_h : h 층의 매출액 평균

$\alpha = \frac{\sqrt{\widehat{V}(\bar{y})}}{\bar{y}}$: 목표 상대표준오차

○ 표본배분 : 역등배분

- 역등배분은 네이만배분 식에 역수를 주어 최적배분의 형식을 취하면서, 층의 크기와 표준편차의 곱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함으로써 특정 층에 지나치게 많은 표본이 배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text{역등배분식} : n_h = n \times \frac{(N_h S_h)^\alpha}{\sum_h (N_h S_h)^\alpha}, \quad 0 < \alpha \leq 1$$

- S_h 는 h 층의 매출액의 모집단 표준편차(모집단 분산을 모르면 추정치 s_h)
- 역등배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alpha = 0.4$ 일 때가 표본배분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표본추출 :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층 내에서 매출액을 내재적 층화변수로 활용하여 정렬 후 계통추출 함

<표 1-2-3> 모집단 분포

구분	1~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
에너지/의료/정밀	1,221	692	188	138	103	2,342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859	1,201	298	201	151	3,710
통신기기/쌍송기기	692	3,78	94	69	41	1,274
음식료/섬유(비)금속	4,257	2,747	583	306	115	8,008
기계/제조/자동차	4,922	2,821	607	421	181	8,952
소프트웨어 개발	1,988	1,163	274	221	141	3,787
정보통신/쌍송서비스	1,231	744	169	136	72	2,352
기타	2,512	1,550	347	233	120	4,762
합계	18,682	11,296	2,560	1,725	924	35,187

<표 1-2-4> 표본배분

구분	1~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
에너지/의료/정밀	35	41	39	57	44	216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58	64	41	52	68	283
통신기기/방송기기	31	45	27	29	36	168
음식료/섬유(비)금속	85	96	66	62	44	353
기계/제조/자동차	76	87	58	67	64	352
소프트웨어 개발	36	44	39	45	44	208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8	43	31	32	50	194
기타	68	68	50	50	49	285
합계	427	488	351	394	399	2,059

<표 1-2-5> 가중값

구분	1~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인 이상
에너지/의료/정밀	34.886	16.878	4.821	2.421	2.341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2.052	18.766	7.268	3.865	2.221
통신기기/방송기기	22.323	8.400	3.481	2.379	1.139
음식료/섬유(비)금속	50.082	28.615	8.833	4.935	2.614
기계/제조/자동차	64.763	32.425	10.466	6.284	2.828
소프트웨어 개발	55.222	26.432	7.026	4.911	3.205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2.395	17.302	5.452	4.250	1.440
기타	36.941	22.794	6.940	4.660	2.449

4. 가중치

○ 기본가중치 : $w_{hi}^B = \frac{N_h}{n_h}$

N_h : h 층의 모집단 업체 수, n_h : h 층의 표본 업체

○ 무응답 조정 가중치 : $w_{hi}^R = \frac{n_h}{r_h}$

r_h : h 층에서 응답한 업체의 수

○ 사후층화가중치 : $w_{hi}^F = w_{hi}^B \times w_{hi}^R \times \frac{X_{hi}}{\hat{X}_{hi}}$

X_{hi} : h 층의 i 번째 업체의 총수, \hat{X}_{hi} : 가중합

5. 모수추정

○ 평균 추정량 : $\bar{y} = \frac{\sum_{h=1}^L \sum_{i=1}^{n_h} w_{hi} y_{hi}}{\sum_{h=1}^L \sum_{i=1}^{n_h} w_{hi}}$

○ 평균 추정량 \bar{y} 의 분산추정량 : $\hat{V}(\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e_{hi} = w_{hi}(y_{hi} - \bar{y})/w_{..}$,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w_{..} = \sum_{h=1}^L \sum_{i=1}^{n_h} w_{hi}$, f_h : 추출률

$h = 1, 2, \dots, L$: 층의 수

$i = 1, 2, \dots, n_h$: h 층 내의 업체 수

w_{hi} : h 층의 i 번째 표본 가중치

y_{hi} : h 층의 i 번째 업체로부터 얻은 변수값

○ 평균 추정량 \bar{y} 의 상대표준오차 : $R\widehat{SE}(\bar{y}) = \frac{\sqrt{\widehat{V}(\bar{y})}}{\bar{y}} \times 100 (\%)$

○ 평균 각 층별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 추정량 : $\bar{y}_h = \frac{\sum_{i=1}^{n_h} w_{hi} y_{hi}}{\sum_{i=1}^{n_h} w_{hi}}$

○ 평균 각 층별 주요변수에 평균 추정량 \bar{y}_h 의 분산추정량

$$: \widehat{V}(\bar{y}_h)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 평균 각 층별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 추정량 \bar{y}_h 의 상대표준오차

$$: R\widehat{SE}(\bar{y}_h) = \frac{\sqrt{\widehat{V}(\bar{y}_h)}}{\bar{y}_h} \times 100 (\%)$$

○ 평균 영역 D (매출액별, 지역별 등)에 대한 평균 추정량

$$: \bar{y}_D = \frac{\sum_{h=1}^L \sum_{i=1}^{n_h} v_{hi} z_{hi}}{\sum_{h=1}^L \sum_{i=1}^{n_h} v_{hi}}$$

$$I_D(h, i) = \begin{cases} 1, & (h, i) \in D \text{인 경우} \\ 0, & \text{그 이외} \end{cases}$$

$$z_{hi} = y_{hi} I_D(h, i)$$

$$v_{hi} = w_{hi} I_D(h, i) = \begin{cases} w_{hi}, & (h, i) \in D \text{인 경우} \\ 0, & \text{그 이외} \end{cases}$$

○ 평균 영역 D (매출액별, 지역별 등)에 대한 평균 추정량 \bar{y}_D 의 분산추정량

$$: \widehat{V}(\bar{y}_D)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text{여기서 } e_{hi} = v_{hi}(z_{hi} - \bar{y}_D)/v_{..},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v_{..} = \sum_{h=1}^L \sum_{i=1}^{n_h} v_{hi} \text{ 임}$$

○ 평균 영역 D (매출액별, 지역별 등)에 대한 평균 추정량 \bar{y}_D 의 상대표준오차

$$: R\widehat{SE}(\bar{y}_D) = \frac{\sqrt{\widehat{V}(\bar{y}_D)}}{\bar{y}_D} \times 100 (\%)$$

6. 상대표준오차

○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상대표준오차는 3.42%로 나타남

<표 1-2-6> 종업원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구 분		모집단수	평균	표준편차	상대표준오차 ¹⁾ (%)	
전 체		(35,187)	21.7	35.2	3.42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25.6	43.6	10.77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25.7	55.7	11.89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22.9	31.9	10.02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18.7	23.9	6.67
		기계/제조/자동차	(8,952)	20.2	29.2	7.56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24.2	38.4	10.7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22.5	35.5	10.85
	기타	기타	(4,762)	21.7	33.2	8.78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7.7	1.7	1.08	
	10~29인	(11,296)	19.4	5.8	1.31	
	30~49인	(2,560)	41.9	5.7	0.67	
	50~99인	(1,725)	71.9	13.9	0.85	
	100인 이상	(924)	182.7	101.8	1.99	

1) 상대표준오차(RES) 또는 변동계수(CV) :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것. 즉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값임. 표준편차는 평균 값이 큰 데이터 쪽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다른 평균값을 가진 데이터를 비교하는 경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눔으로써 이 평균값의 차이를 조정하고 있음

제2장 조사결과

제1절.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제2절. 인력 및 조직현황

제3절. 기업 일반현황

제4절. 대표자 및 창업주 특성

제5절. 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제6절. 마케팅 및 해외진출현황

제7절. 제휴 및 협력 현황

제8절. 벤처캐피탈 및 인수합병(M&A) 현황

제9절. 공정거래 질서 현황

제10절. 지원제도 및 교육, 경영애로사항

제1절.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1. 경영성과

- 벤처기업의 2017년 12월말 기준 총 매출액은 약 225.3조원으로 추정됨.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약 6,40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으며, 평균 영업이익은 약 267백만원으로 2016년보다 2.6% 증가하였음
- 평균 순이익은 약 162백만원이며 전년대비 8.9% 감소함
- 2017년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2%, 매출액순이익률 2.5%로 나타남

<표 2-1-1>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가율
매출액	총액	206,921,101백만원	225,275,344백만원	8.9%
	평균	5,881백만원	6,402백만원	
영업이익	총액	9,144,339백만원	9,380,726백만원	2.6%
	평균	260백만원	267백만원	
금융비용 (이자비용)	총액	2,750,846백만원	3,066,146백만원	11.5%
	평균	78백만원	87백만원	
순이익	총액	6,257,007백만원	5,701,567백만원	-8.9%
	평균	178백만원	162백만원	
매출액영업이익률 ¹⁾		4.4%	4.2%	-
매출액순이익률 ²⁾		3.0%	2.5%	-

주) 본조사(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2,059개 기업의 최근 2개년(16년, 17년)의 경영성과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함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은 일반제조의 음식료/섬유/(비)금속 업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프트웨어/정보통신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은 매출액증가율이 20.8%, 매출액영업이익률 6.3%, 매출액순이익률 4.0%로 타 업종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2) 매출액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100

<표 2-1-2> 2017년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구 분		모집단 크기	매출액	영업 이익	금융 비용	순이익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 이익률	매출액 순 이익률	
										(단위: 백만원)
전 체		(35,187)	6,402	267	87	162	8.9	4.2	2.5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5,230	258	91	105	9.8	4.9	2.0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7,748	487	99	310	20.8	6.3	4.0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7,239	127	109	8	3.5	1.8	0.1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7,895	309	99	219	9.3	3.9	2.8
		기계/제조/자동차	(8,952)	7,246	282	123	118	5.3	3.9	1.6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3,221	123	35	100	3.8	3.8	3.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4,155	180	32	159	12.5	4.3	3.8
기타	기타	(4,762)	5,250	193	51	154	7.7	3.7	2.9	
종사자규모	1~9인	(18,682)	3,077	117	43	89	9.1	3.8	2.9	
	10~29인	(11,296)	5,596	157	81	94	8.1	2.8	1.7	
	30~49인	(2,560)	10,708	337	169	155	7.8	3.2	1.4	
	50~99인	(1,725)	19,017	847	268	356	7.3	4.5	1.9	
	100인 이상	(924)	48,013	3,352	495	2,143	11.6	7.0	4.5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7,887	361	92	220	10.2	4.6	2.8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4,546	177	76	94	7.4	3.9	2.1	
	부산/경남/울산	(4,353)	5,070	122	98	63	2.4	2.4	1.2	
	대구/경북	(3,330)	5,812	274	91	215	10.6	4.7	3.7	
	광주/전라/제주	(2,161)	5,794	163	65	95	9.6	2.8	1.6	
성장단계	창업기	(403)	640	-44	13	-28	12.2	-6.8	-4.4	
	초기성장기	(6,715)	3,934	143	47	119	23.2	3.6	3.0	
	고도성장기	(18,251)	6,127	249	88	151	8.0	4.1	2.5	
	성숙기	(9,735)	8,776	397	117	219	6.2	4.5	2.5	
	쇠퇴기	(82)	16,539	378	146	359	11.1	2.3	2.2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3,934	79	24	117	46.5	2.0	3.0	
	4~10년	(18,012)	3,794	174	53	129	9.1	4.6	3.4	
	11~20년	(12,115)	7,990	352	115	202	7.4	4.4	2.5	
	21년 이상	(2,882)	17,895	624	228	237	6.6	3.5	1.3	

□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결과, 벤처기업(전체)의 매출액증가율은 대기업보다 높게, 중소기업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보다 낮게 중소기업보다 높게, 매출액순이익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낮게 조사됨

<표 2-1-3>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구 분	전체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증가율	7.9%	11.0%	8.9%	9.7%	7.7%	9.2%
매출액영업이익률	7.6%	4.0%	4.2%	9.1%	4.4%	4.2%
매출액순이익률	6.1%	2.8%	2.5%	7.9%	2.8%	2.4%

주)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출처: 2017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그림 2-1-1>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2. 재무현황

- 벤처기업의 2017년 12월말 기준 총 자산은 약 214.9조원, 기업당 평균 자산 약 6,106백만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9.4% 증가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부채는 3,458백만원으로 나타나 7.3% 증가하였으며, 평균 자본은 2,648백만원으로 조사됨
- 2017년 자기자본비율은 43.4%, 부채비율은 130.6%임

<표 2-1-4> 벤처기업 재무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증가율
자산 총계	총액	196,318,997백만원	214,864,789백만원	9.4%
	평균	5,579백만원	6,106백만원	
부채 총계	총액	113,414,295백만원	121,673,889백만원	7.3%
	평균	3,223백만원	3,458백만원	
자본 총계	총액	82,904,701백만원	93,190,900백만원	12.4%
	평균	2,356백만원	2,648백만원	
자기자본비율 ³⁾		42.2%	43.4%	-
부채비율 ⁴⁾		136.8%	130.6%	-

주) 본조사(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2,059개 기업의 최근 2개년(16년, 17년)의 경영성과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함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이 자기자본 비율 57.1%, 부채 비율 75.1%로 타 업종 대비 부채대비 자기자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계/제조/자동차는 자기자본 비율 37.9%, 부채 비율 163.8%로 나타나 타 업종에 비해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종사자규모가 클수록 자산, 부채, 자본 총계가 높게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창업기에서 쇠퇴기로 갈수록 자산, 부채, 자본 총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자산 증가율은 낮아짐

3) 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100

4)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표 2-1-5> 2017년 벤처기업 재무현황

구 분		모집단 크기	자산	부채	자본	자산	자기자본	부채	
			총계	총계	총계	증가율	비율	비율	
			(단위: 백만원)			(단위: %)			
전 체		(35,187)	6,106	3,458	2,648	9.4	43.4	130.6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7,778	3,788	3,990	9.6	51.3	94.9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7,429	3,844	3,585	10.4	48.3	107.2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7,199	3,879	3,320	6.8	46.1	116.9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6,564	4,031	2,533	8.6	38.6	159.1
		기계/제조/자동차	(8,952)	7,344	4,560	2,784	7.8	37.9	163.8
	SW/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3,763	1,614	2,150	14.1	57.1	75.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3,493	1,913	1,580	16.4	45.2	121.1
	기타	기타	(4,762)	4,021	2,078	1,943	11.5	48.3	106.9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2,607	1,668	938	9.7	36.0	177.8	
	10~29인	(11,296)	4,973	3,014	1,959	6.4	39.4	153.8	
	30~49인	(2,560)	10,599	6,322	4,277	6.9	40.4	147.8	
	50~99인	(1,725)	19,348	10,770	8,578	11.0	44.3	125.6	
	100인 이상	(924)	53,549	23,483	30,066	13.3	56.1	78.1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7,054	3,748	3,306	10.3	46.9	113.4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4,949	2,881	2,068	8.3	41.8	139.3	
	부산/경남/울산	(4,353)	5,487	3,587	1,901	5.9	34.6	188.7	
	대구/경북	(3,330)	6,313	3,924	2,389	12.6	37.8	164.2	
	광주/전라/제주	(2,161)	4,245	2,507	1,737	6.7	40.9	144.3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782	664	118	56.7	15.1	562.9	
	초기성장기	(6,715)	3,117	1,896	1,221	22.4	39.2	155.3	
	고도성장기	(18,251)	5,728	3,378	2,349	10.4	41.0	143.8	
	성숙기	(9,735)	9,036	4,761	4,274	5.7	47.3	111.4	
	쇠퇴기	(82)	13,675	8,108	5,567	5.4	40.7	145.6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2,208	1,434	774	71.5	35.1	185.1	
	4~10년	(18,012)	3,545	2,206	1,339	14.5	37.8	164.8	
	11~20년	(12,115)	7,929	4,265	3,664	6.9	46.2	116.4	
	21년 이상	(2,882)	17,397	9,417	7,979	4.7	45.9	118.0	

□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재무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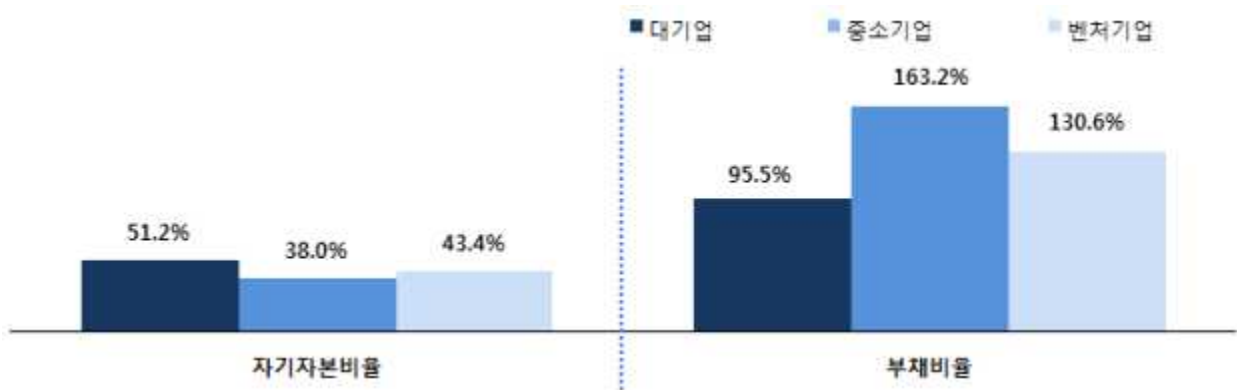
-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을 살펴본 결과, 벤처기업(전체) 자기자본비율은 중소기업보다 높고, 대기업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6>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자기자본비율 및 부채비율 비교

구분	전체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기자본비율	51.2%	38.0%	43.4%	61.9%	42.9%	41.6%
부채비율	95.5%	163.2%	130.6%	61.5%	132.9%	140.4%

주)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출처: 2017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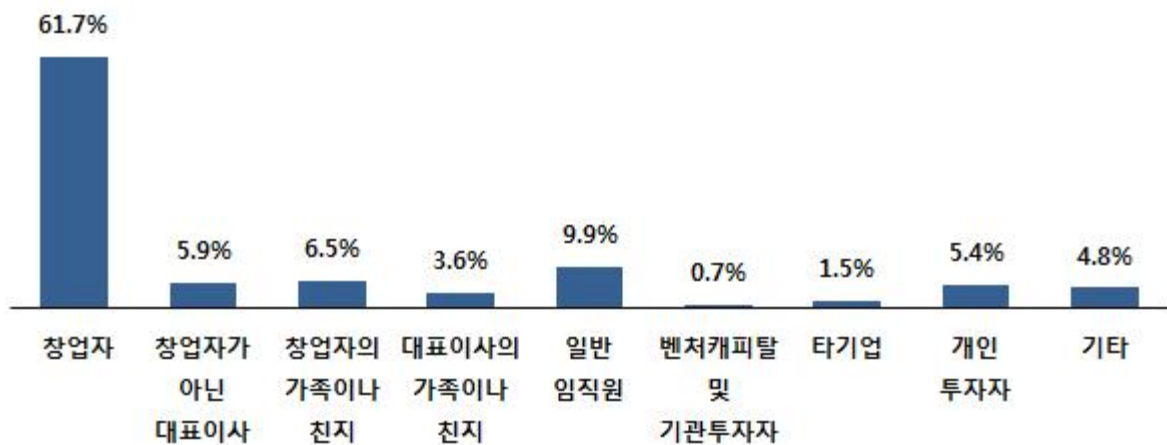
<그림 2-1-2>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자기자본비율 및 부채비율 비교



3. 지분구조 현황

- 벤처기업의 보유지분구조는 창업자의 지분이 61.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 임직원이 9.9%, 창업자 가족이나 친지 6.5%, 창업자 아닌 대표 이사 5.9%, 개인 투자자 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3>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창업자'의 지분구조가 높은 반면,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에서 '일반임직원' 비중이 각각 11.2, 11.0%로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종사자규모가 1~9인의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지분이 68.4%로 타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 반면, 100인 이상인 기업은 '개인투자자'(13.6%)의 지분이 높게 나타나 종사자규모에 따라 지분구조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쇠퇴기의 기업은 타 성장단계 벤처기업대비 '창업자 아닌 대표이사', '창업자 가족이나 친지', '일반 임직원', '타기업'의 보유지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높아질수록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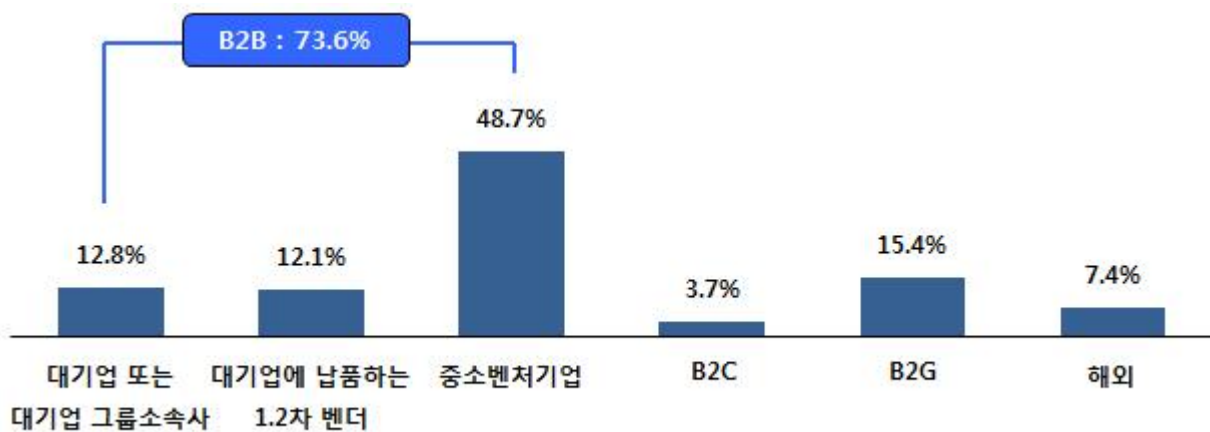
<표 2-1-7>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구 분		모집단 크기	창업자	창업자 아닌 대표이사	창업자 가족이나 친지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지	일반 임직원	벤처캐피탈 및 기관 투자자	타 기업	개인 투자자	기타	
전 체		(35,187)	61.7%	5.9%	6.5%	3.6%	9.9%	0.7%	1.5%	5.4%	4.8%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57.8%	6.1%	4.6%	2.2%	10.2%	2.7%	3.2%	4.7%	8.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61.3%	4.7%	7.2%	2.9%	10.3%	1.2%	1.0%	5.3%	6.0%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65.7%	3.7%	5.6%	1.9%	9.7%	0.4%	2.7%	4.9%	5.3%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58.0%	9.0%	6.2%	7.5%	8.6%	0.2%	0.7%	6.1%	3.7%
		기계/제조/자동차	(8,952)	61.9%	3.9%	9.4%	2.8%	10.7%	0.6%	1.8%	4.0%	4.8%
	SW/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65.1%	4.4%	3.9%	1.9%	11.0%	0.4%	1.7%	8.0%	3.6%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68.9%	2.9%	5.2%	1.3%	11.2%	0.7%	0.9%	2.8%	6.0%
기타	기타	(4,762)	62.6%	8.8%	4.4%	2.9%	8.4%	0.6%	1.8%	6.3%	4.2%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68.4%	4.3%	6.0%	2.3%	9.7%	0.5%	1.0%	4.1%	3.6%	
	10~29인	(11,296)	56.9%	7.8%	6.8%	5.9%	10.2%	0.8%	1.1%	5.8%	4.6%	
	30~49인	(2,560)	52.8%	6.9%	7.5%	3.8%	10.5%	0.9%	2.5%	7.1%	7.9%	
	50~99인	(1,725)	48.0%	8.6%	7.8%	3.4%	9.3%	0.9%	3.9%	8.7%	9.4%	
	100인 이상	(924)	35.7%	8.3%	6.5%	2.4%	8.7%	2.7%	8.0%	13.6%	14.1%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59.9%	5.6%	6.4%	3.3%	10.6%	0.9%	1.4%	6.0%	5.9%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61.5%	5.2%	5.9%	4.1%	10.2%	0.6%	2.0%	6.0%	4.4%	
	부산/경남/울산	(4,353)	67.3%	5.6%	7.7%	3.0%	9.1%	0.4%	1.0%	2.6%	3.3%	
	대구/경북	(3,330)	62.0%	10.5%	3.8%	2.4%	9.8%	0.4%	1.9%	5.3%	3.9%	
	광주/전라/제주	(2,161)	64.8%	5.0%	10.8%	7.3%	4.9%	0.9%	1.1%	3.0%	2.2%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87.3%	-	2.7%	-	4.0%	0.1%	1.9%	3.5%	0.4%	
	초기성장기	(6,715)	67.9%	5.3%	5.2%	2.2%	10.2%	0.8%	0.7%	3.9%	3.9%	
	고도성장기	(18,251)	62.2%	6.0%	7.1%	3.4%	9.6%	0.8%	1.8%	4.7%	4.4%	
	성숙기	(9,735)	55.7%	6.6%	6.3%	5.1%	10.4%	0.4%	1.5%	7.6%	6.4%	
	쇠퇴기	(82)	33.8%	14.8%	13.5%	4.8%	18.0%	0.7%	3.2%	5.5%	5.7%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73.6%	7.4%	0.7%	1.8%	10.2%	1.2%	0.5%	2.0%	2.6%	
	4~10년	(18,012)	66.6%	5.6%	6.0%	3.0%	8.9%	0.5%	1.5%	4.5%	3.3%	
	11~20년	(12,115)	55.5%	4.9%	7.8%	4.0%	11.4%	0.9%	1.4%	7.3%	6.7%	
	21년 이상	(2,882)	48.2%	11.1%	7.9%	7.5%	9.5%	0.7%	2.5%	5.0%	7.6%	

4. 매출 구조

- 벤처기업의 매출 구조 비중은 B2B 매출이 7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B2G 15.4%, 해외매출 7.4%, B2C 3.7%의 순으로 나타남⁵⁾
- B2B 매출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이 48.7%,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 소속사가 12.8%,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가 12.1%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2-1-4> 매출 구조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B2B' 비중이 높은 반면, 음식료/섬유/(비)금속은 'B2C'(6.4%), 소프트웨어 개발은 'B2G'(26.7%), 에너지/의료/정밀은 '해외매출'(17.4%)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중소벤처기업' 매출비중은 낮게 나타남
- 창업기에서 쇠퇴기로 갈수록 '중소벤처기업'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 소속사', '해외매출' 비중이 높아짐

5) B2B(Business to Business) : 기업간 거래
 B2C(Business to Customer) : 기업-소비자간 거래
 B2G(Business to Government) : 기업-정부간 거래

<표 2-1-8> 2017년 매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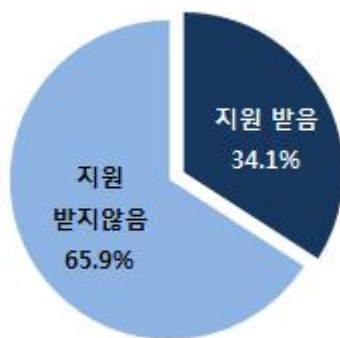
구분	모집단 크기	B2B			B2C	B2G	해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 소속사	대기업에 납품하는 1, 2차 벤더	중소 벤처기업					
전체		(35,187)	12.8%	12.1%	48.7%	3.7%	15.4%	7.4%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8.4%	9.7%	53.6%	3.0%	7.8%	17.4%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12.5%	14.7%	52.6%	0.2%	12.3%	7.7%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13.7%	7.9%	50.9%	0.5%	15.3%	11.7%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8.6%	12.1%	54.1%	6.4%	12.4%	6.5%
		기계/제조/자동차	(8,952)	12.6%	16.7%	44.0%	2.4%	13.4%	10.9%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18.1%	7.4%	42.9%	3.5%	26.7%	1.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12.6%	8.8%	54.6%	3.6%	18.0%	2.3%
기타	기타	(4,762)	18.6%	8.7%	44.1%	5.4%	20.1%	3.2%	
종사자 규모	1~9인	(18,682)	9.6%	9.3%	55.5%	3.8%	16.0%	5.9%	
	10~29인	(11,296)	14.3%	15.4%	44.1%	3.9%	15.9%	6.3%	
	30~49인	(2,560)	19.3%	14.8%	35.2%	3.4%	14.5%	12.9%	
	50~99인	(1,725)	20.3%	16.8%	36.2%	1.4%	9.6%	15.6%	
	100인 이상	(924)	27.9%	10.6%	28.0%	2.9%	10.7%	20.0%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15.1%	13.4%	48.0%	2.6%	13.1%	7.8%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11.7%	9.2%	48.9%	4.3%	18.6%	7.4%	
	부산/경남/울산	(4,353)	11.3%	12.0%	51.4%	3.6%	12.9%	8.9%	
	대구/경북	(3,330)	11.2%	11.5%	52.3%	6.0%	14.6%	4.4%	
	광주/전라/제주	(2,161)	5.6%	14.2%	42.7%	5.6%	26.8%	5.1%	
성장 단계	창업기	(403)	8.7%	6.3%	76.8%	0.7%	6.8%	0.6%	
	초기성장기	(6,715)	9.4%	12.0%	56.8%	5.7%	10.5%	5.6%	
	고도성장기	(18,251)	11.9%	11.5%	49.6%	3.4%	16.2%	7.4%	
	성숙기	(9,735)	16.9%	13.3%	40.6%	2.8%	17.6%	8.8%	
	쇠퇴기	(82)	26.7%	23.9%	16.0%	1.8%	5.8%	25.7%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7.0%	16.4%	60.3%	4.6%	8.5%	3.2%	
	4~10년	(18,012)	10.4%	10.4%	53.8%	4.3%	15.2%	5.8%	
	11~20년	(12,115)	16.7%	13.8%	41.3%	2.6%	16.5%	9.0%	
	21년 이상	(2,882)	16.3%	11.5%	39.1%	3.1%	16.7%	13.2%	

5. 정부 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

□ 정부 정책지원 경험 및 지원자금 규모

- 2017년에 정부의 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은 34.1%이며, 평균 정책지원자금 규모는 342백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2-1-5> 2017년 정부 정책지원 경험 및 지원자금 규모



2017년 평균 수령액 : 342백만원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정책자금 수령 경험 비율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이 45.1%로 타 업종 대비 가장 높은 반면, 통신기기/방송기기 업종의 비율은 25.3%로 가장 낮음
- 정책자금 수령금액은 에너지/의료/정밀 업종이 399백만원으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267백만원으로 평균 수령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29인이 35.4%로 정부 정책지원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정책자금 수령 경험 비율은 부산/경남/울산 지역이 43.1%로 가장 높은 반면, 대구/경북은 23.8%로 가장 낮아 지원 받지 않은 벤처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업력이 클수록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은 적은 반면, 평균 정책지원자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9> 2017년 정책자금 수령 경험 및 금액(평균)

구 분		모집단 크기	수령 경험 비율	2017년 수령금액	
전 체		(35,187)	34.1%	342백만원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36.5%	399백만원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33.4%	380백만원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25.3%	340백만원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33.9%	392백만원
		기계/제조/자동차	(8,952)	30.7%	353백만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45.1%	267백만원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39.2%	275백만원
기타	기타	(4,762)	31.4%	297백만원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33.8%	233백만원	
	10~29인	(11,296)	35.4%	319백만원	
	30~49인	(2,560)	32.0%	539백만원	
	50~99인	(1,725)	33.6%	881백만원	
	100인 이상	(924)	31.0%	1,407백만원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32.3%	358백만원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37.3%	399백만원	
	부산/경남/울산	(4,353)	43.1%	268백만원	
	대구/경북	(3,330)	23.8%	255백만원	
	광주/전라/제주	(2,161)	33.5%	260백만원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48.9%	148백만원	
	초기성장기	(6,715)	38.7%	274백만원	
	고도성장기	(18,251)	35.4%	339백만원	
	성숙기	(9,735)	28.0%	424백만원	
	쇠퇴기	(82)	36.4%	303백만원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45.2%	206백만원	
	4~10년	(18,012)	34.9%	315백만원	
	11~20년	(12,115)	33.1%	388백만원	
	21년 이상	(2,882)	25.4%	507백만원	

□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현황

- 2017년도 정책지원자금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증서지원(보증서발급대출)을 받은 비율이 49.4%로 가장 높고, 다음은 R&D자금(출연금) 37.9%, 용자(정책자금) 22.1% 순으로 나타남
- 2017년도 평균 수령금액은 보증서 지원이 36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자 326백만원, R&D자금 238백만원 순임

<표 2-1-10> 2017년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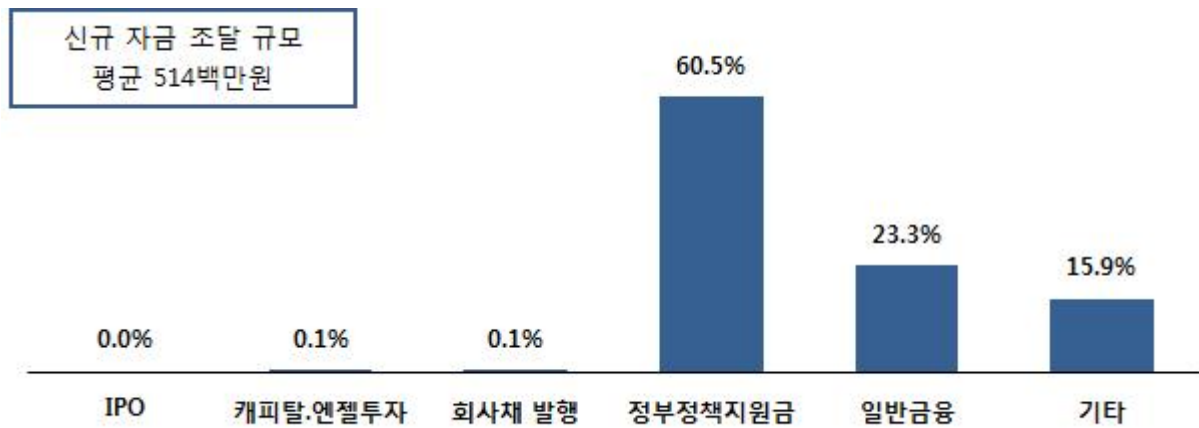
<정부 정책지원자금 경험 기업 12,009개>

구 분	2017년		
	정책지원자금 경험 여부		수령금액(평균)
	있음	없음	
R&D자금 (출연금)	37.9%	62.1%	238백만원
용자 (정책자금)	22.1%	77.9%	326백만원
보증서지원 (보증서발급대출)	49.4%	50.6%	364백만원

6. 신규자금 조달현황

- 벤처기업의 2017년 신규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514백만원으로 나타남
- 신규자금 조달방법은 정부 정책지원금(R&D, 융자, 보증서 지원)(60.5%)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은행 등 일반금융(23.3%), 기타(15.9%), 캐피탈 및 엔젤투자, 회사채발행 각 0.1%의 순임

<그림 2-1-6> 2017년 신규자금 조달규모 및 방법



7. 자금 투자처별 투자현황

□ 자금 투자

- 2017년 벤처기업의 투자처별 총 투자액은 평균 451.7백만원이며, 그 중 국내 R&D 투자액이 223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내 설비투자액 143백만원, 기타 85백만원, 해외 투자액 0.7백만원의 순으로 조사됨

<표 2-1-11> 2017년 투자처별 투자액

구 분	국내 설비투자액	국내 R&D투자액	해외 투자액	기타	전체
투자액	143백만원	223백만원	0.7백만원	85백만원	451.7백만원

□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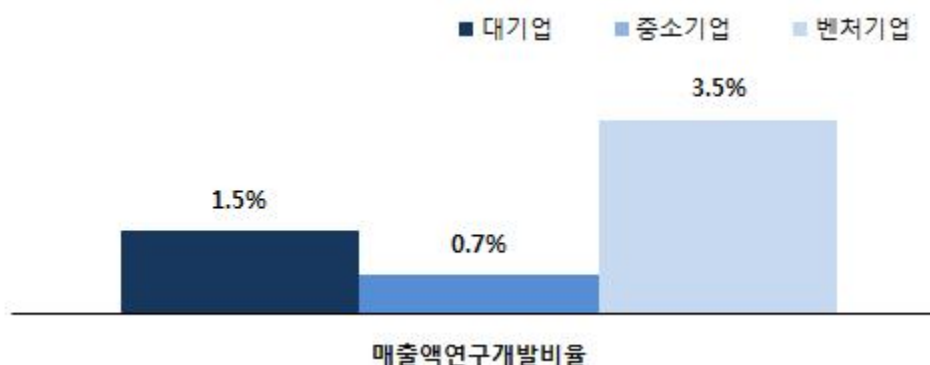
- 2017년 12월말 벤처기업의 매출액연구개발비율은 3.5%(전체)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표 2-1-12>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비교

구 분	전체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연구개발비율 ⁶⁾	1.5%	0.7%	3.5%	2.5%	1.3%	3.0%

주)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출처: 2017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그림 2-1-7>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비교



6) 매출액연구개발비율=(연구개발비/매출액)×100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은 전체 투자액 627.6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하며, 다음으로는 에너지/의료/정밀(594.8백만원), 통신기기/방송기기(498.3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은 9.6%로 가장 높은 반면, 음식료/섬유/(비)금속은 1.8%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1-13> 2017년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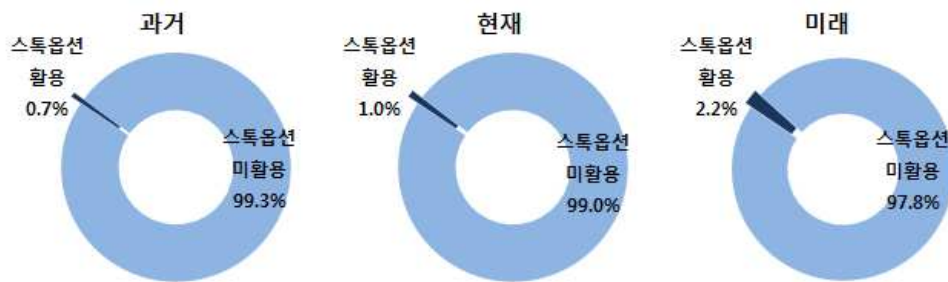
구 분		모집단 크기	국내설비 투자액	국내R&D 투자액	해외 투자액	기타	전체 투자액	매출액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단위: %)
전 체		(35,187)	143	223	0.7	85	451.7	3.5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102	397	0.8	95	594.8	7.6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272	257	0.6	98	627.6	3.3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86	393	0.3	19	498.3	5.4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126	144	1.1	153	424.1	1.8
		기계/제조/자동차	(8,952)	158	206	0.3	66	430.3	2.8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51	310	0.9	54	415.9	9.6
	정보통신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54	169	-	12	235.0	4.1
기타	기타	(4,762)	195	190	0.6	68	453.6	3.6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61	108	0.1	53	222.1	3.5	
	10~29인	(11,296)	85	209	0.0	104	398.0	3.7	
	30~49인	(2,560)	244	376	0.5	77	697.5	3.5	
	50~99인	(1,725)	505	609	2.5	216	1,332.5	3.2	
	100인 이상	(924)	1,527	1,582	16.0	278	3,403.0	3.3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150	272	0.8	78	500.8	3.4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140	191	0.7	116	447.7	4.2	
	부산/경남/울산	(4,353)	116	191	0.5	53	360.5	3.8	
	대구/경북	(3,330)	107	124	0.3	90	321.3	2.1	
	광주/전라/제주	(2,161)	206	191	0.1	75	472.1	3.3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65	88	-	22	175.0	13.8	
	초기성장기	(6,715)	67	145	-	131	343.0	3.7	
	고도성장기	(18,251)	139	221	0.4	68	428.4	3.6	
	성숙기	(9,735)	178	285	1.7	86	550.7	3.2	
	쇠퇴기	(82)	3,213	403	-	142	3,758.0	2.4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90	136	-	132	358.0	3.5
4~10년	(18,012)	102	154	0.5	76	332.5	4.1		
11~20년	(12,115)	160	301	0.7	81	542.7	3.8		
21년 이상	(2,882)	367	395	1.8	120	883.8	2.2		

주) 해외투자액 : 정수로 반올림시 0값의 의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소수점 1자리로 표시

8. 스톡옵션

- 과거에 스톡옵션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0.7% 수준이며, 현재 실시 중인 기업은 1.0%,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2.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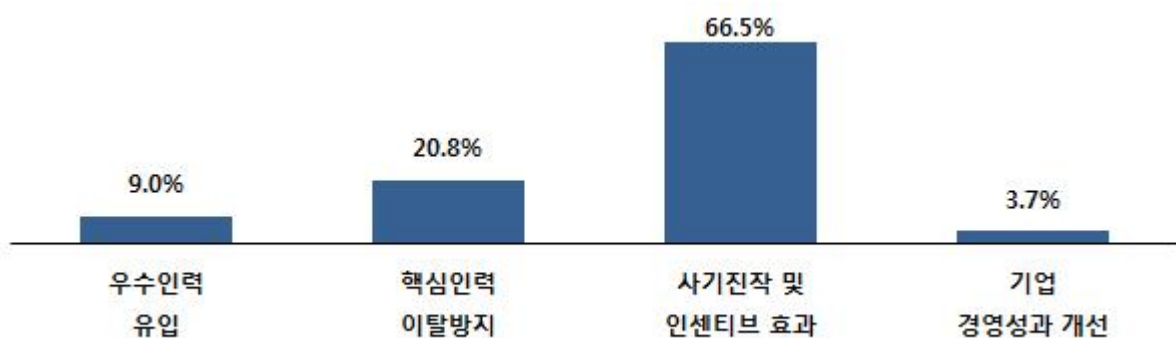
<그림 2-1-8> 스톡옵션 경험



- 스톡옵션 실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주요 목적은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가 6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핵심인력 이탈방지', '우수인력 유입', '기업 경영 성과개선'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9> 스톡옵션 실시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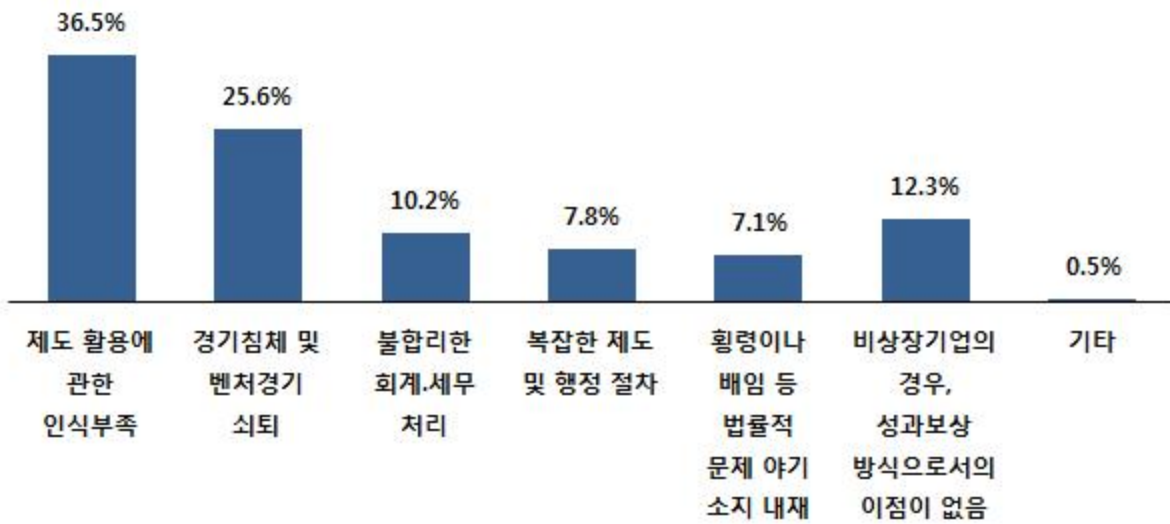
<스톡옵션을 과거/현재 중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기업 454개>



- 스톡옵션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이 3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25.6%), '비상장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 Merit가 없음'(12.3%), '불합리한 회계·세무 처리'(10.2%)등의 순임

<그림 2-1-10> 스톡옵션 활용하지 않는 이유

<스톡옵션을 과거/현재 중 한번이라도 경험이 없는 기업 35,04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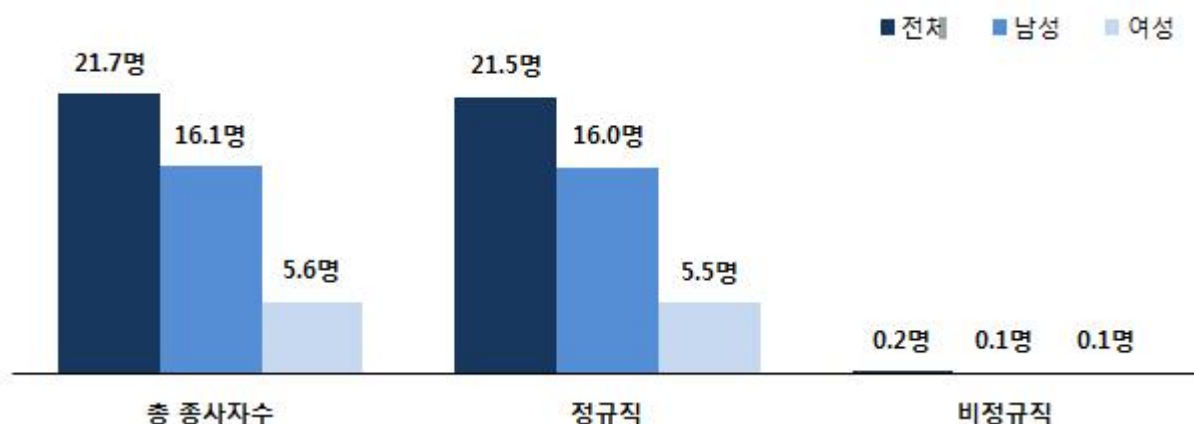


제2절. 인력 및 조직현황

1. 인력현황

- 벤처기업의 2017년 12월말 기준 총 종사자 수는 762,856명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21.7명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함. 정규직은 총 756,824명, 평균 21.5명으로 4.3%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총 6,032명, 평균 0.2명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함
- 기업 내 외국인 수는 기업당 평균 0.5명이며, 그 중 남성 0.4명, 여성 0.1명임

<그림 2-2-1> 2017년 인력 규모 현황



<표 2-2-1> 인력 규모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전체 증감률 ⁷⁾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종사자 수	전체	542,036명	189,356명	731,392명	565,275명	197,581명	762,856명	4.3%
	평균	15.4명	5.4명	20.8명	16.1명	5.6명	21.7명	
정규직 종사자 수	전체	539,111명	186,414명	725,525명	562,276명	194,548명	756,824명	4.3%
	평균	15.3명	5.3명	20.6명	16.0명	5.5명	21.5명	
비정규직 종사자 수	전체	2,925명	2,942명	5,867명	2,999명	3,033명	6,032명	2.8%
	평균	0.1명	0.1명	0.2명	0.1명	0.1명	0.2명	

주) 본조사(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2,059개 기업의 최근 2개년(16년, 17년)의 인력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함

<표 2-2-2> 외국인 수

구분	남성	여성	전체
평균	0.4명	0.1명	0.5명

7) 증감률(전체값으로 계산) = (2017년 종사자 - 2016년 종사자) / 2016년 종사자 × 100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이 평균 종사자 수가 25.7명이며, 전년대비 7.3%의 증가로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종사자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전년대비 증감률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0~29인'은 전년대비 인력이 2.9%의 비율로 가장 낮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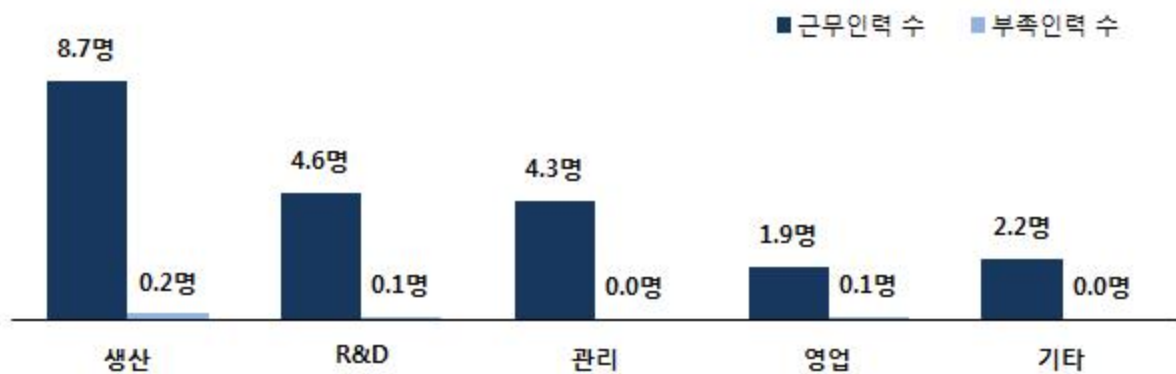
<표 2-2-3> 2017년 벤처기업 인력현황

구분		모집단 크기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년대비 증감률(전체)	
전체		(35,187)	21.5명	0.2명	21.7명	4.3%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25.5명	0.1명	25.6명	4.7%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25.1명	0.6명	25.7명	7.3%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22.9명	0.0명	22.9명	4.3%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18.7명	0.0명	18.7명	5.5%
		기계/제조/자동차	(8,952)	20.1명	0.0명	20.1명	2.1%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24.1명	0.1명	24.2명	3.9%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22.4명	0.1명	22.5명	5.4%
기타	기타	(4,762)	21.2명	0.5명	21.7명	3.4%	
종사자규모	1~9인	(18,682)	7.6명	0.0명	7.6명	3.1%	
	10~29인	(11,296)	19.4명	0.0명	19.4명	2.9%	
	30~49인	(2,560)	41.9명	0.0명	41.9명	3.4%	
	50~99인	(1,725)	71.7명	0.2명	71.9명	4.1%	
	100인 이상	(924)	177.1명	5.6명	182.7명	8.0%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23.8명	0.1명	23.9명	3.9%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19.1명	0.1명	19.2명	5.1%	
	부산/경남/울산	(4,353)	20.6명	0.3명	20.9명	3.6%	
	대구/경북	(3,330)	19.1명	0.7명	19.8명	5.8%	
	광주/전라/제주	(2,161)	18.6명	0.1명	18.7명	4.6%	
성장단계	창업기	(403)	7.9명	-	7.9명	23.6%	
	초기성장기	(6,715)	13.8명	0.0명	13.8명	8.0%	
	고도성장기	(18,251)	19.6명	0.2명	19.8명	4.4%	
	성숙기	(9,735)	30.5명	0.3명	30.8명	2.8%	
	쇠퇴기	(82)	66.2명	1.0명	67.2명	6.4%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11.2명	0.1명	11.3명	22.4%	
	4~10년	(18,012)	15.4명	0.1명	15.5명	4.6%	
	11~20년	(12,115)	27.7명	0.3명	28.0명	3.4%	
	21년 이상	(2,882)	41.1명	0.2명	41.3명	3.1%	

2. 종사자 직종별 인력구성 현황

- 벤처기업 종사자의 직종별 인력구성은 생산직이 평균 8.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R&D가 4.6명, 관리직 4.3명, 기타 2.2명, 영업 1.9명 순임
- 벤처기업의 부족 인력 수는 평균 0.4명이며,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평균 0.2명, R&D 0.1명, 영업 0.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2> 종사자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인력 수



- 벤처기업의 인력부족률은 평균 2.0%이며, 직종별로 살펴보면, 영업(2.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R&D(2.5%), 생산(2.3%), 관리(1.0%), 기타(0.6%) 순으로 나타남

<표 2-2-4> 직종별 인력구성, 부족인력 수 및 비율

구분		생산	R&D	관리	영업	기타	합계
2017년 근무 인력 수	전체	305,003명	161,341명	152,735명	66,136명	77,641명	762,856명
	평균	8.7명	4.6명	4.3명	1.9명	2.2명	21.7명
2017년 부족 인력 수	전체	7,251명	4,158명	1,511명	1,972명	479명	15,371명
	평균	0.2명	0.1명	0.0명	0.1명	0.0명	0.4명
인력부족률 ⁸⁾		2.3%	2.5%	1.0%	2.9%	0.6%	2.0%

8) 인력부족률(전체값으로 계산) = 부족인력수 / (근무인력수 + 부족인력수) * 100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생산직 인력이 많은 가운데, 특히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에서 13.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R&D 인력이 9.1명으로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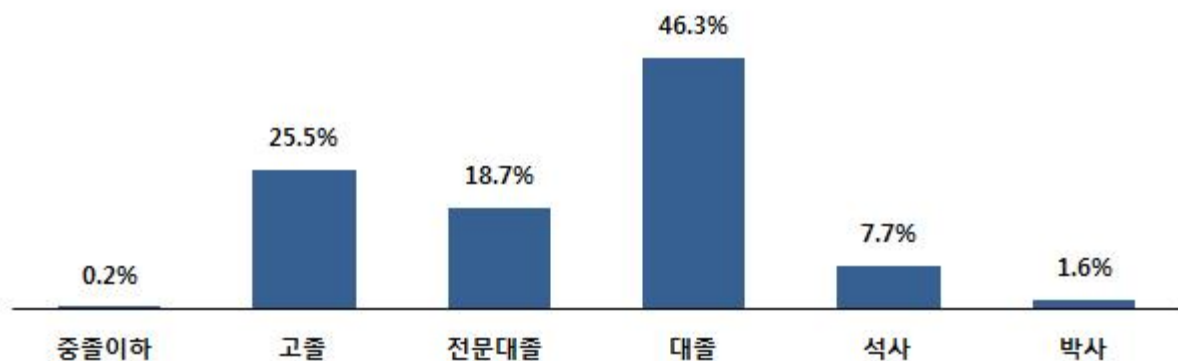
<표 2-2-5> 직종별 인력구성

구 분		모집단 크기	생산	R&D	관리	영업	기타	
전 체		(35,187)	8.7명	4.6명	4.3명	1.9명	2.2명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11.2명	6.2명	5.1명	2.5명	0.7명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13.5명	4.7명	4.7명	2.0명	0.7명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9.1명	6.4명	4.2명	2.1명	1.1명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10.4명	2.5명	3.7명	1.8명	0.3명
		기계/제조/자동차	(8,952)	10.7명	3.4명	3.8명	1.8명	0.5명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2.7명	9.1명	4.2명	1.9명	6.3명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3.8명	4.7명	6.0명	1.8명	6.2명
기타	기타	(4,762)	4.0명	5.4명	5.1명	1.8명	5.6명	
종사자 규모	1~9인	(18,682)	3.0명	2.3명	1.4명	0.7명	0.2명	
	10~29인	(11,296)	8.1명	4.3명	3.7명	2.0명	1.4명	
	30~49인	(2,560)	17.6명	6.8명	8.9명	3.7명	5.0명	
	50~99인	(1,725)	27.5명	13.7명	15.4명	5.5명	9.9명	
	100인 이상	(924)	70.1명	30.8명	38.3명	13.2명	30.8명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8.1명	5.4명	4.9명	2.2명	3.3명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8.5명	4.3명	3.6명	1.6명	1.2명	
	부산/경남/울산	(4,353)	9.9명	3.8명	4.0명	1.6명	1.5명	
	대구/경북	(3,330)	10.3명	3.1명	4.1명	1.4명	0.9명	
	광주/전라/제주	(2,161)	8.5명	3.4명	4.0명	1.5명	1.4명	
성장 단계	창업기	(403)	4.1명	2.4명	0.8명	0.4명	0.3명	
	초기성장기	(6,715)	5.2명	3.3명	2.6명	1.2명	1.6명	
	고도성장기	(18,251)	7.7명	4.3명	4.0명	1.8명	2.1명	
	성숙기	(9,735)	12.9명	6.0명	6.2명	2.6명	3.0명	
	쇠퇴기	(82)	29.8명	9.5명	17.0명	6.0명	4.9명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3.6명	2.7명	2.6명	1.0명	1.3명	
	4~10년	(18,012)	6.0명	3.6명	2.9명	1.4명	1.6명	
	11~20년	(12,115)	11.0명	5.9명	5.8명	2.4명	3.0명	
	21년 이상	(2,882)	19.4명	6.5명	8.5명	3.5명	3.6명	

3.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 현황

- 벤처기업의 2017년 12월말 기준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은 대졸이 46.3%로 가장 높고, 고졸 25.5%, 전문대졸 18.7%, 석사 7.7%, 박사 1.6%, 중졸이하 0.2%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3>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 현황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대졸 비율이 높은 가운데,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음식료/섬유/(비)금속과 기계/제조/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30~49인과, 지역은 대구/경북에서 고졸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력별로는 21년 이상의 벤처기업은 고졸, 창업 3년 이하 벤처기업은 석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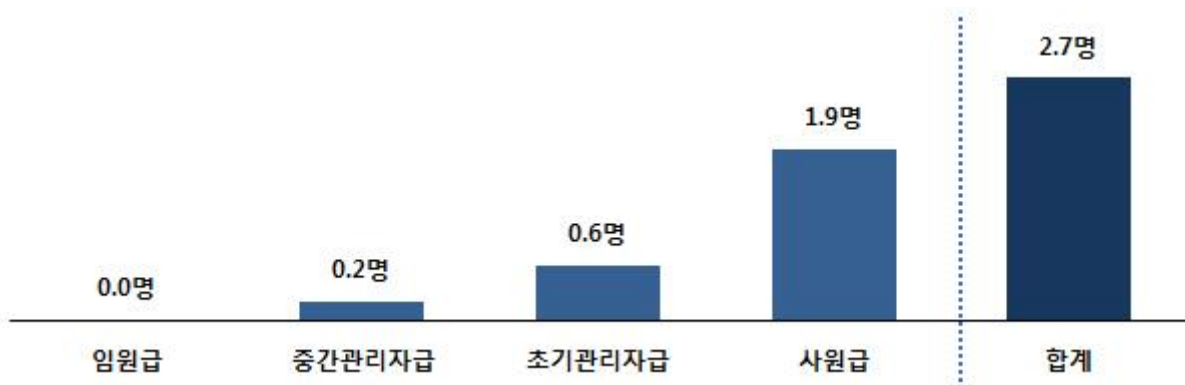
<표 2-2-6>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 현황

구분		모집단 크기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35,187)	0.2%	25.5%	18.7%	46.3%	7.7%	1.6%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0.0%	25.3%	19.7%	43.8%	8.9%	2.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0.0%	28.8%	19.9%	42.8%	6.8%	1.7%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0.1%	22.9%	21.3%	46.4%	7.7%	1.5%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0.2%	38.9%	16.8%	38.4%	4.2%	1.4%
		기계/제조/자동차	(8,952)	0.1%	33.8%	20.6%	38.6%	6.1%	0.8%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	4.4%	16.6%	67.3%	10.4%	1.3%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0.0%	7.2%	23.6%	61.7%	6.6%	0.9%
기타	기타	(4,762)	0.6%	11.6%	15.5%	54.0%	14.9%	3.4%	
종사자 규모	1~9인	(18,682)	0.2%	22.8%	19.0%	47.3%	8.8%	1.9%	
	10~29인	(11,296)	0.1%	27.8%	18.8%	44.8%	7.1%	1.5%	
	30~49인	(2,560)	0.3%	31.7%	17.5%	45.1%	4.8%	0.6%	
	50~99인	(1,725)	0.2%	29.4%	17.6%	47.2%	5.0%	0.6%	
	100인 이상	(924)	0.3%	27.5%	17.7%	47.8%	5.9%	0.7%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0.2%	23.1%	18.7%	48.6%	8.0%	1.4%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0.0%	25.2%	18.0%	45.5%	9.2%	2.1%	
	부산/경남/울산	(4,353)	0.3%	29.6%	19.4%	42.8%	6.3%	1.5%	
	대구/경북	(3,330)	0.1%	31.9%	19.4%	42.2%	5.0%	1.4%	
	광주/전라/제주	(2,161)	0.0%	27.8%	19.3%	45.4%	6.3%	1.2%	
성장 단계	창업기	(403)	-	20.2%	19.0%	52.5%	6.2%	2.0%	
	초기성장기	(6,715)	0.0%	24.9%	17.6%	48.2%	7.4%	1.8%	
	고도성장기	(18,251)	0.2%	23.9%	19.4%	46.6%	8.2%	1.8%	
	성숙기	(9,735)	0.2%	29.2%	18.3%	44.2%	6.9%	1.1%	
	쇠퇴기	(82)	-	25.3%	11.4%	58.0%	4.9%	0.4%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	22.9%	17.5%	47.3%	9.7%	2.6%	
	4~10년	(18,012)	0.2%	24.8%	18.9%	47.5%	7.4%	1.3%	
	11~20년	(12,115)	0.1%	25.0%	18.9%	45.5%	8.7%	1.9%	
	21년 이상	(2,882)	0.5%	34.4%	17.7%	42.2%	3.9%	1.2%	

4. 2017년도 퇴사 임직원 수

- 벤처기업의 2017년 평균 퇴사 임직원 수는 2.7명이며, 직급별로는 사원급이 평균 1.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초기 관리자급 0.6명, 중간 관리자급 0.2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4> 2017년도 퇴사 임직원 수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 퇴사 임직원이 가장 많은 업종은 에너지/의료/정밀과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으로 평균 3.1명이 퇴사하여 첨단제조업종이 타 업종 대비 평균 퇴사 임직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이 평균 3.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인천/경기(2.7명), 대구/경북(2.6명) 순으로 나타남
- 업력이 오래될수록 퇴사 임직원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원급의 경우 21년 이상 업력의 기업에서 평균 3.2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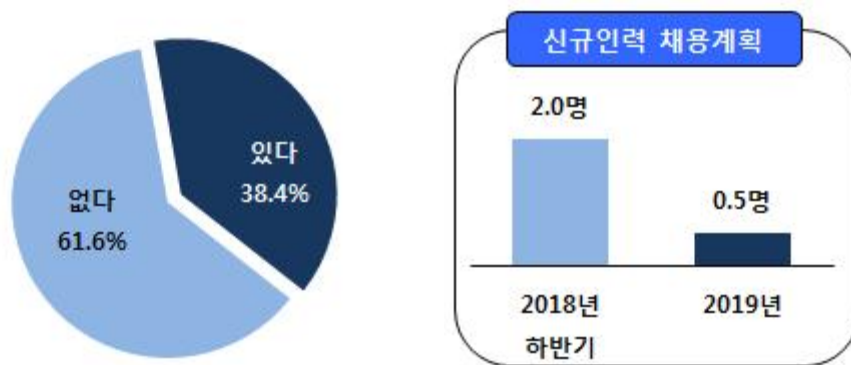
<표 2-2-7> 2017년도 퇴사 임직원 수

구 분		모집단 크기	임원급	중간 관리자급	초기 관리자급	사원급	합계	
전 체		(35,187)	0.0명	0.2명	0.6명	1.9명	2.7명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0.0명	0.3명	0.7명	2.1명	3.1명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0.0명	0.2명	0.6명	2.3명	3.1명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0.0명	0.3명	0.6명	1.8명	2.7명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0.0명	0.1명	0.4명	1.8명	2.3명
		기계/제조/자동차	(8,952)	0.0명	0.2명	0.5명	2.1명	2.8명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0.0명	0.3명	0.7명	1.6명	2.6명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0.0명	0.3명	0.5명	1.5명	2.3명
	기타	기타	(4,762)	0.0명	0.3명	0.6명	1.9명	2.8명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0.0명	0.1명	0.3명	1.0명	1.4명	
	10~29인	(11,296)	0.0명	0.3명	0.6명	1.8명	2.7명	
	30~49인	(2,560)	0.0명	0.3명	1.0명	3.2명	4.5명	
	50~99인	(1,725)	0.1명	0.6명	1.3명	4.9명	6.9명	
	100인 이상	(924)	0.2명	1.8명	2.8명	12.3명	17.1명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0.0명	0.2명	0.6명	1.9명	2.7명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0.0명	0.2명	0.5명	1.8명	2.5명	
	부산/경남/울산	(4,353)	0.0명	0.2명	0.6명	2.2명	3.0명	
	대구/경북	(3,330)	0.0명	0.2명	0.4명	2.0명	2.6명	
	광주/전라/제주	(2,161)	0.0명	0.2명	0.5명	1.6명	2.3명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	0.1명	0.3명	0.8명	1.2명	
	초기성장기	(6,715)	0.0명	0.1명	0.4명	1.3명	1.8명	
	고도성장기	(18,251)	0.0명	0.2명	0.5명	1.9명	2.6명	
	성숙기	(9,735)	0.0명	0.3명	0.8명	2.4명	3.5명	
	쇠퇴기	(82)	0.1명	0.5명	1.4명	4.2명	6.2명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	0.1명	0.3명	1.0명	1.4명	
	4~10년	(18,012)	0.0명	0.2명	0.5명	1.5명	2.2명	
	11~20년	(12,115)	0.0명	0.3명	0.7명	2.3명	3.3명	
	21년 이상	(2,882)	0.1명	0.4명	0.9명	3.2명	4.6명	

5. 신규인력 채용계획

- '2018년 하반기와 2019년'에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8.4%로 나타남
- 총 신규채용 인력은 평균 2.5명이며, 그 중 2018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인원은 평균 2.0명이며, 내년(2019년) 신규채용 계획 인원은 평균 0.5명으로 조사됨

<그림 2-2-5> 신규인력 채용계획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업종이 각각 평균 2.8명으로 신규인력 채용 계획 인원이 타 업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고용규모가 클수록 신규인력 채용 계획 인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2018년 하반기 평균 6.8명, 2019년 3.7명으로 총 10.5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와 부산/경남/울산에서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평균 2.7명으로 나타났으며, 성장단계의 쇠퇴기 기업(5.3명)과 업력 21년 이상 기업(3.2명)에서 가장 많은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8> 신규인력 채용계획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13,497개>

구 분		모집단 크기	신규인력 채용 계획			
			2018년 하반기	2019년	합계	
전 체		(13,497)	2.0명	0.5명	2.5명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667)	2.3명	0.4명	2.7명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560)	2.1명	0.5명	2.6명
		통신기기/방송기기	(371)	1.8명	0.6명	2.4명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3,065)	2.1명	0.6명	2.7명
		기계/제조/자동차	(3,220)	1.8명	0.4명	2.2명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1,778)	1.9명	0.9명	2.8명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061)	2.1명	0.7명	2.8명
기타	기타	(1,773)	1.9명	0.4명	2.3명	
종 사 자 규 모	1~9인	(6,797)	1.4명	0.3명	1.7명	
	10~29인	(4,482)	1.9명	0.4명	2.3명	
	30~49인	(1,028)	2.6명	0.7명	3.3명	
	50~99인	(745)	3.6명	1.0명	4.6명	
	100인 이상	(445)	6.8명	3.7명	10.5명	
지 역	서울/인천/경기	(6,096)	2.0명	0.7명	2.7명	
	대전/세종/충청/강원	(3,502)	1.9명	0.5명	2.4명	
	부산/경남/울산	(1,745)	2.2명	0.5명	2.7명	
	대구/경북	(1,273)	2.1명	0.3명	2.4명	
	광주/전라/제주	(880)	1.7명	0.5명	2.2명	
성 장 단 계	창업기	(151)	1.6명	0.4명	2.0명	
	초기성장기	(2,875)	1.8명	0.5명	2.3명	
	고도성장기	(7,033)	2.0명	0.6명	2.6명	
	성숙기	(3,414)	2.0명	0.5명	2.5명	
	쇠퇴기	(23)	3.6명	1.7명	5.3명	
업 력	창업 3년 이하	(979)	1.6명	0.6명	2.2명	
	4~10년	(7,362)	1.9명	0.5명	2.4명	
	11~20년	(4,096)	2.0명	0.5명	2.5명	
	21년 이상	(1,060)	2.4명	0.8명	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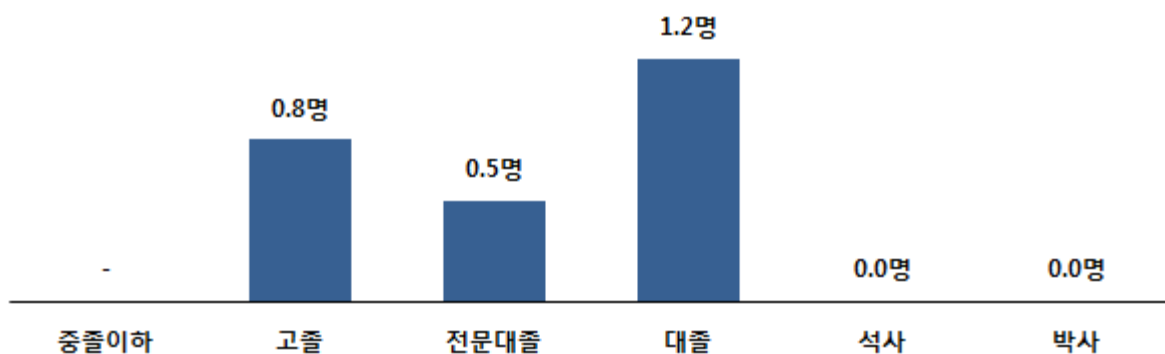
※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응답으로 전체 수는 모집단(35,187개)과 다름

※ 모집단 추정을 위한 가중치는 업종×종사자규모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분석구분별 합은 전체 수와 상이할 수 있음

6. 신규채용 희망 학력

- 벤처기업의 신규채용 희망 학력은 대졸이 평균 1.2명으로 가장 높고, 고졸이 0.8명, 전문대졸이 0.5명, 중졸이하와 석/박사급 채용 수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2-2-6> 신규채용 희망 학력



주) '-' 는 해당없음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대졸 수요가 많은 가운데, 에너지/의료/정밀은 석사가 0.1명으로 타 업종 대비 학력이 높은 신규인력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기타제외), 반면 음식료/섬유/(비)금속은 '고졸'(1.6명)의 학력 수요가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종사자 규모수가 클수록 대졸, 고졸 및 전문대졸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2-9> 신규채용 희망 학력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13,497개>

구 분		모집단 크기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 체		(13,497)	-	0.8명	0.5명	1.2명	0.0명	0.0명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667)	-	0.6명	0.6명	1.3명	0.1명	-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560)	-	1.0명	0.5명	1.1명	0.0명	0.0명
		통신기기/방송기기	(371)	-	0.6명	0.5명	1.3명	0.0명	-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3,065)	-	1.6명	0.3명	0.8명	0.0명	-
		기계/제조/자동차	(3,220)	-	0.8명	0.5명	1.0명	0.0명	0.0명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1,778)	-	0.1명	0.5명	2.1명	0.0명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061)	-	0.2명	1.0명	1.5명	0.0명	-
	기타	기타	(1,773)	-	0.3명	0.3명	1.5명	0.2명	0.0명
종 사 자 규 모	1~9인	(6,797)	-	0.5명	0.3명	0.9명	0.0명	0.0명	
	10~29인	(4,482)	-	0.8명	0.5명	1.0명	0.0명	0.0명	
	30~49인	(1,028)	-	1.1명	0.6명	1.6명	0.1명	-	
	50~99인	(745)	-	1.6명	0.7명	2.3명	0.0명	-	
	100인 이상	(445)	-	2.3명	1.6명	6.3명	0.2명	0.0명	
지 역	서울/인천/경기	(6,096)	-	0.6명	0.5명	1.5명	0.1명	0.0명	
	대전/세종/충청/강원	(3,502)	-	0.9명	0.4명	0.9명	0.0명	0.0명	
	부산/경남/울산	(1,745)	-	0.8명	0.3명	1.4명	0.0명	-	
	대구/경북	(1,273)	-	1.1명	0.5명	0.9명	0.0명	-	
	광주/전라/제주	(880)	-	0.8명	0.4명	1.0명	0.0명	-	
성 장 단 계	창업기	(151)	-	0.8명	0.1명	1.0명	-	-	
	초기성장기	(2,875)	-	0.7명	0.4명	1.2명	0.1명	0.0명	
	고도성장기	(7,033)	-	0.8명	0.5명	1.3명	0.0명	0.0명	
	성숙기	(3,414)	-	0.8명	0.4명	1.2명	0.0명	0.0명	
	쇠퇴기	(23)	-	0.9명	1.1명	3.4명	-	-	
업 력	창업 3년 이하	(979)	-	0.9명	0.2명	1.0명	0.1명	-	
	4~10년	(7,362)	-	0.8명	0.5명	1.2명	0.0명	0.0명	
	11~20년	(4,096)	-	0.8명	0.5명	1.3명	0.1명	0.0명	
	21년 이상	(1,060)	-	0.8명	0.5명	1.9명	0.0명	0.0명	

※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응답으로 전체 수는 모집단(35,187개)과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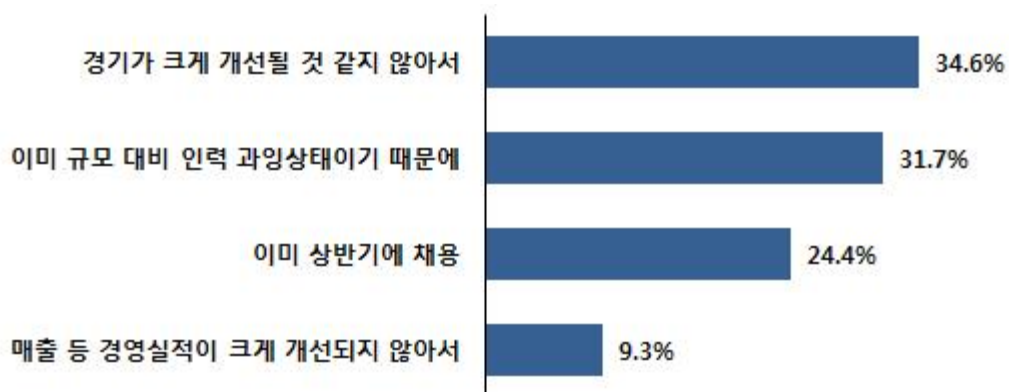
※ 모집단 추정을 위한 가중치는 업종×종사자규모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분석구분별 합은 전체 수와 상이할 수 있음

7.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신규 채용계획이 없는 이유

-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는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가 34.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이미 규모 대비 인력 과잉상태'가 31.7%, '이미 상반기에 채용'이 24.4%, '매출 등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9.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7>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없는 이유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 21,690개>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이유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제조/자동차에서는 '이미 규모 대비 인력 과잉상태'(42.3%),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매출 등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26.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창업기는 '매출 등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의 비율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창업기를 제외하면 모두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표 2-2-10>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없는 이유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 21,690개>

구 분		모집단 크기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이미 규모 대비 인력 과잉상태	이미 상반기에 채용	매출 등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전 체		(21,690)	34.6%	31.7%	24.4%	9.3%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1,675)	37.5%	26.5%	24.5%	11.4%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150)	44.8%	20.1%	23.6%	11.4%
		통신기기/방송기기	(903)	41.2%	33.4%	16.4%	9.0%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4,943)	33.9%	37.5%	22.2%	6.4%
		기계/제조/자동차	(5,732)	21.2%	42.3%	31.7%	4.8%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2,009)	42.5%	19.1%	12.4%	26.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291)	42.3%	11.9%	29.4%	16.4%
기타	기타	(2,989)	42.0%	29.3%	22.9%	5.8%	
종 사 자 규 모	1~9인	(11,885)	34.7%	34.4%	20.1%	10.8%	
	10~29인	(6,814)	38.0%	26.4%	28.3%	7.3%	
	30~49인	(1,532)	29.4%	34.9%	29.2%	6.5%	
	50~99인	(980)	22.6%	38.8%	30.9%	7.7%	
	100인 이상	(479)	27.4%	13.2%	47.8%	11.7%	
지 역	서울/인천/경기	(10,702)	35.6%	32.5%	23.2%	8.7%	
	대전/세종/충청/강원	(5,043)	35.9%	34.2%	23.8%	6.1%	
	부산/경남/울산	(2,608)	25.2%	26.0%	31.7%	17.0%	
	대구/경북	(2,057)	27.1%	30.2%	29.5%	13.2%	
	광주/전라/제주	(1,281)	52.7%	28.4%	14.4%	4.5%	
성 장 단 계	창업기	(253)	-	34.4%	30.9%	34.6%	
	초기성장기	(3,840)	31.3%	30.7%	24.8%	13.2%	
	고도성장기	(11,218)	35.6%	33.3%	22.1%	9.0%	
	성숙기	(6,321)	36.2%	29.1%	28.4%	6.3%	
	쇠퇴기	(59)	43.2%	42.3%	-	14.5%	
업 력	창업 3년 이하	(1,199)	16.5%	38.5%	30.8%	14.2%	
	4~10년	(10,650)	34.8%	30.8%	22.9%	11.5%	
	11~20년	(8,019)	38.4%	30.8%	24.5%	6.3%	
	21년 이상	(1,822)	29.5%	36.0%	28.6%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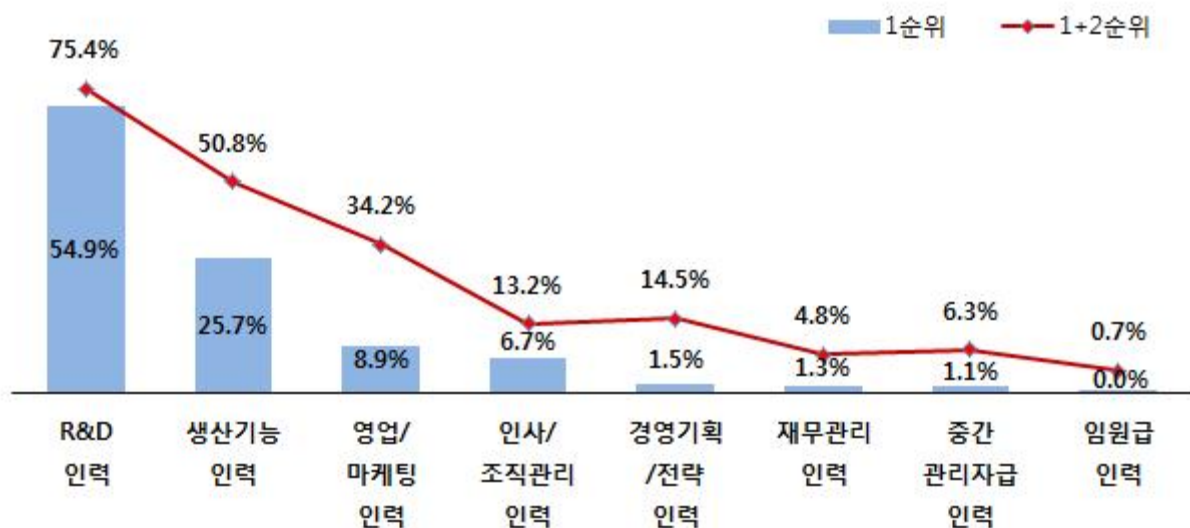
※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의 응답으로 전체 수는 모집단(35,187개)과 다름

※ 모집단 추정을 위한 가중치는 업종×종사자규모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분석구분별 합은 전체 수와 상이할 수 있음

8. 인력확보 애로 직종

- 벤처기업의 인력확보 애로 직종을 2순위까지 살펴본 결과, R&D가 7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산기능 인력이 50.8%, 영업 및 마케팅 34.2%, 경영기획/전략 14.5%, 인사/조직 관리 13.2%, 중간관리자급 6.3%, 재무관리 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8> 인력확보 애로 직종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에서는 '재무관리'(9.2%),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에서는 'R&D'(88.5%),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업종에서는 '경영기획/전략'(29.8%)의 인력 확보에 타업종 대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쇠퇴기의 기업은 '경영기획/전략' 인력확보가 47.7%로 가장 어렵다고 나타났으며, 성숙기 기업은 '임원급'(1.1%)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업력 21년 이상인 기업은 '생산기능'(66.2%)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표 2-2-11> 인력확보 애로 직종(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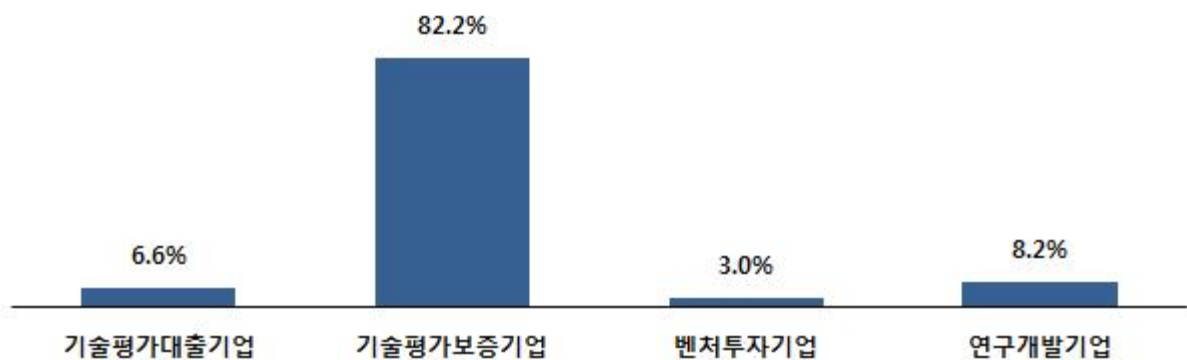
구 분		모집단 크기	생산 기능	인사/조직 관리	R&D	재무 관리	영업/마케팅	경영 기획/전략	중간 관리자급	임원급	
전 체		(35,187)	50.8%	13.2%	75.4%	4.8%	34.2%	14.5%	6.3%	0.7%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54.7%	4.5%	77.7%	5.3%	43.1%	6.7%	6.4%	1.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51.4%	17.7%	72.9%	9.2%	26.2%	16.7%	5.8%	0.1%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53.8%	10.5%	79.4%	6.3%	25.0%	16.7%	6.5%	1.8%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69.4%	13.0%	72.1%	3.3%	32.4%	5.8%	4.2%	-
		기계/제조/자동차	(8,952)	67.9%	10.5%	73.1%	3.5%	31.3%	9.9%	3.8%	-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13.7%	12.5%	88.5%	4.8%	45.9%	19.2%	12.3%	3.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26.8%	11.5%	82.8%	2.3%	38.8%	29.8%	6.6%	1.4%
기타	기타	(4,762)	25.6%	21.4%	71.3%	7.2%	35.3%	28.3%	9.7%	1.1%	
종사자규모	1~9인	(18,682)	51.7%	14.1%	74.7%	4.4%	33.7%	15.2%	5.3%	0.9%	
	10~29인	(11,296)	51.7%	10.5%	77.1%	5.2%	33.6%	13.4%	8.0%	0.5%	
	30~49인	(2,560)	46.5%	18.3%	71.4%	6.8%	37.4%	13.7%	5.4%	0.5%	
	50~99인	(1,725)	47.4%	12.1%	79.8%	5.6%	35.0%	14.9%	4.1%	1.0%	
	100인 이상	(924)	40.9%	15.3%	73.1%	2.5%	40.8%	15.9%	10.4%	1.1%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44.4%	13.1%	76.9%	5.1%	36.0%	16.8%	7.0%	0.6%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56.0%	11.0%	80.0%	5.0%	32.2%	10.0%	4.3%	1.5%	
	부산/경남/울산	(4,353)	55.6%	19.9%	65.3%	3.6%	31.1%	15.5%	8.5%	0.5%	
	대구/경북	(3,330)	62.9%	14.9%	74.2%	5.8%	34.2%	6.3%	1.5%	0.1%	
	광주/전라/제주	(2,161)	51.6%	6.6%	68.7%	2.9%	33.6%	25.4%	11.1%	-	
성장단계	창업기	(403)	17.2%	16.1%	75.9%	5.5%	34.0%	43.2%	8.0%	-	
	초기성장기	(6,715)	44.7%	14.1%	74.9%	3.5%	36.2%	17.2%	8.8%	0.6%	
	고도성장기	(18,251)	52.8%	13.5%	75.7%	5.9%	32.1%	13.9%	5.4%	0.7%	
	성숙기	(9,735)	52.7%	11.8%	75.6%	3.7%	36.5%	12.5%	6.1%	1.1%	
	쇠퇴기	(82)	45.5%	17.5%	43.7%	4.7%	41.0%	47.7%	-	-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40.8%	13.5%	72.5%	5.1%	30.0%	30.9%	7.2%	-	
	4~10년	(18,012)	50.4%	13.8%	76.1%	4.9%	33.6%	13.8%	6.3%	0.9%	
	11~20년	(12,115)	49.5%	12.5%	77.9%	4.9%	34.3%	13.1%	6.9%	0.8%	
	21년 이상	(2,882)	66.2%	11.8%	62.9%	3.7%	40.0%	12.6%	2.7%	0.2%	

제3절. 기업 일반현황

1. 벤처기업 확인유형

- 벤처기업 확인유형은 기술평가 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이 82.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구개발기업 8.2%, 기술평가 대출기업(중진공) 6.6%, 벤처투자기업(창투자 등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 3.0% 순으로 조사됨

<그림 2-3-1> 벤처기업 확인유형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유형 중 기술평가보증기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에서 '기술평가 대출기업'(9.6%), '벤처투자기업'(7.8%), 통신기기/방송기기에서는 '연구개발기업'(19.6%) 유형 비율이 타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기업' 유형 비율이 높아진 반면, '기술평가보증기업' 비율은 작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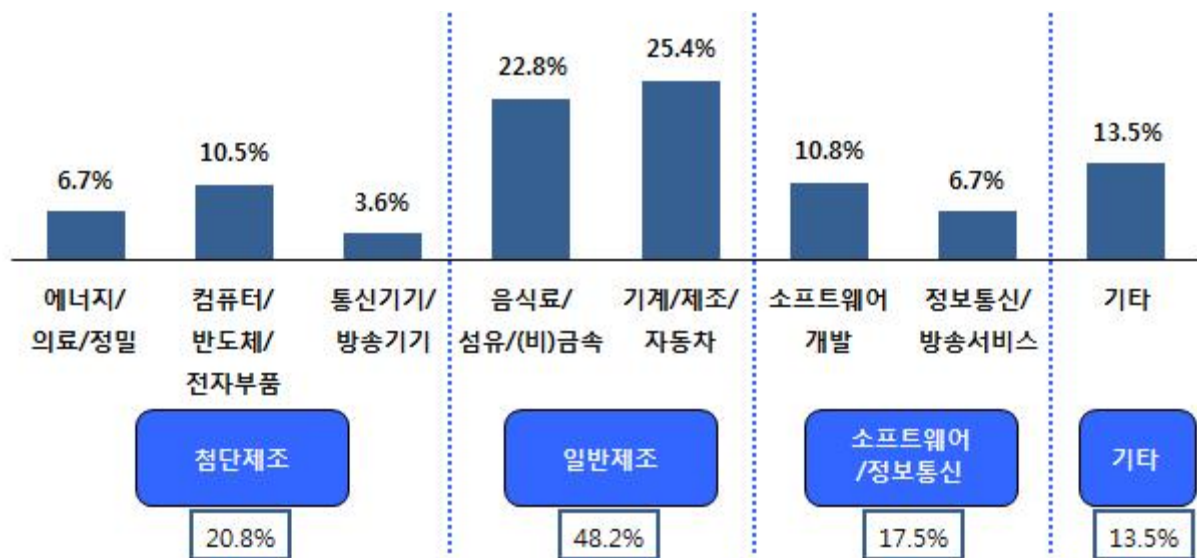
<표 2-3-1> 벤처기업 확인유형

구 분		모집단 크기	기술평가 대출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전 체		(35,187)	6.6%	82.2%	3.0%	8.2%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3.4%	74.4%	7.2%	14.9%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9.6%	73.8%	7.8%	8.8%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6.3%	70.7%	3.4%	19.6%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7.0%	89.5%	0.9%	2.7%
		기계/제조/자동차	(8,952)	8.8%	81.5%	2.5%	7.2%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0.8%	82.5%	1.9%	14.7%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4.7%	84.9%	5.2%	5.2%
	기타	기타	(4,762)	6.3%	83.0%	1.5%	9.1%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6.7%	85.4%	2.9%	5.0%	
	10~29인	(11,296)	7.3%	82.1%	1.2%	9.3%	
	30~49인	(2,560)	4.6%	72.5%	6.2%	16.7%	
	50~99인	(1,725)	5.3%	70.9%	6.3%	17.5%	
	100인 이상	(924)	1.7%	65.5%	12.8%	20.1%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5.9%	80.3%	3.4%	10.4%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6.2%	83.1%	3.0%	7.7%	
	부산/경남/울산	(4,353)	4.1%	92.8%	0.4%	2.7%	
	대구/경북	(3,330)	11.1%	77.7%	4.2%	7.0%	
	광주/전라/제주	(2,161)	11.5%	78.7%	3.5%	6.3%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9.2%	82.8%	8.0%	-	
	초기성장기	(6,715)	11.2%	78.8%	3.6%	6.3%	
	고도성장기	(18,251)	5.8%	82.6%	3.0%	8.6%	
	성숙기	(9,735)	4.8%	83.6%	2.4%	9.3%	
	쇠퇴기	(82)	-	92.7%	4.6%	2.7%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7.4%	81.4%	6.0%	5.2%	
	4~10년	(18,012)	8.4%	83.6%	2.0%	6.1%	
	11~20년	(12,115)	4.8%	79.1%	4.0%	12.1%	
	21년 이상	(2,882)	2.0%	87.0%	3.2%	7.8%	

2. 업종분포 현황

- 8대 업종별로는 기계/제조/자동차 업종의 비중이 25.4%로 가장 높고, 음식료/섬유/(비)금속 22.8%, 소프트웨어 10.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0.5%,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에너지/의료/정밀 각각 6.7%, 통신기기/방송기기 3.6%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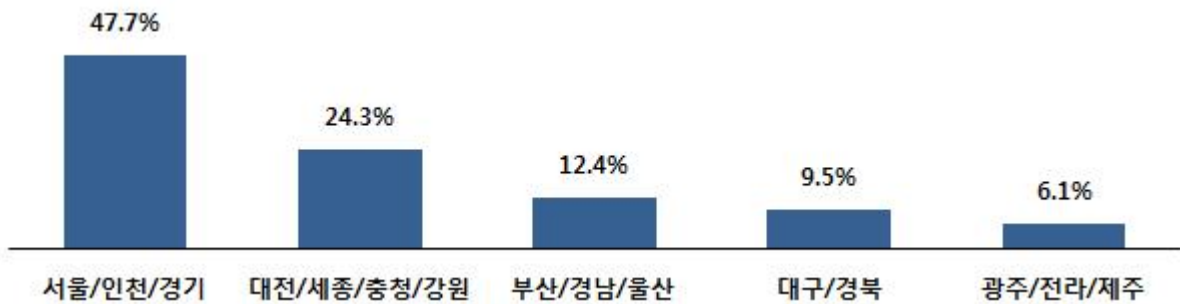
<그림 2-3-2> 8대 업종분포 현황



3. 지역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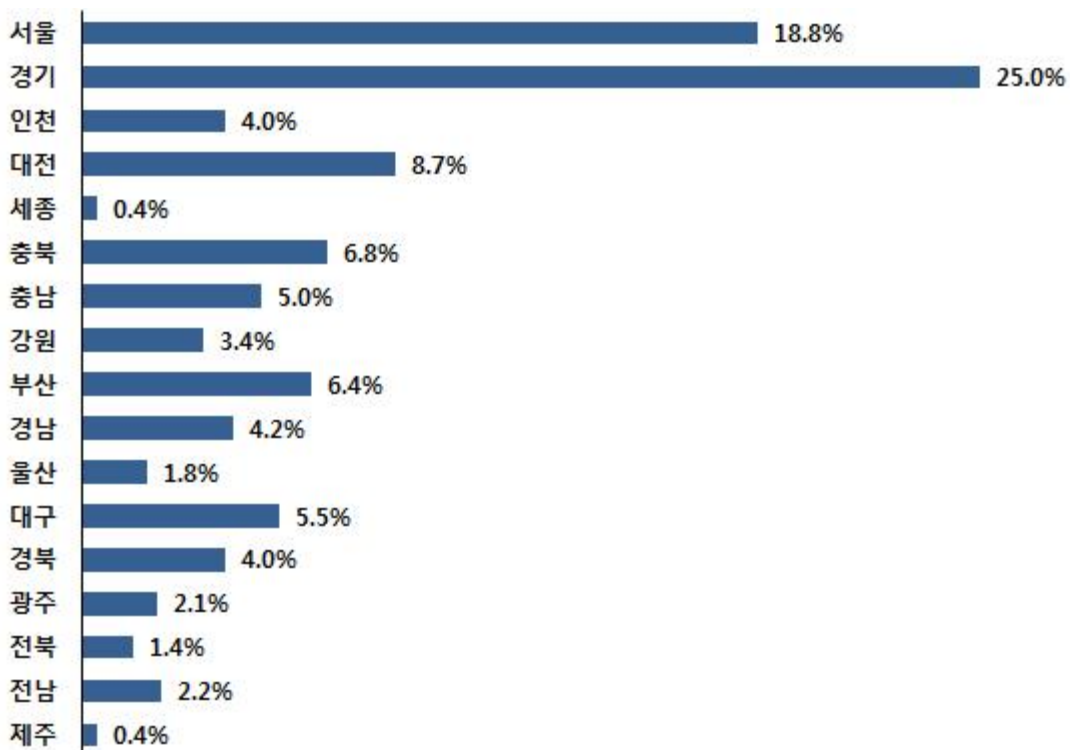
- 벤처기업의 권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4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전/세종/충청/강원 24.3%, 부산/경남/울산 12.4%, 대구/경북 9.5%, 광주/전라/제주 6.1% 순으로 분포됨

<그림 2-3-3> 권역별 분포 현황



- 세부적으로 17개 시도별 분포는 경기 지역이 25.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18.8%, 대전 8.7%, 충북 6.8%, 부산 6.4% 등의 순으로 분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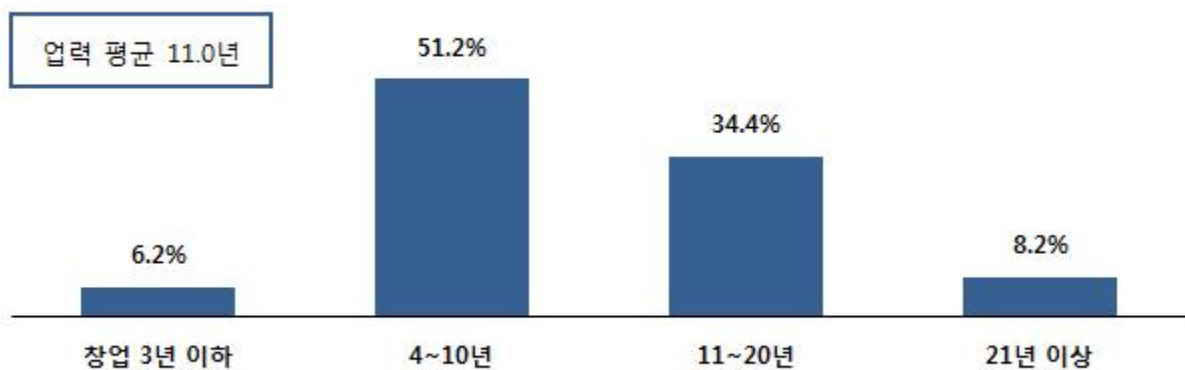
<그림 2-3-4> 17개 시도별 분포 현황



4. 업력 현황

-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11.0년으로 조사됨
- 업력별로는 '4~10년'이 51.2%로 가장 많고, 이어 '11~20년' 34.4%, '21년 이상' 8.2%, '3년 이하' 6.2% 순임

<그림 2-3-5> 업력 현황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기계/제조/자동차 11.6년, 통신기기/방송기기 11.6년, 음식료/섬유/(비)금속 11.5년, 에너지/의료/정밀 10.8년,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0.8년 순으로 나타나 비제조 업종보다 제조업종의 업력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기타 제외)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간 업력으로는 '4~10년'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업종은 '3년 이하'(14.8%)의 비율이 타 업종 대비 높으며, 기계/제조/자동차는 가장 평균 업력이 높아 '21년 이상'(11.0%)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1년 이상'의 업력 분포가 높아지며, 평균 업력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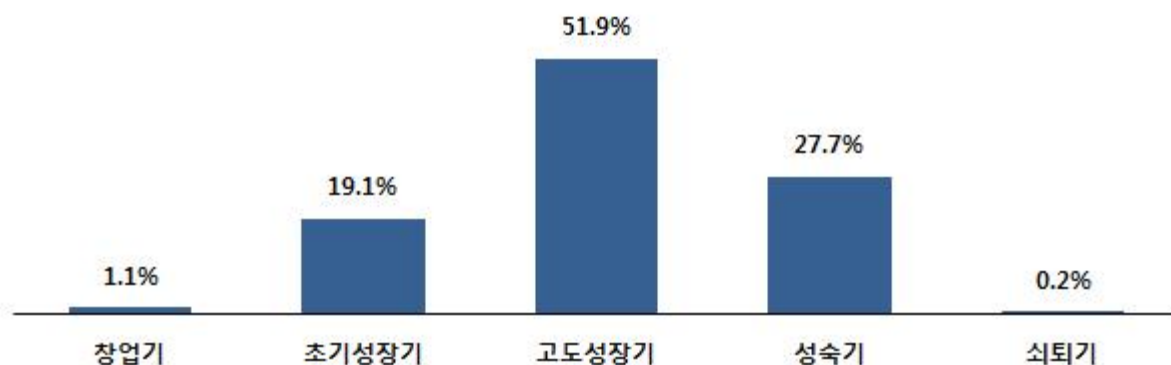
<표 2-3-2> 업력분포 현황

구 분		모집단 크기	3년 이하	4~10년	11~20년	21년 이상	평균	
전 체		(35,187)	6.2%	51.2%	34.4%	8.2%	11.0명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7.7%	46.5%	40.4%	5.5%	10.8명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8.4%	49.7%	32.7%	9.1%	10.8명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6.2%	44.4%	43.7%	5.6%	11.6명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5.6%	48.0%	36.1%	10.3%	11.5명
		기계/제조/자동차	(8,952)	4.5%	50.4%	34.1%	11.0%	11.6명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5.5%	54.9%	37.4%	2.2%	10.3명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14.8%	59.7%	22.4%	3.1%	8.5명
	기타	기타	(4,762)	4.2%	56.2%	31.7%	7.9%	10.9명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10.3%	60.2%	25.0%	4.5%	9.1명	
	10~29인	(11,296)	1.2%	47.6%	42.2%	9.0%	12.2명	
	30~49인	(2,560)	2.2%	32.6%	50.2%	15.0%	14.1명	
	50~99인	(1,725)	1.8%	23.8%	50.2%	24.2%	16.2명	
	100인 이상	(924)	2.7%	16.8%	55.4%	25.1%	17.2명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6.9%	48.9%	35.9%	8.4%	11.3명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4.2%	51.1%	38.0%	6.7%	11.1명	
	부산/경남/울산	(4,353)	7.3%	54.3%	31.3%	7.1%	10.2명	
	대구/경북	(3,330)	5.6%	57.0%	24.1%	13.2%	11.0명	
	광주/전라/제주	(2,161)	7.6%	54.2%	31.0%	7.3%	10.4명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48.8%	51.2%	-	-	3.7명	
	초기성장기	(6,715)	28.3%	66.9%	4.4%	0.3%	5.3명	
	고도성장기	(18,251)	0.4%	63.1%	34.5%	2.0%	10.0명	
	성숙기	(9,735)	-	18.5%	56.4%	25.0%	17.0명	
	쇠퇴기	(82)	-	-	41.6%	58.4%	24.4명	

5. 기업 성장단계

- 벤처기업의 기업 성장단계는 고도성장기가 51.9%로 가장 많고, 다음 성숙기(27.7%), 초기 성장기(19.1%), 창업기(1.1%), 쇠퇴기(0.2%)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6> 기업 성장단계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고도성장기'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타 업종대비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창업기'(4.4%)의 비율이,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초기성장기'(38.1%), 음식료/섬유/(비)금속은 '성숙기'(34.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은 '쇠퇴기'(0.7%)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성숙기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창업기 및 초기 성장기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는 '초기성장기'(25.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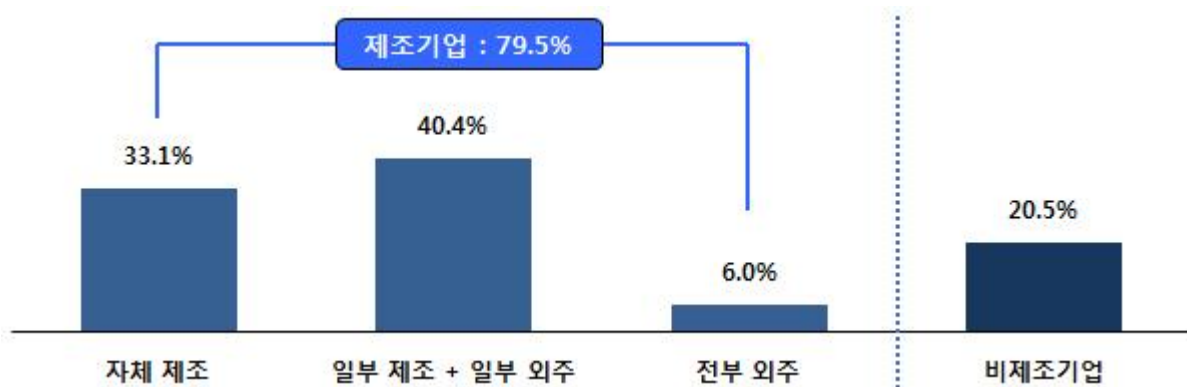
<표 2-3-3> 기업 성장단계

구 분		모집단 크기	창업기	초기 성장기	고도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 체		(35,187)	1.1%	19.1%	51.9%	27.7%	0.2%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	24.6%	53.6%	21.8%	0.1%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	27.6%	50.4%	21.3%	0.7%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1.8%	11.9%	57.6%	28.6%	0.1%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0.1%	18.5%	47.1%	34.3%	0.1%
		기계/제조/자동차	(8,952)	0.7%	11.6%	58.0%	29.5%	0.2%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4.4%	18.7%	54.0%	22.5%	0.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3.5%	38.1%	42.2%	16.1%	0.1%
기타	기타	(4,762)	1.3%	17.7%	50.2%	30.4%	0.3%	
종 사 자 규모	1~9인	(18,682)	1.9%	24.1%	56.3%	17.7%	-	
	10~29인	(11,296)	0.4%	16.1%	48.0%	35.4%	0.2%	
	30~49인	(2,560)	0.3%	9.4%	45.3%	44.0%	1.0%	
	50~99인	(1,725)	-	6.0%	43.5%	49.1%	1.4%	
	100인 이상	(924)	-	5.7%	44.4%	48.3%	1.6%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1.2%	20.0%	50.9%	27.6%	0.3%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1.7%	17.1%	52.2%	28.8%	0.1%	
	부산/경남/울산	(4,353)	1.3%	16.4%	55.7%	26.4%	0.3%	
	대구/경북	(3,330)	-	18.9%	51.2%	29.9%	0.1%	
	광주/전라/제주	(2,161)	-	25.6%	51.4%	22.9%	0.1%	
업 력	창업 3년 이하	(403)	9.0%	87.4%	3.6%	-	-	
	4~10년	(6,715)	1.1%	24.9%	63.9%	10.0%	-	
	11~20년	(18,251)	-	2.5%	51.9%	45.3%	0.3%	
	21년 이상	(9,735)	-	0.8%	13.0%	84.6%	1.7%	

6. 제조 및 비제조 여부

- 벤처기업의 79.5%는 제조기업이며, 20.5%는 비제조기업임
- 제조기업 중 '일부 제조와 외주(아웃소싱)'를 병행하고 있는 기업이 40.4%, '자체 제조' 기업은 33.1%, '전부 외주' 기업은 6.0%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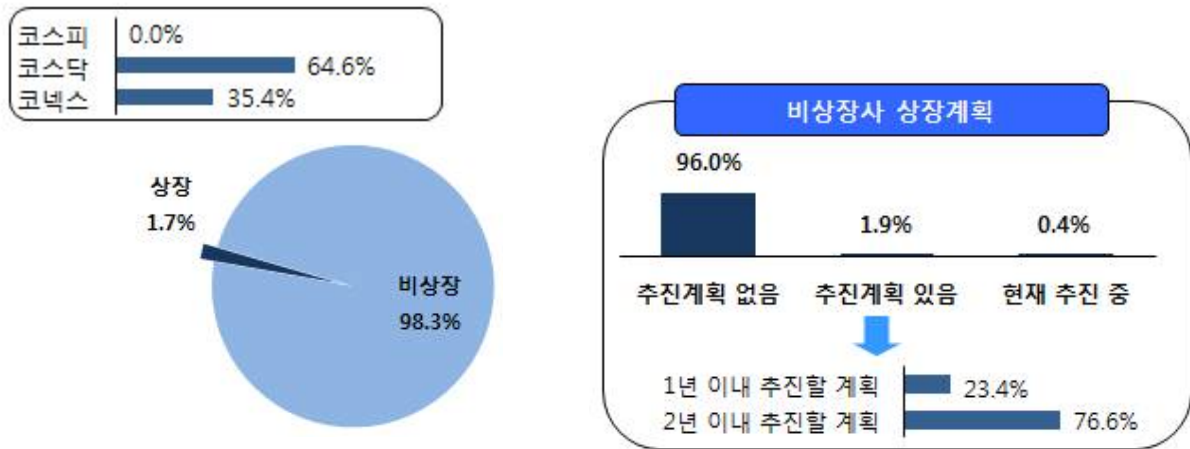
<그림 2-3-7> 제조 및 비제조 여부



7. 상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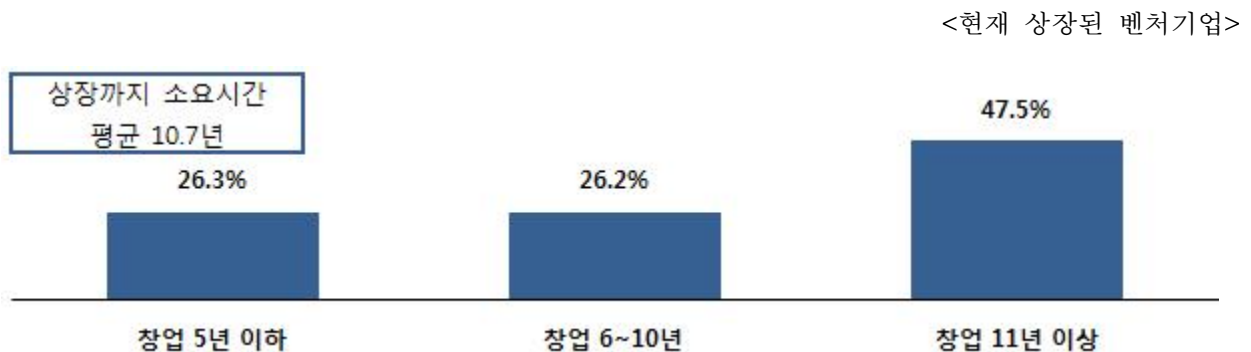
- 현재 상장된 벤처기업은 1.7%로 조사되었으며, 상장 기업 중 코스닥은 64.6%, 코넥스는 35.4%로 나타남
- 비상장기업의 상장 계획을 조사한 결과, '추진 계획이 없음' 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96.0%로 가장 높았으며, '추진 계획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9%, '현재 추진 중'인 기업은 0.4%로 나타남
- 상장 추진 계획이 있는 기업 중 '1년 이내 추진할 계획'은 23.4%, '2년 이내 추진할 계획'은 76.6%임

<그림 2-3-8> 상장 현황 및 계획



- 창업 후 상장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0.7년이며, 세부적으로 상장까지 '창업 후 11년 이상' 소요된 기업은 47.5%, 창업 5년 이하' 26.3%, '6~10년' 26.2%,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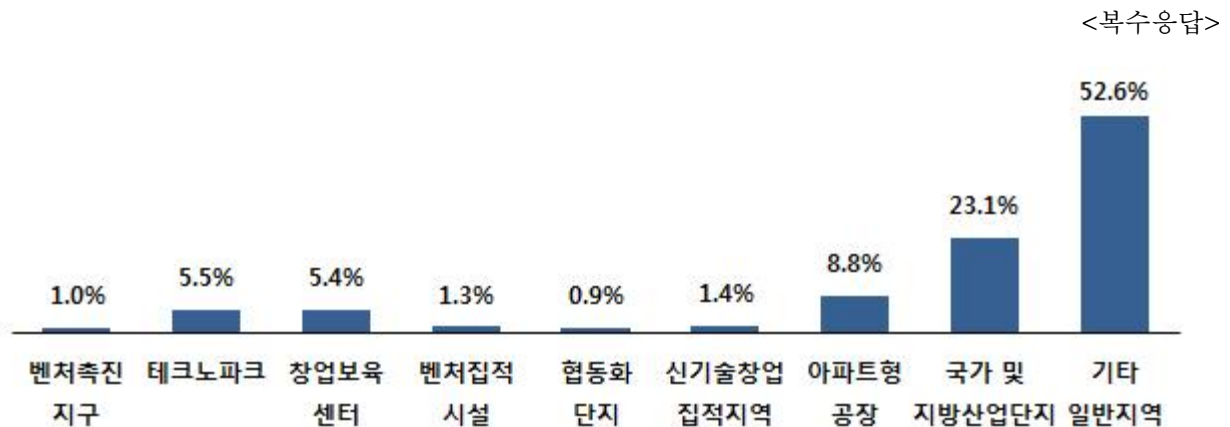
<그림 2-3-9> 창업 후 상장까지 소요기간



8. 본사 및 공장·연구소 현황

- 벤처기업의 본사 및 공장, 연구소 위치는 '기타 일반지역'이 52.6%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23.1%, '아파트형 공장'이 8.8%, '테크노파크' 5.5%, '창업보육센터' 5.4%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3-10> 본사 및 공장·연구소 현황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기타 일반지역'에 위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타 업종과 비교하여 음식료/섬유/(비)금속의 경우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32.1%)', 통신기기/방송기기는 '아파트형 공장(19.4%)',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테크노파크(11.0%)'에 위치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비율이 높아짐
- 창업기는 '창업보육센터'(19.2%), 초기성장기는 '테크노파크'(7.1%), 쇠퇴기 기업의 경우 '신기술창업 집적지역'(8.5%)과 '아파트형 공장'(25.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4> 본사 및 공장·연구소 현황

<복수응답>

구분		모집단 크기	벤처 촉진 지구	테크노 파크	창업 보육 센터	벤처 집적 시설	협동화 단지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	아파트 형 공장	국가 및 지방 산업 단지	기타 일반 지역	
전체		(35,187)	1.0%	5.5%	5.4%	1.3%	0.9%	1.4%	8.8%	23.1%	52.6%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4.6%	6.9%	3.0%	3.9%	0.6%	5.2%	14.3%	20.3%	41.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0.2%	9.3%	2.7%	0.6%	1.3%	1.9%	13.7%	26.1%	44.1%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0.1%	5.6%	4.7%	3.3%	0.3%	2.8%	19.4%	16.9%	46.9%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	2.8%	5.3%	0.4%	0.4%	0.6%	1.5%	32.1%	57.0%
		기계/제조/자동차	(8,952)	0.7%	5.9%	6.6%	1.0%	2.1%	0.9%	7.2%	30.9%	44.7%
	SW/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3.0%	3.3%	5.6%	4.0%	0.1%	1.5%	13.0%	15.3%	54.2%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0.2%	11.0%	6.7%	0.8%	0.8%	1.3%	8.6%	5.9%	64.7%
기타	기타	(4,762)	0.9%	4.6%	6.0%	0.1%	0.1%	1.3%	11.8%	8.5%	66.8%	
종사자규모	1~9인	(18,682)	1.5%	5.5%	8.2%	1.3%	1.2%	1.5%	10.0%	18.5%	52.3%	
	10~29인	(11,296)	0.3%	6.0%	3.0%	1.5%	0.6%	1.1%	8.6%	27.4%	51.7%	
	30~49인	(2,560)	0.5%	5.3%	0.5%	0.9%	0.7%	2.4%	5.6%	28.9%	55.2%	
	50~99인	(1,725)	0.6%	3.0%	0.7%	1.2%	0.8%	2.1%	3.8%	30.2%	57.6%	
	100인 이상	(924)	0.9%	4.3%	-	0.8%	0.4%	1.8%	5.2%	32.9%	53.6%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0.5%	3.5%	2.7%	1.6%	0.3%	2.0%	15.5%	19.3%	54.6%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2.0%	9.9%	12.0%	1.7%	1.6%	0.9%	2.0%	18.6%	51.3%	
	부산/경남/울산	(4,353)	-	2.3%	2.3%	0.8%	0.3%	0.1%	4.8%	35.1%	54.2%	
	대구/경북	(3,330)	0.2%	8.6%	5.7%	-	3.9%	0.3%	2.6%	32.6%	46.1%	
	광주/전라/제주	(2,161)	3.1%	5.3%	6.7%	0.3%	-	3.7%	0.4%	31.8%	48.8%	
성장단계	창업기	(403)	-	-	19.2%	-	-	-	-	16.1%	64.7%	
	초기성장기	(6,715)	1.1%	7.1%	7.9%	1.3%	0.7%	0.8%	8.4%	19.6%	53.2%	
	고도성장기	(18,251)	0.8%	5.7%	6.0%	1.1%	0.9%	1.6%	8.8%	20.9%	54.2%	
	성숙기	(9,735)	1.3%	4.3%	2.0%	1.7%	1.1%	1.7%	9.3%	30.0%	48.8%	
	쇠퇴기	(82)	1.8%	-	-	-	-	8.5%	25.6%	12.9%	51.2%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1.6%	5.9%	16.2%	-	-	1.6%	4.9%	15.3%	54.6%	
	4~10년	(18,012)	0.6%	5.8%	7.4%	1.3%	0.9%	1.4%	8.3%	22.4%	51.9%	
	11~20년	(12,115)	1.2%	5.5%	1.8%	1.3%	0.5%	1.1%	10.5%	23.9%	54.3%	
	21년 이상	(2,882)	2.1%	3.7%	-	2.2%	3.1%	2.9%	8.2%	29.1%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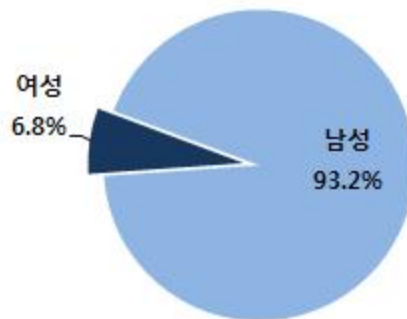
제4절. 대표자 및 창업주 특성

1. 대표이사 특성

□ 대표이사 성별

-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93.2%, 여성은 6.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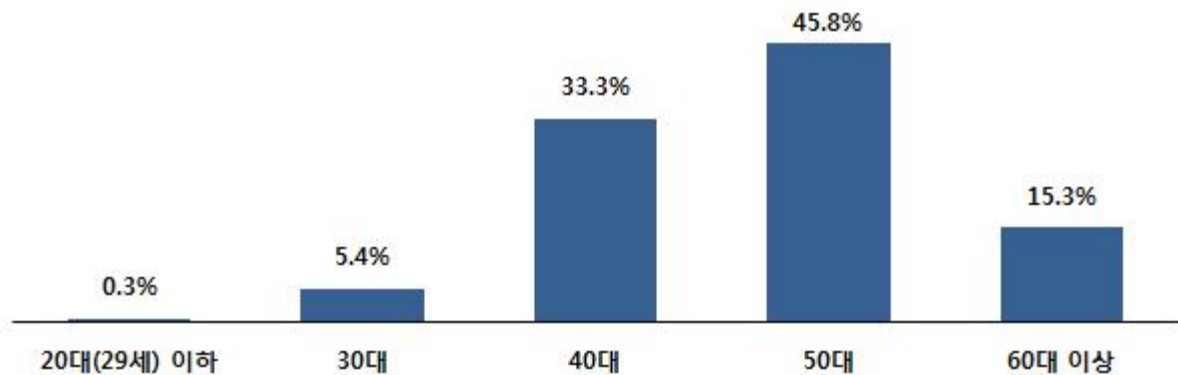
<그림 2-4-1> 대표이사 성별



□ 대표이사 연령분포

-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연령분포는 50대가 45.8%로 가장 많고, 40대가 33.3%, 60대 이상 15.3%, 30대 5.4%, 20대 이하는 0.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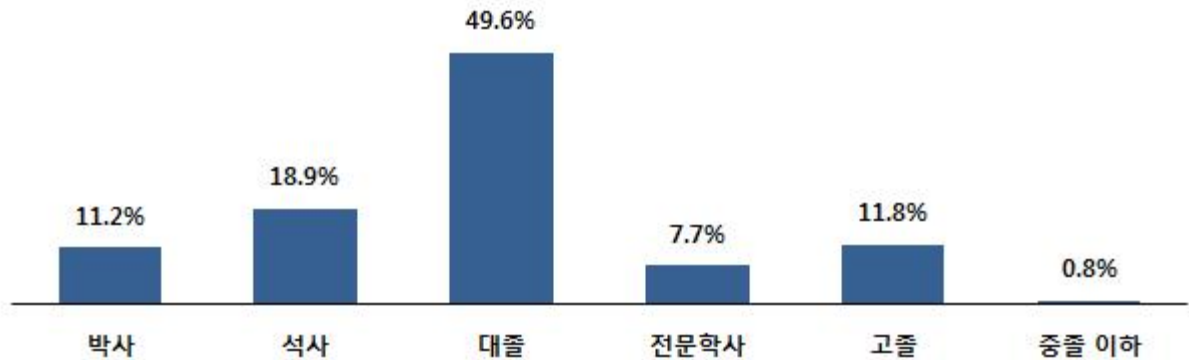
<그림 2-4-2> 대표이사 연령분포



□ 대표이사 최종학력

-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49.6%로 가장 많고, 석사 18.9%, 고졸 11.8%, 박사 11.2%, 전문학사 7.7%, 중졸이하 0.8%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3> 대표이사 최종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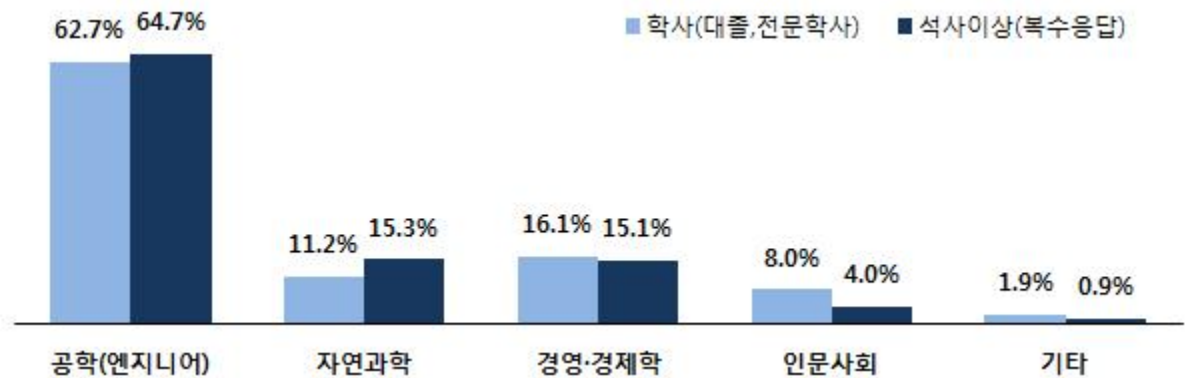


□ 대표이사 전공분야

-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대졸·전문학사 전공 분야는 공학(엔지니어)이 62.7%로 가장 많고, 경영·경제학이 16.1%, 자연과학 11.2%, 인문사회 8.0% 순임
- 석사 전공 분야 역시 공학(엔지니어)이 64.7%로 가장 많으며, 자연과학 15.3%, 경영·경제학 15.1%, 인문사회학 4.0%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4> 대표이사 전공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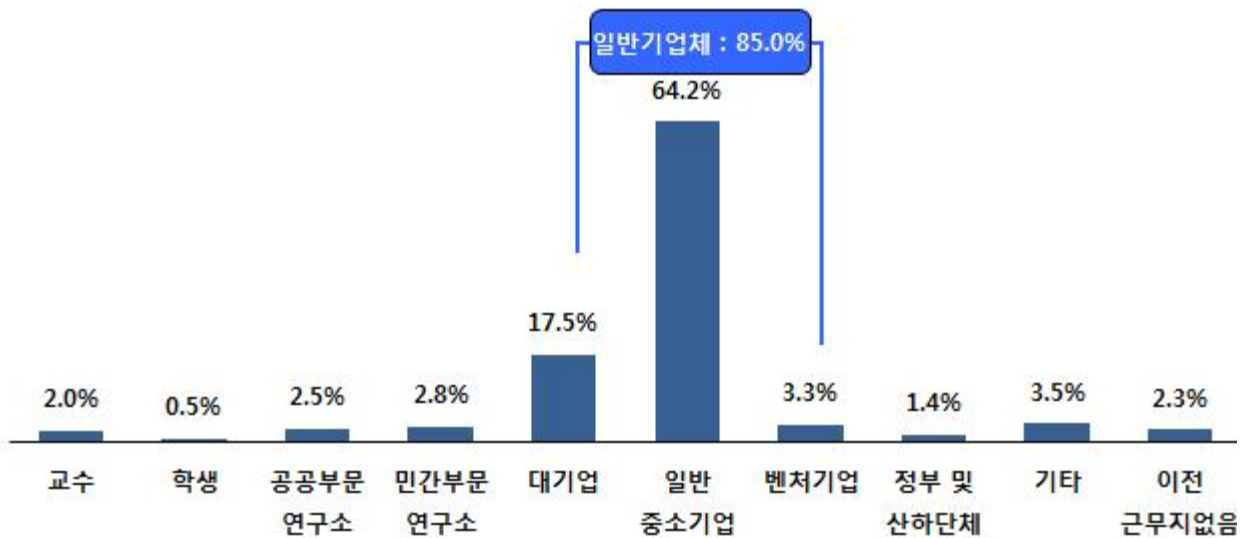
<최종학력이 전문학사 이상인 기업 30,750개, 복수응답>



□ 대표이사 이전 근무지

-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이전 근무지는 일반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가 64.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기업이 17.5%, 벤처기업 3.3% 순으로 조사됨

<그림 2-4-5> 대표이사의 이전 근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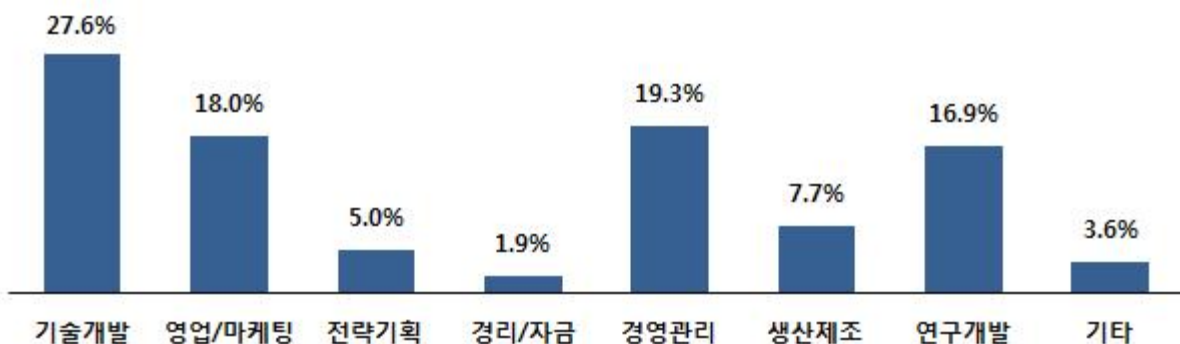


□ 대표이사 이전 직장 업무경력 분야

-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이전 직장 업무경력 분야로 기술개발이 27.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경영관리 19.3%, 영업/마케팅 18.0%, 연구개발 16.9% 등의 순임

<그림 2-4-6> 대표이사의 이전 직장 업무경력 분야

<대표이사 이전 근무지가 있는 기업 34,391개, 복수응답>



특성별 분석

○ 대표이사의 이전직장 업무경력 분야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기술개발', 음식료/섬유/(비)금속은 영업/마케팅 및 경영관리 분야가 높게 나타남

<표 2-4-1> 대표이사의 이전 직장 업무경력 분야

<대표이사 이전 근무지가 있는 기업 34,391개, 복수응답>

구 분		모집단 크기	기술 개발	영업/ 마케팅	전략 기획	재무	경영 관리	생산 제조	연구 개발	기타	
전 체		(34,391)	27.6%	18.0%	5.0%	1.9%	19.3%	7.7%	16.9%	3.6%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20)	20.1%	16.9%	6.8%	3.0%	16.4%	7.8%	26.0%	3.0%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687)	30.7%	15.8%	4.2%	0.7%	13.9%	14.7%	18.8%	1.2%
		통신기기/방송기기	(1,207)	27.0%	18.9%	1.9%	2.8%	25.5%	5.7%	13.9%	4.1%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7,626)	19.9%	21.6%	2.9%	2.1%	27.5%	10.7%	12.4%	2.9%
		기계/제조/자동차	(8,783)	29.5%	21.0%	2.6%	2.2%	18.1%	7.9%	15.0%	3.7%
	SW/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54)	35.7%	14.5%	9.8%	0.6%	14.4%	1.2%	19.1%	4.7%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45)	32.4%	18.0%	10.3%	2.7%	14.2%	3.6%	15.4%	3.5%
	기타	기타	(4,670)	29.7%	11.3%	7.0%	1.6%	18.2%	5.1%	21.4%	5.8%
종사자 규모	1~9인	(18,276)	28.0%	15.6%	5.4%	1.6%	18.8%	8.3%	17.9%	4.4%	
	10~29인	(11,045)	28.0%	23.1%	4.4%	2.2%	17.1%	7.8%	15.1%	2.3%	
	30~49인	(2,481)	26.5%	15.7%	5.6%	2.3%	26.0%	5.9%	14.9%	3.1%	
	50~99인	(1,696)	23.2%	18.9%	3.5%	1.6%	24.9%	5.4%	20.1%	2.5%	
	100인 이상	(894)	25.9%	11.7%	6.0%	2.1%	29.2%	3.3%	17.0%	4.8%	
지역	서울/인천/경기	(16,500)	27.5%	20.5%	7.0%	1.5%	16.4%	8.3%	15.4%	3.4%	
	대전/세종/충청/강원	(8,384)	27.7%	17.6%	2.7%	2.1%	19.0%	5.8%	21.7%	3.5%	
	부산/경남/울산	(4,149)	27.0%	12.3%	3.1%	3.6%	26.3%	10.2%	12.1%	5.5%	
	대구/경북	(3,292)	30.4%	14.7%	2.8%	2.0%	23.7%	5.4%	18.8%	2.2%	
	광주/전라/제주	(2,066)	26.1%	16.4%	5.1%	0.9%	22.6%	8.7%	16.7%	3.5%	
성장 단계	창업기	(403)	34.8%	8.9%	8.3%	-	16.7%	2.6%	20.3%	8.4%	
	초기성장기	(6,574)	24.4%	18.1%	7.7%	3.2%	18.2%	7.7%	19.1%	1.7%	
	고도성장기	(17,877)	28.6%	18.2%	4.9%	1.6%	19.1%	7.7%	16.2%	3.6%	
	성숙기	(9,462)	27.8%	18.2%	2.8%	1.5%	20.7%	8.0%	16.1%	4.8%	
	쇠퇴기	(75)	28.6%	6.3%	6.8%	-	12.5%	17.7%	25.7%	2.3%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2)	30.4%	10.9%	10.6%	1.1%	20.8%	4.2%	22.1%	-	
	4~10년	(17,575)	26.2%	19.7%	5.4%	1.9%	19.2%	8.2%	16.2%	3.2%	
	11~20년	(11,935)	30.1%	16.4%	4.0%	2.2%	17.7%	7.3%	17.6%	4.5%	
	21년 이상	(2,709)	24.8%	18.8%	1.7%	0.9%	26.1%	8.7%	13.6%	5.4%	

※ "대표이사 이전 근무지가 있는 기업"의 응답으로 전체 수는 모집단(35,187개)과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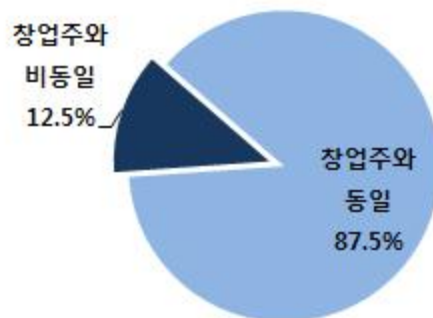
※ 모집단 추정을 위한 가중치는 업종×종사자규모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분석구분별 합은 전체 수와 상이할 수 있음

2. 창업주 특성

□ 창업주와 대표이사의 관계

-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은 87.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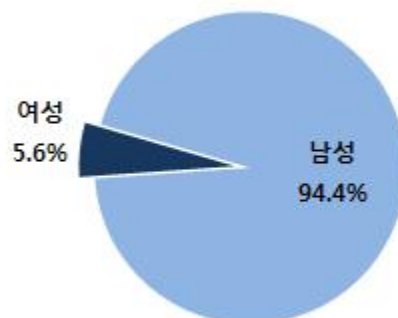
<그림 2-4-7> 창업주와 대표이사의 동일 여부



□ 창업주의 성별

- 벤처기업 창업주는 남성이 94.4%, 여성은 5.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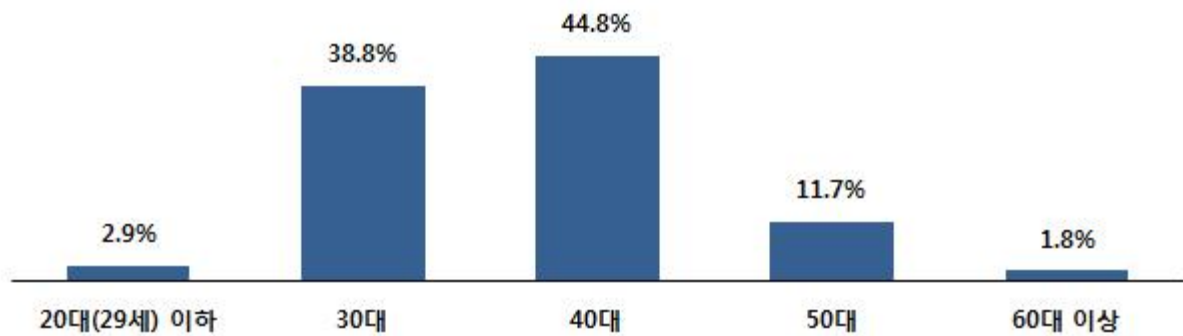
<그림 2-4-8> 창업주 성별



□ 창업주의 창업당시 연령

- 벤처기업 창업당시 창업주의 연령은 40대가 44.8%로 가장 많고, 30대가 38.8%, 50대 11.7%, 20대 이하 2.9%, 60대 이상이 1.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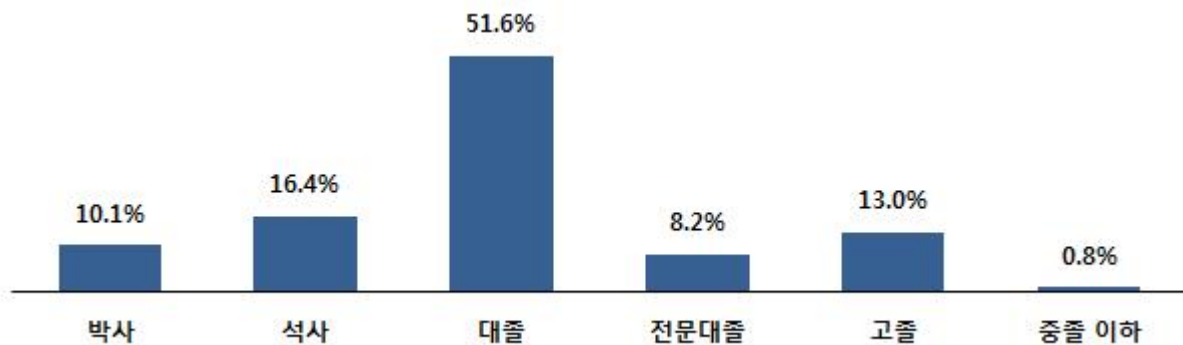
<그림 2-4-9> 창업당시 창업주 연령



□ 창업주의 창업당시 최종 학력

- 벤처기업 창업당시 창업주의 최종학력은 대졸(학사)이 51.6%로 가장 많고, 석사 16.4%, 고졸 13.0%, 박사 10.1%, 전문학사 8.2%, 중졸이하 0.8%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10> 창업주의 창업당시 최종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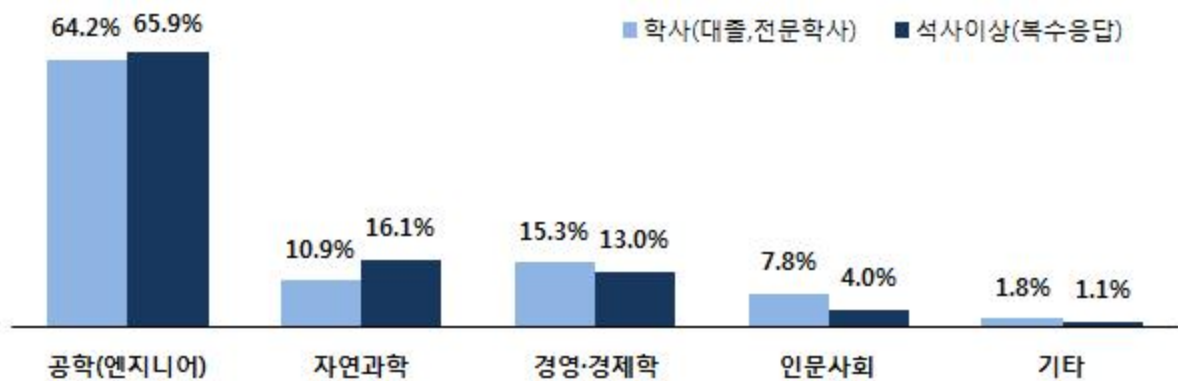


□ 창업주의 창업 당시 전공

- 벤처기업 창업주의 전문학사 전공 분야는 공학(엔지니어)이 64.2%로 가장 많고, 경영·경제학 15.3%, 자연과학 10.9%, 인문사회학 7.8% 순임
- 석사이상 전공 분야 역시 공학(엔지니어)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4-11> 창업주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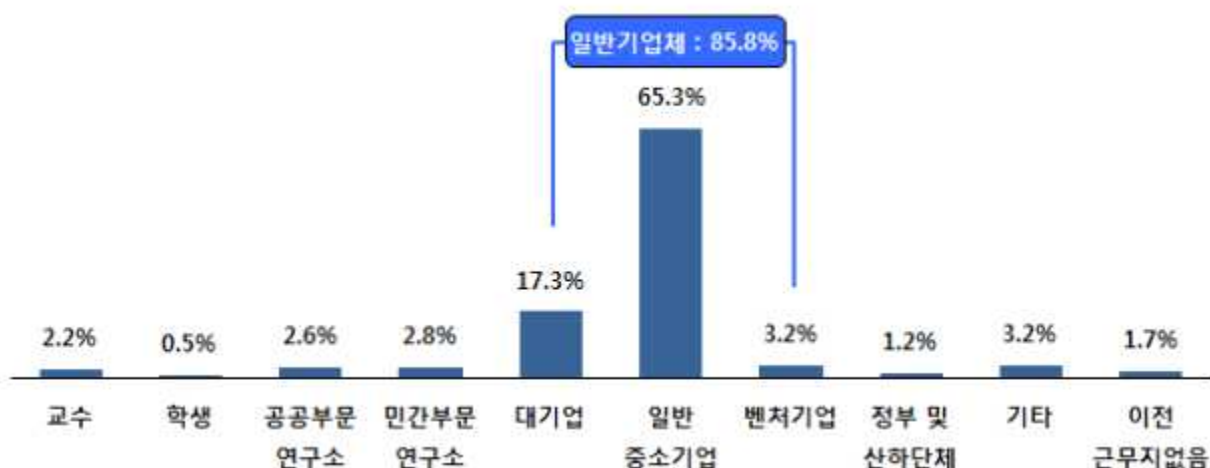
<최종학력이 전문학사 이상인 기업 30,334개, 복수응답>



□ 창업주의 창업 이전 근무지 유형

- 창업주의 벤처기업 창업 이전 근무지 유형은 일반중소기업이 65.3%로 가장 많고, 대기업 17.3%, 벤처기업 3.2% 등의 순서임

<그림 2-4-12> 창업주의 이전 근무지 유형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창업주의 이전 근무지는 일반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이외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은 '대기업(21.1%)'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벤처기업(9.8%)'이 타 업종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대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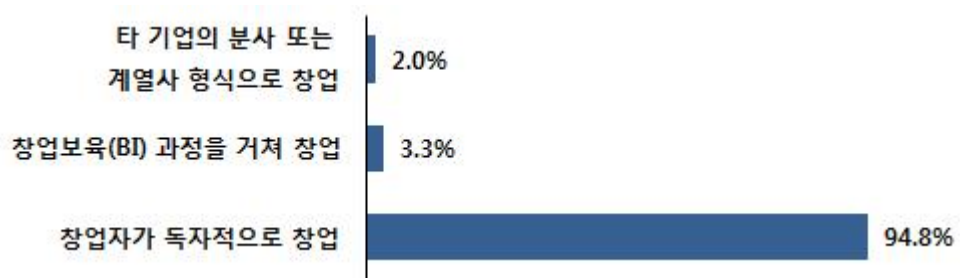
<표 2-4-2> 창업주의 이전 근무지 유형

구분		모집단 크기	교수	학생	공공 부문 연구소	민간 부문 연구소	대기업	일반 중소 기업	벤처 기업	정부 및 산하 단체	기타	이전 근무지 없음	
전 체		(35,187)	2.2%	0.5%	2.6%	2.8%	17.3%	65.3%	3.2%	1.2%	3.2%	1.7%	
업 종	첨단 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1.3%	-	5.4%	3.4%	17.2%	58.0%	4.0%	3.2%	7.2%	0.2%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0.6%	0.9%	3.4%	3.9%	21.1%	67.4%	0.4%	0.6%	1.3%	0.5%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	-	4.7%	0.9%	17.2%	64.7%	3.1%	0.7%	3.5%	5.3%
	일반 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2.4%	-	0.5%	2.0%	14.0%	67.0%	1.9%	1.7%	6.8%	3.7%
		기계/제조/자동차	(8,952)	2.2%	1.1%	1.2%	4.9%	19.8%	65.3%	2.0%	0.2%	1.9%	1.4%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2.5%	0.9%	9.4%	-	17.3%	58.0%	9.8%	1.5%	0.2%	0.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1.9%	0.1%	1.8%	0.9%	14.5%	72.1%	4.4%	1.7%	2.3%	0.3%
기타	기타	(4,762)	3.9%	-	0.9%	2.8%	16.7%	67.1%	4.0%	1.6%	1.7%	1.3%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2.5%	0.5%	3.0%	3.0%	15.9%	64.8%	3.9%	1.2%	3.5%	1.7%	
	10~29인	(11,296)	1.9%	0.5%	2.1%	3.2%	17.8%	65.8%	2.8%	1.3%	3.2%	1.3%	
	30~49인	(2,560)	1.9%	0.3%	3.1%	0.7%	19.2%	67.5%	1.4%	1.2%	2.2%	2.6%	
	50~99인	(1,725)	1.5%	-	1.8%	1.4%	22.3%	65.8%	2.3%	1.0%	1.9%	2.0%	
	100인 이상	(924)	0.9%	0.3%	0.8%	1.8%	24.5%	63.0%	1.7%	1.6%	2.6%	2.8%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2.0%	0.6%	1.3%	2.0%	20.1%	65.0%	3.3%	1.5%	2.7%	1.5%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2.8%	0.7%	7.7%	3.6%	14.2%	60.4%	4.0%	0.1%	4.8%	1.7%	
	부산/경남/울산	(4,353)	2.2%	-	0.8%	0.5%	19.2%	67.4%	2.7%	2.6%	2.3%	2.2%	
	대구/경북	(3,330)	2.6%	-	0.1%	8.2%	8.5%	72.7%	3.6%	0.5%	2.8%	1.0%	
	광주/전라/제주	(2,161)	0.7%	-	-	2.4%	17.5%	71.4%	0.1%	2.3%	2.9%	2.7%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	-	5.5%	-	38.9%	37.6%	4.3%	13.7%	-	-	
	초기성장기	(6,715)	4.5%	-	1.7%	3.9%	14.6%	68.0%	2.8%	0.8%	2.3%	1.5%	
	고도성장기	(18,251)	1.5%	0.9%	2.8%	3.0%	15.6%	65.8%	4.2%	0.5%	3.9%	1.9%	
	성숙기	(9,735)	1.9%	0.0%	2.6%	1.8%	21.4%	64.0%	1.9%	2.4%	2.6%	1.5%	
	쇠퇴기	(82)	-	-	6.0%	-	38.7%	45.5%	-	-	1.4%	8.5%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4.7%	-	1.0%	3.0%	15.1%	74.4%	-	-	1.6%	0.3%	
	4~10년	(18,012)	1.9%	0.7%	2.1%	3.1%	13.6%	67.7%	4.6%	1.2%	3.2%	2.0%	
	11~20년	(12,115)	2.6%	0.3%	3.6%	2.4%	24.0%	58.8%	2.3%	1.5%	3.3%	1.2%	
	21년 이상	(2,882)	0.2%	-	2.6%	2.5%	14.2%	71.1%	1.1%	1.4%	3.9%	3.0%	

□ 창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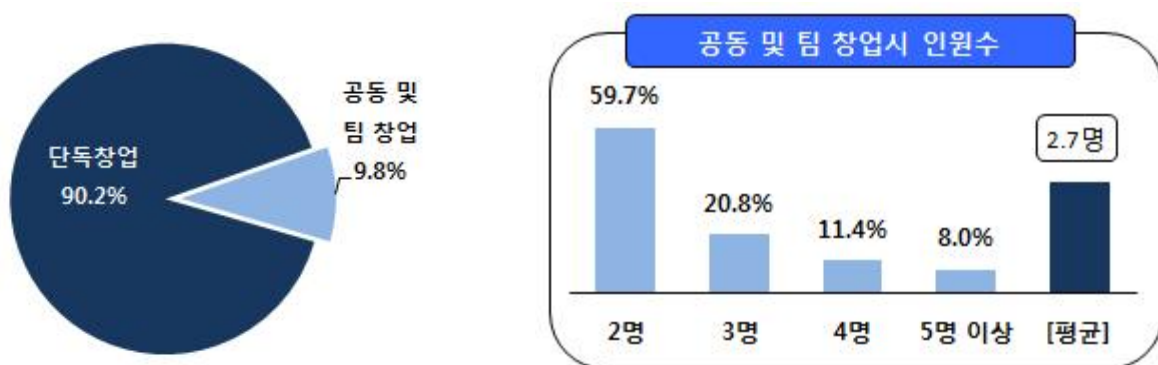
- 벤처기업의 창업방식은 '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업'한 경우가 94.8%로 가장 많고, '국가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창업보육(BI) 과정을 거쳐 창업'한 경우가 3.3%, '대기업 등 타 기업의 분사 또는 계열사 형식으로 창업'한 경우 2.0%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13> 창업 방식



- 벤처기업 창업자가 단독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90.2%로 나타남
- 공동 및 팀 창업을 한 경우는 전체 벤처기업의 9.8%이며, 평균 2.7명의 인원수로 공동 창업함

<그림 2-4-14> 공동창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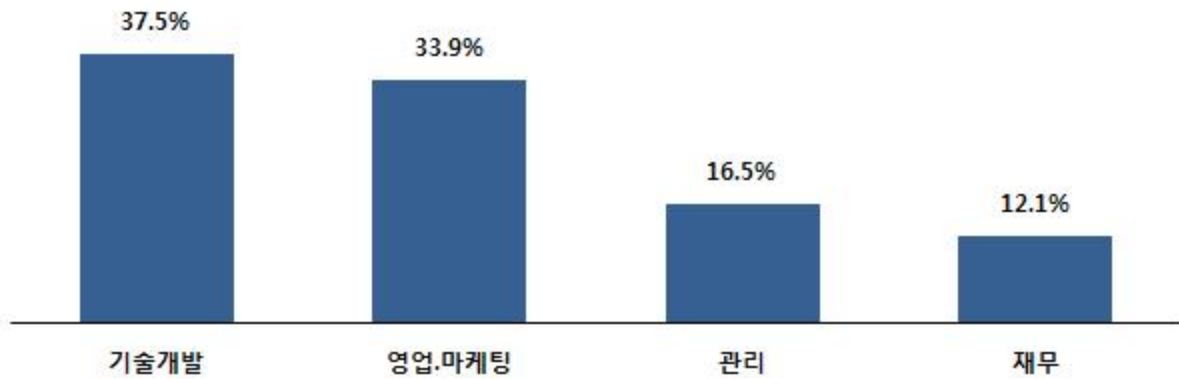


□ 공동창업자 역할

- 벤처기업 창업시 공동창업자의 역할은 기술개발이 37.5%, 영업·마케팅 33.9%, 관리 16.5%, 재무 12.1% 순으로 조사됨

<그림 2-4-15> 공동창업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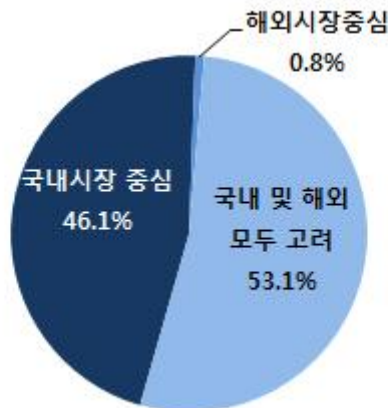
<공동 및 팀 창업한 기업 3,455개, 복수응답>



□ 창업당시 목표시장

- 창업당시 목표시장으로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을 모두 고려'한 기업이 53.1%로 가장 많고, '국내시장 중심'으로의 기업은 46.1%, '해외시장 중심' 0.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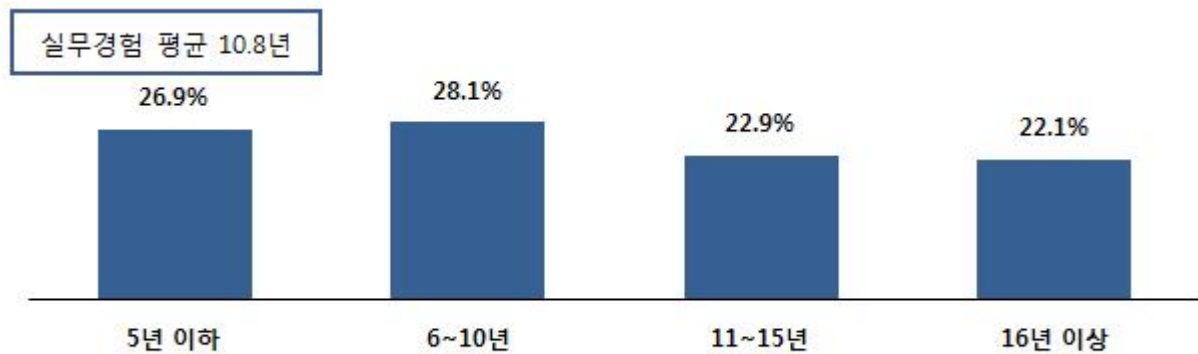
<그림 2-4-16> 창업당시 목표시장



□ 창업주의 창업당시 관련분야 실무경험 년수

- 창업주의 창업당시 관련분야 실무경험 년수는 평균 10.8년이며, 세부적으로는 6~10년이 28.1%, 5년 이하 26.9%, 11~15년 22.9%, 16년 이상 22.1% 순으로 실무경험을 보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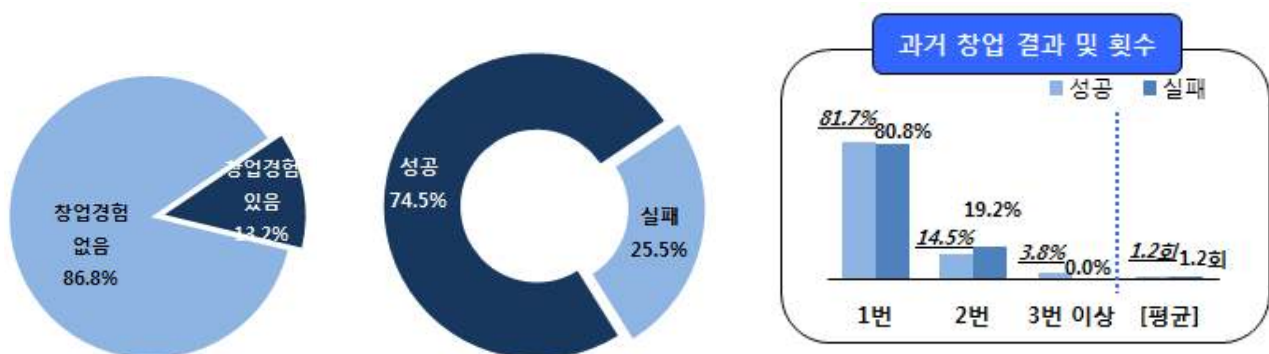
<그림 2-4-17> 창업주의 창업당시 관련분야 실무경험 년수



□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 및 결과

- 벤처기업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2%였으며 성공이 74.5%, 실패 경험은 25.5%로 조사됨. 평균 성공 및 실패 횟수는 각각 1.2회임

<그림 2-4-18>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 및 결과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의 성공비율이 90.8%로 가장 높은 반면, 실패비율이 높은 업종은 정보통신/방송서비스로 45.0%의 비중을 차지함
- 부산/경남/울산 기업은 성공비율이 81.2%로 가장 높은 반면, 대구/경북 기업은 실패비율이 44.8%로 높게 나타남

<표 2-4-3>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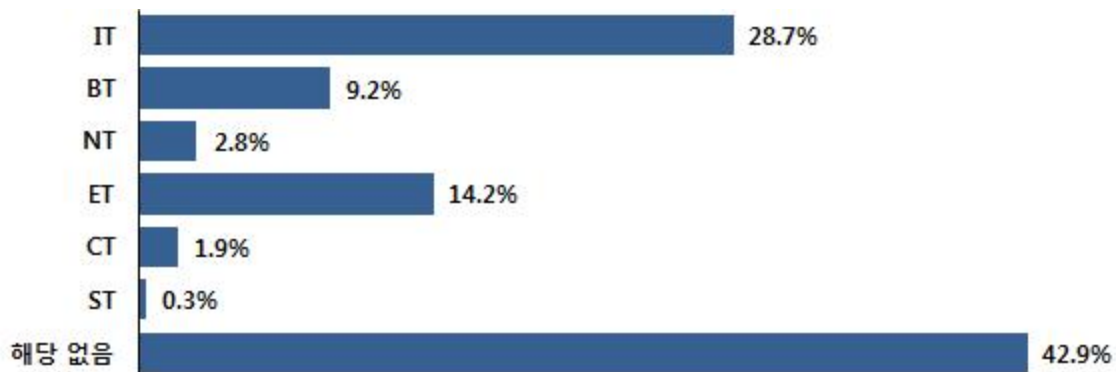
구 분		모집단 크기	창업경험 없음	창업경험 있음	성공비율 (%)		실패비율 (%)		
					회수	회수	회수	회수	
전 체		(35,187)	86.8%	13.2%	74.5%	1.2회	25.5%	1.2회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85.5%	14.5%	69.9%	1.1회	30.1%	2.0회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89.0%	11.0%	90.8%	1.1회	9.2%	1.0회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86.1%	13.9%	76.6%	1.0회	23.4%	1.1회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86.9%	13.1%	71.6%	1.3회	28.4%	1.1회
		기계/제조/자동차	(8,952)	84.0%	16.0%	85.6%	1.2회	14.4%	1.0회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89.9%	10.1%	77.5%	1.1회	22.5%	1.0회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86.9%	13.1%	55.0%	1.2회	45.0%	1.2회
	기타	기타	(4,762)	88.5%	11.5%	55.3%	1.2회	44.7%	1.2회
종사자 규모	1~9인	(18,682)	86.9%	13.1%	74.1%	1.3회	25.9%	1.3회	
	10~29인	(11,296)	85.8%	14.2%	72.3%	1.1회	27.7%	1.1회	
	30~49인	(2,560)	89.5%	10.5%	85.7%	1.1회	14.3%	1.2회	
	50~99인	(1,725)	86.5%	13.5%	79.7%	1.2회	20.3%	1.1회	
	100인 이상	(924)	90.7%	9.3%	77.7%	1.2회	22.3%	1.1회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84.1%	15.9%	78.2%	1.2회	21.8%	1.2회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88.3%	11.7%	69.4%	1.2회	30.6%	1.3회	
	부산/경남/울산	(4,353)	91.2%	8.8%	81.2%	1.2회	18.8%	1.0회	
	대구/경북	(3,330)	89.9%	10.1%	55.2%	1.1회	44.8%	1.0회	
	광주/전라/제주	(2,161)	88.6%	11.4%	71.9%	1.0회	28.1%	1.0회	
성장 단계	창업기	(403)	72.6%	27.4%	79.4%	1.0회	20.6%	2.0회	
	초기성장기	(6,715)	87.4%	12.6%	73.5%	1.1회	26.5%	1.3회	
	고도성장기	(18,251)	85.7%	14.3%	75.5%	1.2회	24.5%	1.2회	
	성숙기	(9,735)	89.0%	11.0%	72.5%	1.2회	27.5%	1.1회	
	쇠퇴기	(82)	98.6%	1.4%	-	-	100.0%	1.0회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84.0%	16.0%	93.4%	1.0회	6.6%	2.0회	
	4~10년	(18,012)	85.2%	14.8%	66.6%	1.2회	33.4%	1.2회	
	11~20년	(12,115)	88.6%	11.4%	84.3%	1.2회	15.7%	1.2회	
	21년 이상	(2,882)	91.7%	8.3%	86.3%	1.1회	13.7%	1.1회	

제5절. 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1. 주력 제품(서비스) 기술⁹⁾

- 벤처기업의 주력 제품(서비스)과 가장 관련성이 큰 기술에 대해 IT(정보통신기술)라고 응답한 비율이 2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ET(환경기술) 14.2%, BT(바이오기술) 9.2%, NT(나노기술) 2.8%, CT(문화컨텐츠기술) 1.9%, ST(우주항공기술) 0.3%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1> 주력 제품(서비스) 기술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에서 IT가 9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에너지/의료/정밀은 BT(31.2%), 기계/제조/자동차는 ET(25.7%)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각 업종에 따라 주력제품(서비스)이 다른 양상을 보임
- 종사자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IT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ET의 비율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1~9인 제외)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IT와 관련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많으나, 대구/경북의 21.6%, 광주/전라/제주 25.2%의 비중으로 ET(환경기술)와 관련성이 높아 지역적으로 주력제품의 기술 차이가 나타남

9) IT(Inform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
BT(Biology Technology) : 바이오기술
CT(Culture Technology) : 문화컨텐츠기술

ET(Environment Technology) : 환경기술
NT(Nano Technology) : 나노기술
ST(Space Technology) : 우주항공기술

<표 2-5-1> 주력 제품(서비스) 기술

구 분		모집단 크기	IT	BT	NT	ET	CT	ST	해당 없음	
전 체		(35,187)	28.7%	9.2%	2.8%	14.2%	1.9%	0.3%	42.9%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23.2%	31.2%	7.3%	8.7%	-	0.1%	29.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36.5%	0.6%	2.6%	9.9%	0.6%	1.2%	48.6%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84.0%	0.7%	-	2.1%	0.4%	-	12.9%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3.6%	12.3%	2.0%	11.7%	0.4%	-	69.9%
		기계/제조/자동차	(8,952)	9.2%	10.3%	4.7%	25.7%	0.0%	0.1%	50.0%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91.0%	0.7%	2.2%	-	3.7%	-	2.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77.4%	0.2%	-	-	13.4%	-	9.0%
	기타	기타	(4,762)	15.7%	11.0%	1.3%	24.6%	3.3%	1.0%	43.1%
중 사 자 규 모	1~9인	(18,682)	28.1%	9.5%	2.5%	14.7%	1.8%	0.2%	43.1%	
	10~29인	(11,296)	28.6%	9.1%	3.5%	16.2%	2.3%	0.2%	40.0%	
	30~49인	(2,560)	27.6%	7.1%	2.0%	8.7%	1.3%	0.8%	52.4%	
	50~99인	(1,725)	34.1%	8.7%	2.0%	7.8%	1.6%	0.3%	45.5%	
	100인 이상	(924)	34.7%	9.7%	3.5%	6.8%	2.0%	2.4%	40.9%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34.6%	6.1%	2.3%	13.0%	3.0%	0.2%	40.9%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29.0%	14.3%	3.2%	12.2%	0.5%	0.2%	40.6%	
	부산/경남/울산	(4,353)	22.8%	8.2%	1.5%	12.0%	1.9%	0.9%	52.6%	
	대구/경북	(3,330)	15.5%	10.5%	3.5%	21.6%	0.6%	0.1%	48.2%	
	광주/전라/제주	(2,161)	14.0%	13.2%	6.7%	25.2%	1.4%	-	39.5%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66.9%	-	-	9.2%	-	-	23.9%	
	초기성장기	(6,715)	33.7%	8.0%	2.5%	12.0%	3.7%	0.1%	39.9%	
	고도성장기	(18,251)	28.7%	11.3%	3.2%	13.4%	1.9%	0.3%	41.2%	
	성숙기	(9,735)	23.6%	6.5%	2.4%	17.5%	0.8%	0.4%	48.8%	
	쇠퇴기	(82)	35.3%	2.9%	-	22.9%	-	-	38.9%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33.7%	5.1%	-	8.2%	3.3%	0.1%	49.5%	
	4~10년	(18,012)	30.1%	10.2%	3.1%	14.5%	2.1%	0.4%	39.5%	
	11~20년	(12,115)	28.6%	8.9%	3.3%	13.9%	1.7%	0.1%	43.4%	
	21년 이상	(2,882)	16.3%	7.3%	0.6%	18.2%	0.3%	0.6%	56.6%	

2. 산업재산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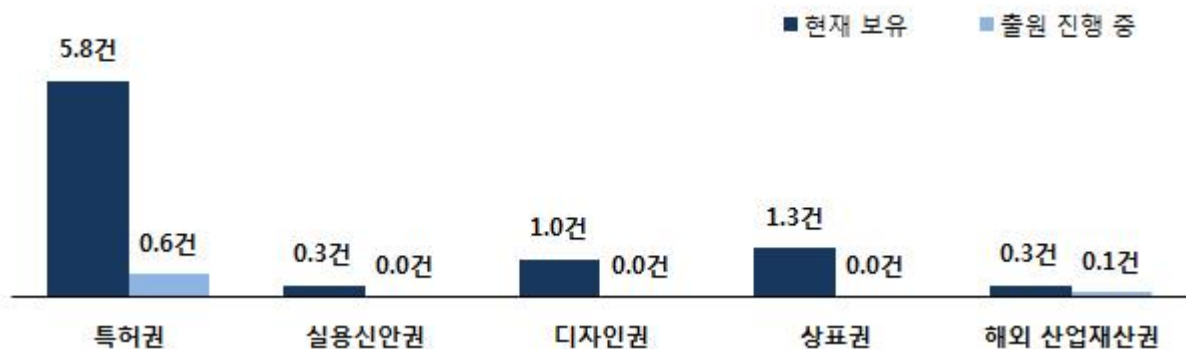
□ 산업재산권 보유 및 출원 현황

- 벤처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평균 8.7건이며, 그 중 특허권이 평균 5.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표권 1.3건, 디자인권 1.0건, 실용신안권, 해외 산업재산권 각각 0.3건 순임
- 현재 출원 진행 중인 산업재산권은 평균 0.7건이며 이 중 특허권 비중이 0.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외산업재산권이 0.1건으로 나타남

<표 2-5-2> 산업재산권 보유 및 출원 현황

구 분	국내 산업재산권				해외 산업재산권	합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현재 보유	5.8건	0.3건	1.0건	1.3건	0.3건	8.7건
출원 진행 중	0.6건	0.0건	0.0건	0.0건	0.1건	0.7건

<그림 2-5-2> 산업재산권 보유 및 출원 현황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에너지/의료/정밀 업종이 평균 11.8건으로 산업재산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특허권이 8.3건으로 타 업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산업재산권이 3.2건으로 가장 적게 보유한 것으로 조사됨
- 종사자규모가 클수록 산업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3> 산업재산권 현황(현재 보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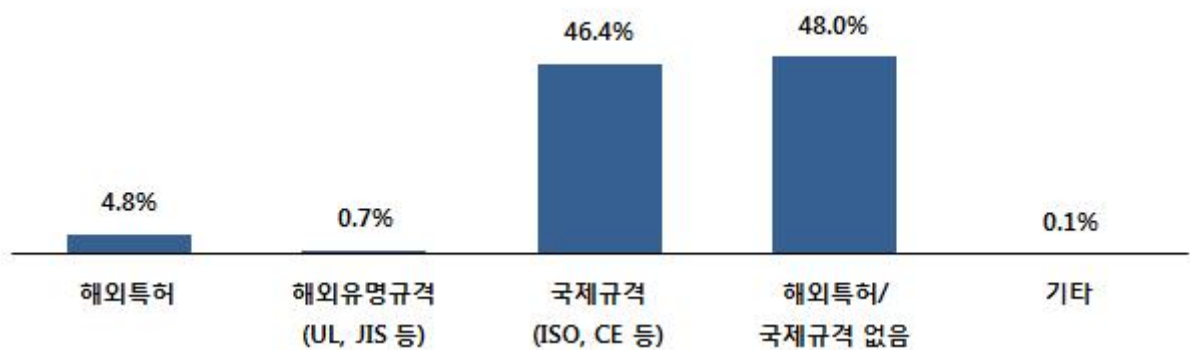
구 분		모집단 크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해외산업재산권	합계	
전 체		(35,187)	5.8건	0.3건	1.0건	1.3건	0.3건	8.7건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8.3건	0.3건	0.8건	1.4건	1.0건	11.8건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6.9건	0.2건	0.6건	0.7건	0.4건	8.8건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6.7건	0.4건	0.5건	0.9건	0.1건	8.6건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5.5건	0.5건	1.7건	1.5건	0.1건	9.3건
		기계/제조/자동차	(8,952)	6.7건	0.5건	1.1건	1.6건	0.5건	10.4건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4.1건	0.2건	0.3건	1.5건	0.1건	6.2건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2.3건	0.0건	0.4건	0.5건	0.0건	3.2건
기타	기타	(4,762)	5.2건	0.2건	0.5건	0.7건	0.1건	6.7건	
종사자규모	1~9인	(18,682)	3.9건	0.2건	0.6건	0.9건	0.2건	5.8건	
	10~29인	(11,296)	6.6건	0.4건	1.3건	1.3건	0.3건	9.9건	
	30~49인	(2,560)	8.1건	0.6건	1.6건	1.2건	0.2건	11.7건	
	50~99인	(1,725)	10.3건	0.8건	1.2건	2.4건	0.3건	15.0건	
	100인 이상	(924)	20.2건	0.8건	2.0건	5.2건	2.9건	31.1건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6.1건	0.4건	1.0건	1.4건	0.2건	9.1건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6.1건	0.3건	0.9건	1.2건	0.4건	8.9건	
	부산/경남/울산	(4,353)	4.3건	0.3건	0.9건	0.8건	0.2건	6.5건	
	대구/경북	(3,330)	5.4건	0.4건	1.1건	0.7건	0.4건	8.0건	
	광주/전라/제주	(2,161)	5.9건	0.2건	0.6건	1.7건	0.1건	8.5건	
성장단계	창업기	(403)	2.1건	-	0.1건	0.5건	0.1건	2.8건	
	초기성장기	(6,715)	3.4건	0.1건	0.5건	1.0건	0.1건	5.1건	
	고도성장기	(18,251)	5.5건	0.3건	0.8건	1.2건	0.3건	8.1건	
	성숙기	(9,735)	8.1건	0.6건	1.5건	1.6건	0.5건	12.3건	
	쇠퇴기	(82)	8.1건	0.2건	0.5건	0.7건	-	9.5건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2.2건	0.0건	0.4건	0.9건	0.0건	3.5건	
	4~10년	(18,012)	3.9건	0.2건	0.8건	1.0건	0.1건	6.0건	
	11~20년	(12,115)	8.2건	0.5건	0.8건	1.5건	0.4건	11.4건	
	21년 이상	(2,882)	10.2건	0.6건	2.6건	1.9건	1.2건	16.5건	

□ 해외특허 및 국제규격 보유 현황

- 벤처기업의 해외특허 및 국제규격 보유 현황은 '해외특허/국제규격이 없는 경우'가 4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제규격(ISO, CE 등)'이 46.4%, '해외특허' 4.8%, '해외유명규격(UL, JIS 등)' 0.7%, 기타 0.1%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3> 해외특허 및 국제규격 보유 현황

<복수응답>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방송서비스가 획득하고 있는 해외특허나 국제규격이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신기기/방송기기 업종은 '국제규격'(63.9%)을 획득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해외특허'(10.0%)를 타 규모대비 많이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해외유명규격', '국제규격' 등의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대체적으로 업력이 높을수록 해외특허 및 국제규격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4> 해외특허 및 국제규격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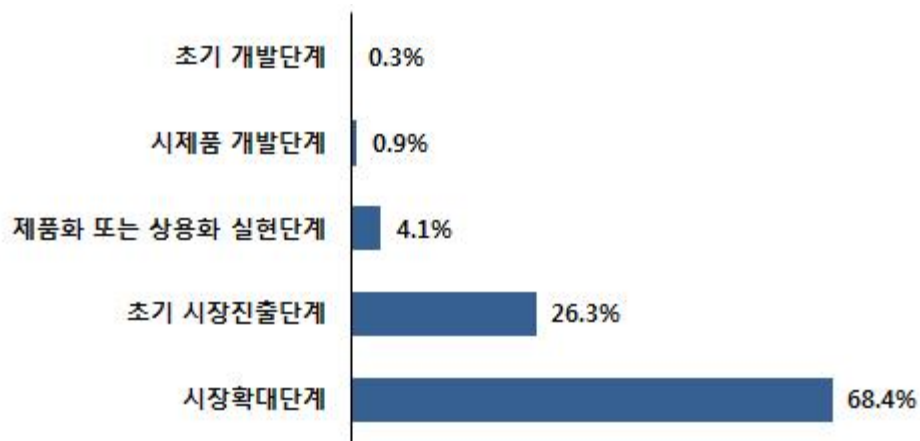
<복수응답>

구 분		모집단 크기	해외 특허	해외유명 규격 (UL, JIS등)	국제규격 (ISO, CE등)	해외특허 · 국제규격 없음	기타	
전 체		(35,187)	4.8%	0.7%	46.4%	48.0%	0.1%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6.9%	3.0%	52.2%	37.7%	0.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4.6%	1.7%	47.5%	46.2%	-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4.6%	1.1%	63.9%	28.8%	1.7%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3.0%	0.2%	49.7%	47.1%	-
		기계/제조/자동차	(8,952)	9.0%	0.6%	59.1%	31.3%	0.0%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3.6%	0.1%	21.9%	74.3%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0.2%	0.2%	22.2%	77.5%	-
기타	기타	(4,762)	2.1%	-	38.2%	59.7%	-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4.7%	0.5%	37.5%	57.2%	0.1%	
	10~29인	(11,296)	5.1%	0.5%	53.9%	40.5%	-	
	30~49인	(2,560)	3.7%	0.9%	62.1%	33.1%	0.2%	
	50~99인	(1,725)	3.1%	2.2%	61.6%	32.9%	0.1%	
	100인 이상	(924)	10.0%	1.4%	59.3%	28.9%	0.3%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4.7%	0.9%	44.1%	50.3%	0.0%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7.5%	0.3%	48.2%	44.0%	-	
	부산/경남/울산	(4,353)	0.7%	-	54.0%	44.7%	0.6%	
	대구/경북	(3,330)	5.1%	1.3%	45.1%	48.4%	0.1%	
	광주/전라/제주	(2,161)	2.9%	0.3%	44.3%	52.5%	-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5.5%	-	19.3%	75.1%	-	
	초기성장기	(6,715)	2.2%	0.5%	32.6%	64.6%	0.0%	
	고도성장기	(18,251)	5.1%	0.8%	45.3%	48.6%	0.2%	
	성숙기	(9,735)	6.0%	0.5%	58.8%	34.7%	-	
	쇠퇴기	(82)	-	-	48.1%	51.9%	-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1.0%	-	18.6%	80.3%	-	
	4~10년	(18,012)	4.2%	0.6%	41.2%	53.8%	0.2%	
	11~20년	(12,115)	4.9%	0.7%	54.8%	39.6%	0.0%	
	21년 이상	(2,882)	10.7%	1.2%	62.9%	25.2%	-	

3. 주력 제품(서비스) 개발단계

- 벤처기업이 현재 주력제품(서비스)의 개발단계는 '시장확대단계'가 6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초기 시장진출단계'가 26.3%, '제품화 또는 상용화 실현단계' 4.1%, '시제품 개발단계' 0.9%, '초기 개발단계' 0.3%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4> 주력 제품(서비스) 개발단계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시장확대단계' 비율이 높은 가운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업종은 '초기 시장진출단계'가 46.9%로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초기 개발단계'가 1.5%로 타 업종대비 높음을 알 수 있음
- 대체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업력이 늘어날수록 '초기 시장진출단계'의 비중은 감소하고 '시장확대단계'의 비중이 높음
-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쇠퇴기인 벤처기업의 주력제품의 단계는 '시제품 개발 단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22.9%로 타 성장단계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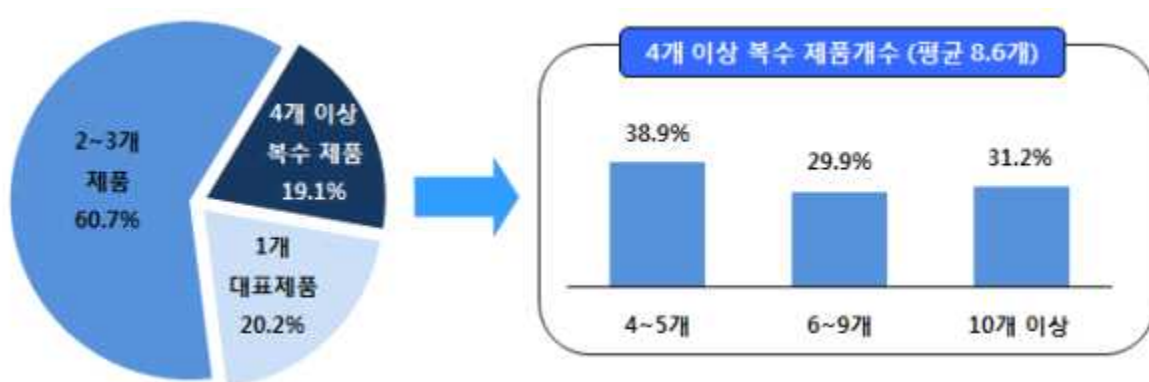
<표 2-5-5> 주력 제품(서비스)의 개발 단계

구 분		모집단 크기	초기 개발단계	시제품 개발단계	제품화 또는 상용화 실현단계	초기 시장진출 단계	시장확대 단계	
전 체		(35,187)	0.3%	0.9%	4.1%	26.3%	68.4%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	-	1.8%	25.4%	72.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0.5%	1.9%	4.2%	24.2%	69.1%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	0.7%	0.7%	22.9%	75.8%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0.4%	0.1%	3.2%	23.3%	73.0%
		기계/제조/자동차	(8,952)	-	0.6%	4.3%	23.7%	71.4%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1.5%	-	3.2%	30.7%	64.7%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	0.7%	3.4%	46.9%	48.9%
기타	기타	(4,762)	0.1%	3.4%	8.3%	25.5%	62.8%	
중 사 자 규 모	1~9인	(18,682)	0.3%	1.0%	4.2%	30.0%	64.5%	
	10~29인	(11,296)	0.4%	0.8%	4.5%	27.1%	67.1%	
	30~49인	(2,560)	-	1.2%	2.9%	12.2%	83.7%	
	50~99인	(1,725)	-	0.8%	3.2%	12.8%	83.2%	
	100인 이상	(924)	0.3%	0.5%	1.7%	5.7%	91.8%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0.1%	1.4%	4.5%	27.3%	66.7%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0.6%	0.4%	4.0%	26.7%	68.2%	
	부산/경남/울산	(4,353)	0.7%	1.4%	0.1%	31.6%	66.3%	
	대구/경북	(3,330)	-	-	6.6%	19.1%	74.4%	
	광주/전라/제주	(2,161)	-	-	4.9%	17.4%	77.7%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	-	22.8%	53.1%	24.1%	
	초기성장기	(6,715)	1.1%	2.2%	4.8%	47.1%	44.7%	
	고도성장기	(18,251)	0.2%	0.6%	4.4%	25.3%	69.5%	
	성숙기	(9,735)	-	0.5%	2.2%	12.9%	84.4%	
	쇠퇴기	(82)	-	22.9%	6.0%	-	71.1%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	1.7%	9.3%	63.9%	25.1%	
	4~10년	(18,012)	0.6%	1.2%	4.2%	31.1%	62.8%	
	11~20년	(12,115)	-	0.5%	2.7%	15.8%	81.0%	
	21년 이상	(2,882)	-	0.1%	5.0%	12.0%	83.0%	

4. 주력 제품(서비스) 구성 전략

- 벤처기업의 주력 제품(서비스) 구성 전략은 '2~3개 정도의 제품(서비스)'에 주력이 60.7%로 가장 많고, 이어 '1개 대표 제품(서비스)' 20.2%, '4개 이상 복수 제품(서비스)'에만 집중이 19.1% 순으로 나타남
- 4개 이상 복수 제품에 주력하는 기업의 평균 제품(서비스) 개수는 8.6개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2-5-5> 주력 제품(서비스) 구성 전략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대체적으로 '2~3개 정도 제품(서비스)'에 주력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정보통신/방송서비스의 경우는 하나의 대표제품 또는 서비스에만 집중하는 벤처기업이 30.9%로 타 업종대비 높았으며, 기계/제조/자동차의 경우는 '4개 이상 복수의 제품 및 서비스 다각화 추구'가 23.5%로 타 업종대비 높아 업종별로 제품의 서비스 구조가 약간 차이를 알 수 있음
- 부산/경남/울산의 경우 '1개 대표 제품(서비스)'의 비율이 26.7%, 광주/전라/제주는 '4개 이상 복수의 제품(서비스)'을 주력하는 비율이 28.5%로 타 지역보다 높아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표 2-5-6> 주력 제품(서비스) 구성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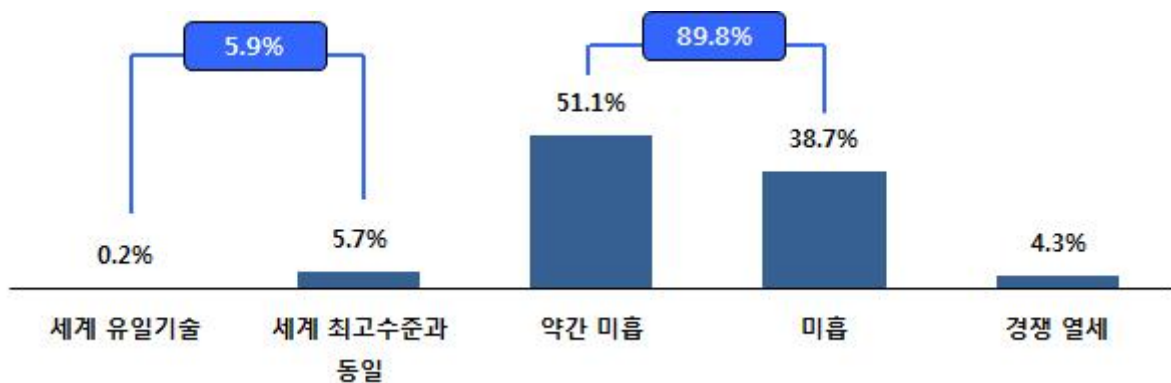
구 분		모집단 크기	1개 대표 제품 (서비스)	2~3개 정도의 제품(서비스)	4개 이상 복수의 제품(서비스)	
전 체		(35,187)	20.2%	60.7%	19.1%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15.3%	63.8%	20.9%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15.9%	67.5%	16.6%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11.5%	68.4%	20.1%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23.4%	53.5%	23.1%
		기계/제조/자동차	(8,952)	13.9%	62.6%	23.5%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23.6%	59.9%	16.5%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30.9%	61.1%	8.1%
기타	기타	(4,762)	26.6%	60.6%	12.8%	
중 사 자 규 모	1~9인	(18,682)	22.5%	62.3%	15.3%	
	10~29인	(11,296)	17.8%	59.0%	23.2%	
	30~49인	(2,560)	18.5%	59.5%	22.0%	
	50~99인	(1,725)	17.1%	58.0%	24.9%	
	100인 이상	(924)	13.4%	57.4%	29.2%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17.5%	63.5%	19.0%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21.7%	58.1%	20.2%	
	부산/경남/울산	(4,353)	26.7%	58.1%	15.2%	
	대구/경북	(3,330)	22.8%	61.0%	16.3%	
	광주/전라/제주	(2,161)	17.4%	54.1%	28.5%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29.7%	46.6%	23.6%	
	초기성장기	(6,715)	18.7%	68.2%	13.0%	
	고도성장기	(18,251)	21.5%	58.4%	20.1%	
	성숙기	(9,735)	18.3%	60.4%	21.3%	
	쇠퇴기	(82)	8.5%	53.2%	38.4%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19.2%	66.1%	14.7%	
	4~10년	(18,012)	22.5%	59.3%	18.1%	
	11~20년	(12,115)	16.7%	61.7%	21.6%	
	21년 이상	(2,882)	20.6%	61.0%	18.3%	

5. 주력 제품(서비스) 기술수준 평가

□ 세계 최고수준 기업과 비교

- 벤처기업의 현재 기술력 수준과 세계 최고수준을 비교할 경우, '약간 미흡'하다는 의견이 51.1%로 가장 많고, '미흡'이 38.7%,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 5.7%, '경쟁 열세' 4.3%, '세계 유일기술' 0.2%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5-6> 세계 최고수준 기업과 기술력 수준 평가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약간 미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외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세계 유일기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로 타 업종과 대비하여 높게 나타난 반면,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은 자사 세계 최고수준 기업과 기술력 수준 평가를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9.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대체적으로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50~99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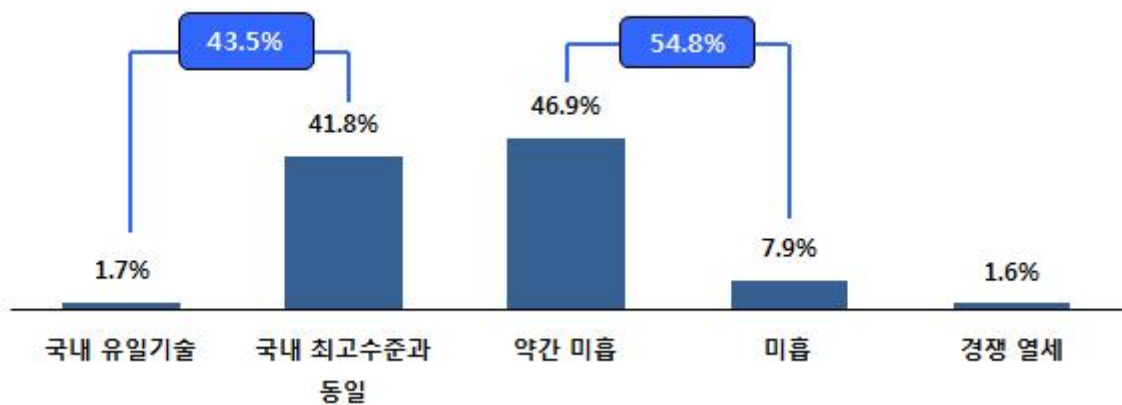
<표 2-5-7> 세계 최고수준 기업과 기술력 수준 평가

구 분		모집단 크기	세계 유일기술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	약간 미흡	미흡	경쟁열세	
전 체		(35,187)	0.2%	5.7%	51.1%	38.7%	4.3%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	3.3%	43.8%	42.8%	10.1%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0.1%	9.7%	48.1%	33.4%	8.7%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	5.2%	43.4%	42.2%	9.2%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	5.5%	48.8%	44.5%	1.2%
		기계/제조/자동차	(8,952)	-	6.7%	55.7%	36.3%	1.3%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1.5%	3.0%	54.6%	36.5%	4.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	1.7%	41.0%	43.4%	13.9%
기타	기타	(4,762)	-	6.8%	56.6%	33.8%	2.8%	
종사자규모	1~9인	(18,682)	0.3%	4.0%	47.4%	43.3%	5.0%	
	10~29인	(11,296)	-	6.4%	53.4%	36.2%	4.0%	
	30~49인	(2,560)	-	9.9%	55.7%	32.1%	2.4%	
	50~99인	(1,725)	-	8.5%	63.5%	25.2%	2.8%	
	100인 이상	(924)	0.2%	17.6%	62.2%	18.7%	1.2%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0.3%	4.9%	51.3%	37.6%	6.0%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	8.6%	50.5%	37.6%	3.3%	
	부산/경남/울산	(4,353)	-	5.6%	49.2%	42.8%	2.5%	
	대구/경북	(3,330)	-	3.4%	53.5%	41.9%	1.1%	
	광주/전라/제주	(2,161)	-	5.0%	52.6%	38.2%	4.2%	
성장단계	창업기	(403)	-	11.2%	18.0%	46.9%	23.9%	
	초기성장기	(6,715)	-	3.9%	48.1%	42.8%	5.2%	
	고도성장기	(18,251)	0.3%	5.7%	48.4%	40.6%	5.0%	
	성숙기	(9,735)	0.0%	6.9%	59.4%	32.2%	1.5%	
	쇠퇴기	(82)	-	2.9%	85.9%	11.2%	-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	6.4%	43.0%	40.3%	10.3%	
	4~10년	(18,012)	0.3%	4.3%	47.6%	43.3%	4.5%	
	11~20년	(12,115)	-	7.3%	55.1%	33.9%	3.6%	
	21년 이상	(2,882)	-	7.5%	62.1%	28.7%	1.6%	

□ 국내 최고수준 기업과 비교

- 벤처기업의 현재 기술력 수준을 국내 최고수준과 비교할 경우, '약간 미흡'이 46.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이 41.8%, '미흡' 7.9%, '국내 유일기술' 1.7%, '경쟁열세' 1.6%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7> 국내 최고수준 기업과 기술력 수준 평가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약간 미흡'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기계/제조/자동차 업종에서는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이 53.0%로 가장 높아 국내 최고 수준 기업과의 기술력을 비교할 때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30인 이상의 벤처기업은 '약간 미흡'의 비율보다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의 비율이 많아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한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 중 100인 이상의 벤처기업은 '국내 유일기술' 응답이 2.7%로 타 규모 대비 높아 규모가 클수록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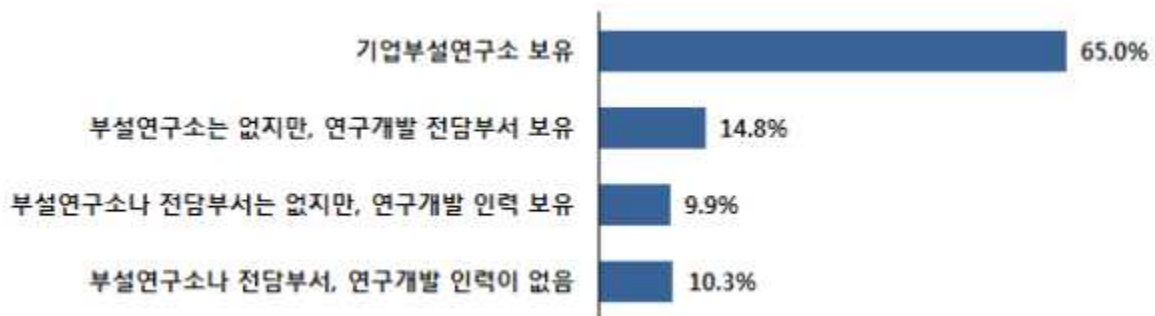
<표 2-5-8> 국내 최고수준 기업과 기술력 수준평가

구 분		모집단 크기	국내 유일기술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	약간 미흡	미흡	경쟁열세	
전 체		(35,187)	1.7%	41.8%	46.9%	7.9%	1.6%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0.5%	34.6%	49.7%	7.9%	7.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1.5%	34.3%	53.0%	7.8%	3.5%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0.1%	40.6%	44.8%	9.9%	4.6%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2.7%	44.4%	48.1%	4.8%	-
		기계/제조/자동차	(8,952)	-	53.0%	41.7%	5.3%	-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4.7%	32.0%	44.9%	15.5%	2.9%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0.1%	24.5%	56.6%	16.1%	2.8%
	기타	기타	(4,762)	2.9%	42.6%	46.1%	7.9%	0.5%
중 사 자 규 모	1~9인	(18,682)	2.3%	35.9%	51.1%	8.9%	1.8%	
	10~29인	(11,296)	0.9%	46.0%	43.3%	7.9%	1.9%	
	30~49인	(2,560)	1.8%	49.2%	43.1%	5.9%	-	
	50~99인	(1,725)	0.4%	55.3%	40.8%	3.5%	-	
	100인 이상	(924)	2.7%	65.0%	28.4%	3.9%	-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1.1%	43.9%	45.1%	7.3%	2.6%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2.8%	44.0%	42.8%	10.3%	0.2%	
	부산/경남/울산	(4,353)	1.8%	35.2%	54.9%	7.3%	0.7%	
	대구/경북	(3,330)	1.5%	36.2%	52.9%	8.5%	1.0%	
	광주/전라/제주	(2,161)	2.5%	39.4%	52.1%	4.5%	1.5%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5.7%	5.5%	56.9%	31.9%	-	
	초기성장기	(6,715)	0.3%	35.4%	50.9%	10.9%	2.4%	
	고도성장기	(18,251)	2.4%	39.7%	48.1%	8.1%	1.8%	
	성숙기	(9,735)	1.3%	51.9%	41.4%	4.7%	0.7%	
	쇠퇴기	(82)	-	33.7%	62.9%	3.5%	-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1.1%	36.7%	43.3%	14.5%	4.4%	
	4~10년	(18,012)	2.3%	36.9%	51.5%	8.3%	1.0%	
	11~20년	(12,115)	1.3%	46.8%	42.5%	7.2%	2.2%	
	21년 이상	(2,882)	0.5%	55.6%	39.8%	3.8%	0.3%	

6. 연구개발 조직현황

- 벤처기업의 65.0%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설연구소는 없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가 14.8%, ‘부설연구소 전담부서는 없지만, 연구개발 인력 보유’는 9.9%임
-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 인력이 없는 기업은 10.3%로 나타남

<그림 2-5-8> 연구개발 조직현황



특성별 분석

- 대체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비율이 높고, 그 중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에서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음식료/섬유/(비)금속 업종은 48.7%로 가장 낮음
- 종사자규모가 클수록, 성장단계가 높을수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인천/경기가 68.7%였으며, 다음으로 대전/세종/충청/강원이 65.4%, 부산/경남/울산 62.1%, 대구/경북 55.4%, 광주/전라/제주 55.0%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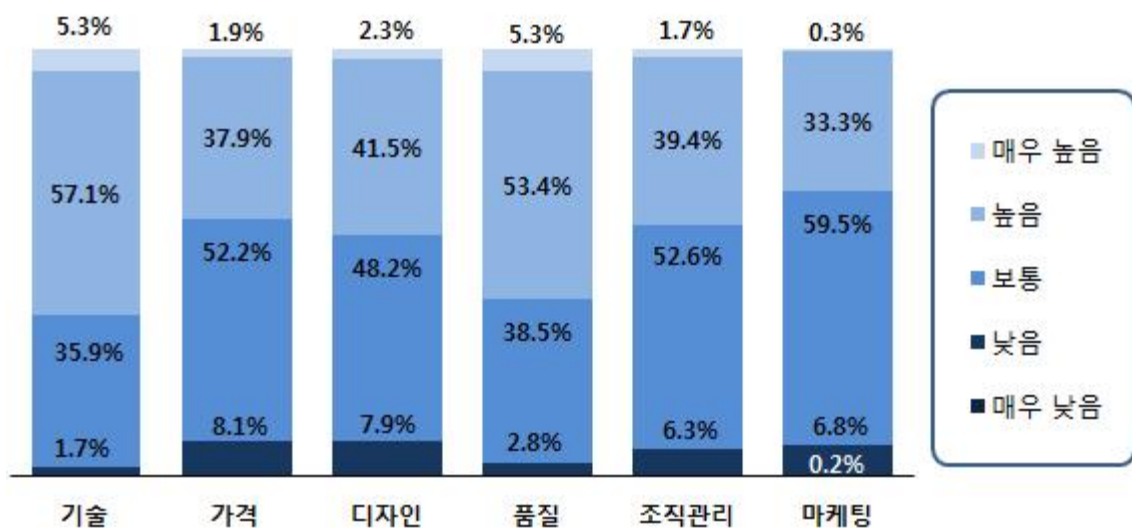
<표 2-5-9> 연구개발 조직현황

구 분		모집단 크기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부설연구소는 없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는 없지만, 연구개발 인력 보유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이 없음	
전 체		(35,187)	65.0%	14.8%	9.9%	10.3%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79.6%	10.6%	1.7%	8.2%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73.7%	10.8%	6.5%	9.0%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80.2%	15.4%	1.8%	2.7%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48.7%	18.3%	16.1%	16.9%
		기계/제조/자동차	(8,952)	61.9%	20.7%	7.9%	9.6%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85.0%	5.3%	6.5%	3.2%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70.0%	11.6%	11.8%	6.7%
기타	기타	(4,762)	61.7%	12.2%	13.9%	12.1%	
종 사 자 규모	1~9인	(18,682)	50.4%	21.0%	13.9%	14.7%	
	10~29인	(11,296)	77.9%	9.3%	6.7%	6.1%	
	30~49인	(2,560)	85.9%	6.9%	2.7%	4.5%	
	50~99인	(1,725)	92.0%	2.7%	2.6%	2.6%	
	100인 이상	(924)	92.3%	1.7%	1.3%	4.7%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68.7%	14.3%	8.3%	8.7%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65.4%	14.8%	10.8%	9.0%	
	부산/경남/울산	(4,353)	62.1%	15.6%	5.9%	16.4%	
	대구/경북	(3,330)	55.4%	19.0%	13.9%	11.8%	
	광주/전라/제주	(2,161)	55.0%	11.3%	20.2%	13.6%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48.8%	12.3%	22.8%	16.1%	
	초기성장기	(6,715)	56.3%	18.3%	14.7%	10.6%	
	고도성장기	(18,251)	64.7%	15.7%	8.5%	11.1%	
	성숙기	(9,735)	72.0%	10.9%	8.7%	8.5%	
	쇠퇴기	(82)	77.4%	14.2%	-	8.5%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48.0%	17.1%	16.5%	18.4%	
	4~10년	(18,012)	60.5%	17.6%	11.5%	10.4%	
	11~20년	(12,115)	74.0%	10.3%	7.6%	8.2%	
	21년 이상	(2,882)	67.8%	14.6%	4.7%	12.9%	

7. 경쟁력 비교 현황

- 동종업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과 비교한 결과(상위응답률), '기술'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것(62.4%)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품질' 경쟁력(58.7%), '디자인'(43.8%), '조직관리'(41.1%), '가격'(39.8%), '마케팅'(33.6%)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9> 경쟁력 비교 현황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보면, 기계/제조/자동차에서는 '기술(70.7%)', '디자인(53.7%)', '품질(70.5%)', '조직관리(55.0%)'에서 타 업종대비 높게 나타나 타 업종보다 많은 경쟁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음
- 대체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디자인', '품질', '마케팅'이 동종업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여 경쟁력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표 2-5-10> 경쟁력 비교 현황(5점 척도)

구분	기술	가격	디자인	품질	조직관리	마케팅
5점 척도	3.7점	3.3점	3.4점	3.6점	3.4점	3.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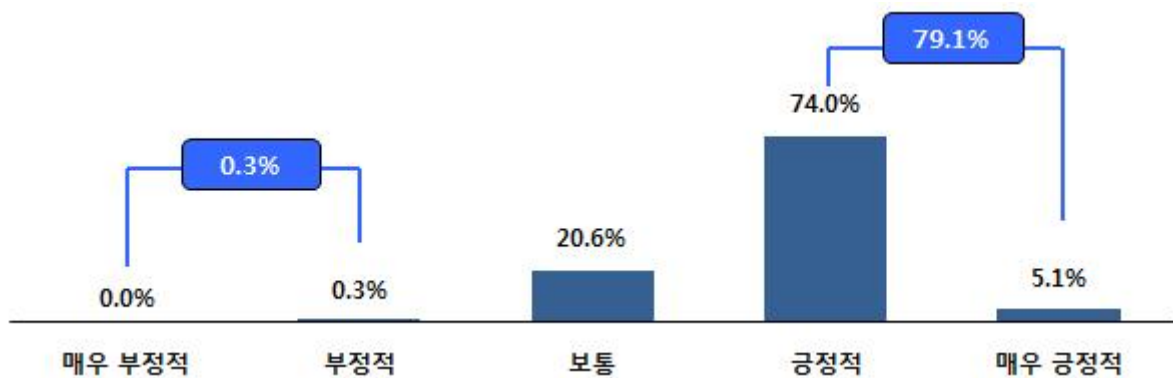
<표 2-5-11> 경쟁력 비교 현황(상위응답률)

구분		모집단 크기	기술	가격	디자인	품질	조직관리	마케팅	
전체		(35,187)	62.4%	39.7%	43.9%	58.8%	41.1%	33.6%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54.8%	43.9%	43.5%	51.2%	35.4%	23.6%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57.0%	44.4%	44.8%	50.0%	37.7%	31.9%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65.8%	31.0%	44.3%	53.9%	39.2%	22.3%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65.9%	40.0%	48.9%	65.2%	45.0%	45.1%
		기계/제조/자동차	(8,952)	70.7%	44.0%	53.7%	70.5%	55.0%	38.4%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54.8%	31.4%	26.6%	43.3%	19.8%	22.2%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37.0%	29.7%	28.1%	33.3%	26.9%	10.3%
기타	기타	(4,762)	66.5%	39.4%	37.8%	62.6%	38.7%	34.9%	
종사자규모	1~9인	(18,682)	56.5%	36.4%	40.8%	55.1%	41.1%	31.0%	
	10~29인	(11,296)	66.6%	41.2%	46.3%	60.4%	36.7%	33.1%	
	30~49인	(2,560)	71.8%	45.8%	47.2%	68.1%	46.5%	41.9%	
	50~99인	(1,725)	77.7%	51.8%	50.8%	68.3%	56.5%	43.9%	
	100인 이상	(924)	74.6%	49.4%	54.7%	68.7%	53.9%	48.0%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59.9%	39.2%	44.3%	57.0%	40.4%	31.2%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67.1%	41.1%	45.5%	62.1%	42.1%	38.5%	
	부산/경남/울산	(4,353)	59.6%	40.4%	44.1%	55.2%	40.7%	34.7%	
	대구/경북	(3,330)	68.3%	41.2%	38.6%	64.3%	43.7%	29.3%	
	광주/전라/제주	(2,161)	59.7%	34.4%	41.4%	58.1%	40.3%	36.9%	
성장단계	창업기	(403)	11.2%	39.5%	23.9%	14.8%	31.7%	5.7%	
	초기성장기	(6,715)	55.2%	36.2%	40.2%	50.0%	42.0%	29.1%	
	고도성장기	(18,251)	61.0%	38.2%	43.8%	58.8%	39.3%	34.9%	
	성숙기	(9,735)	72.2%	45.0%	47.3%	66.7%	44.4%	35.3%	
	쇠퇴기	(82)	29.1%	40.0%	43.2%	41.8%	48.4%	26.2%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53.2%	27.6%	38.7%	43.8%	40.9%	24.8%	
	4~10년	(18,012)	58.8%	39.5%	42.4%	57.9%	40.6%	34.4%	
	11~20년	(12,115)	67.0%	40.1%	47.7%	61.1%	40.2%	34.4%	
	21년 이상	(2,882)	72.2%	48.6%	41.0%	65.8%	48.6%	31.4%	

8. 장기적 성장 전망성

-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79.1%(긍정적 74.0% + 매우 긍정적 5.1%)이며, 부정적인 응답은 0.3%, 보통의 응답은 20.6%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2-5-10> 장기적 성장 전망성



제6절. 마케팅 및 해외진출 현황

1. 브랜드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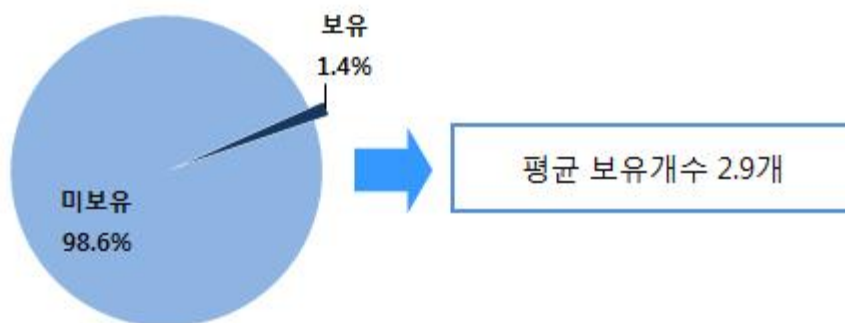
- 자사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36.3%이며, 브랜드 보유 개수는 평균 2.1개로 나타남

<그림 2-6-1> 자사브랜드 보유 현황



- 공동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1.4%이며, 브랜드 보유 개수는 평균 2.9개임

<그림 2-6-2> 공동브랜드 보유 현황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사브랜드 보유가 46.0%로 응답하여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에너지/의료/정밀에서는 공동브랜드 보유 비율이 2.9%로 높게 나타났지만, 보유개수는 통신기기/방송기기에서 평균 12.0개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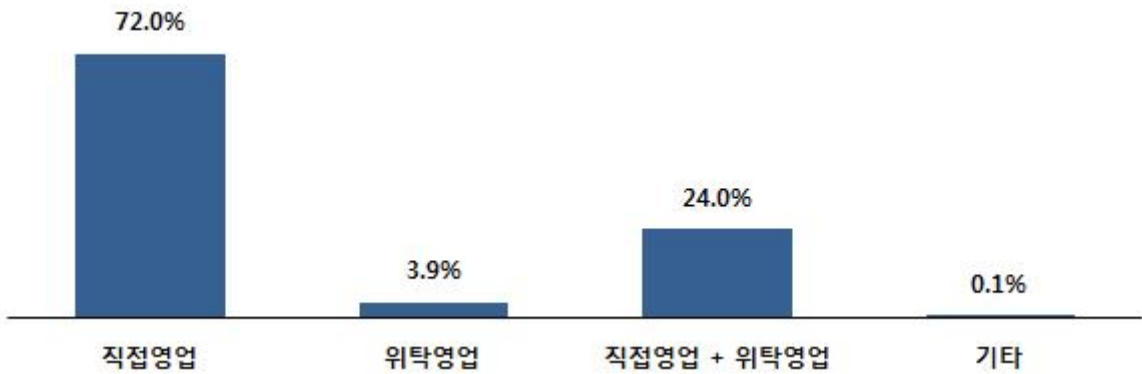
<표 2-6-1> 브랜드 보유 현황

구 분		모집단 크기	자사 브랜드			공동 브랜드			
			보유	미보유	보유 개수	보유	미보유	보유 개수	
전 체		(35,187)	36.3%	63.7%	2.1개	1.4%	98.6%	2.9개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41.5%	58.5%	2.2개	2.9%	97.1%	1.0개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29.9%	70.1%	2.0개	0.6%	99.4%	2.3개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42.2%	57.8%	1.7개	0.7%	99.3%	12.0개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38.4%	61.6%	2.0개	1.9%	98.1%	2.9개
		기계/제조/자동차	(8,952)	42.2%	57.8%	2.2개	2.0%	98.0%	3.0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46.0%	54.0%	2.1개	0.1%	99.9%	1.0개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29.1%	70.9%	1.5개	0.7%	99.3%	1.0개
	기타	기타	(4,762)	18.5%	81.5%	2.9개	0.7%	99.3%	6.3개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34.9%	65.1%	1.8개	1.1%	98.9%	1.3개	
	10~29인	(11,296)	38.8%	61.2%	2.2개	2.0%	98.0%	3.6개	
	30~49인	(2,560)	32.8%	67.2%	2.2개	1.1%	98.9%	9.8개	
	50~99인	(1,725)	37.9%	62.1%	3.0개	1.2%	98.8%	1.7개	
	100인 이상	(924)	41.1%	58.9%	4.7개	0.9%	99.1%	3.1개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33.9%	66.1%	2.2개	1.7%	98.3%	2.6개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46.3%	53.7%	2.0개	1.6%	98.4%	3.3개	
	부산/경남/울산	(4,353)	25.5%	74.5%	1.9개	0.1%	99.9%	1.0개	
	대구/경북	(3,330)	38.7%	61.3%	1.9개	0.3%	99.7%	20.0개	
	광주/전라/제주	(2,161)	33.7%	66.3%	3.1개	2.3%	97.7%	1.0개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53.2%	46.8%	1.3개	-	100.0%	-	
	초기성장기	(6,715)	33.2%	66.8%	1.9개	0.5%	99.5%	10.2개	
	고도성장기	(18,251)	36.5%	63.5%	2.2개	1.5%	98.5%	2.2개	
	성숙기	(9,735)	37.6%	62.4%	2.1개	1.7%	98.3%	2.7개	
	쇠퇴기	(82)	11.2%	88.8%	1.5개	-	100.0%	-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26.6%	73.4%	1.9개	-	100.0%	-	
	4~10년	(18,012)	34.7%	65.3%	2.0개	0.9%	99.1%	4.6개	
	11~20년	(12,115)	40.0%	60.0%	2.1개	2.0%	98.0%	1.7개	
	21년 이상	(2,882)	38.3%	61.7%	2.8개	2.9%	97.1%	3.1개	

2. 영업 및 마케팅 활동방법

- 벤처기업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방법은 '자체 유통망에 의한 직접 영업'이 72.0%로 가장 많고, '직접영업과 위탁영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24.0%, '대리점이나 전문 유통기관(ex. 홈쇼핑)을 통한 위탁영업'이 3.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3> 영업 및 마케팅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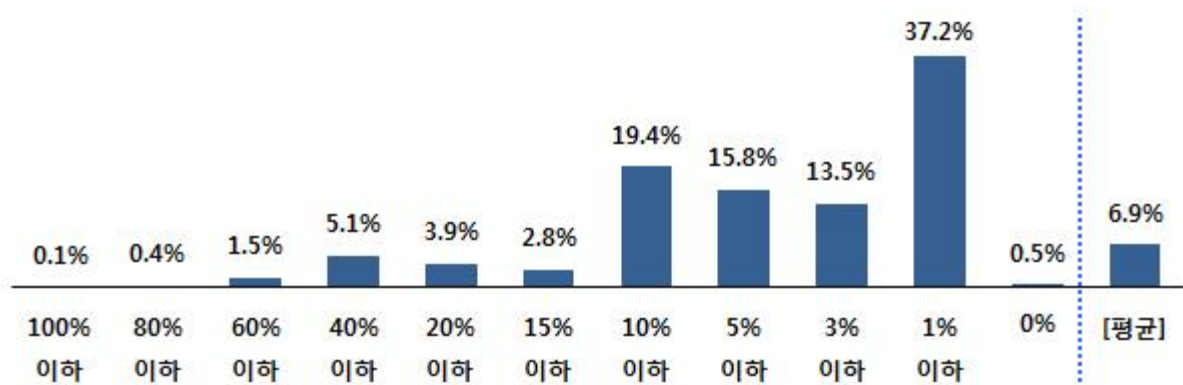


3. 시장점유율

□ 국내 시장점유율

- 벤처기업의 평균 국내 시장점유율은 6.9%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1%이하'가 37.2%로 가장 많고, '10% 이하'가 19.4%, '5% 이하' 15.8%, '3% 이하' 13.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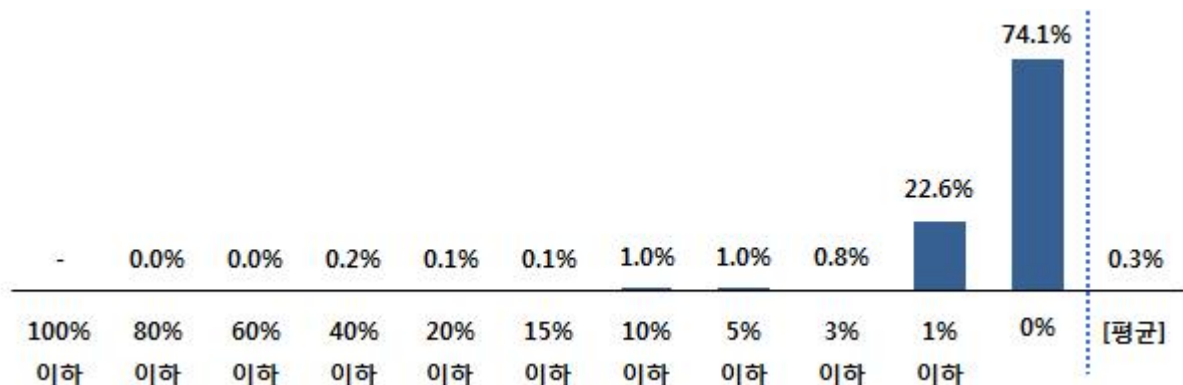
<그림 2-6-4> 국내 시장점유율



□ 해외 시장점유율

- 벤처기업의 평균 해외 시장점유율은 0.3%로 나타남
- 이 중, '0%'라고 응답한 비율이 74.1%로 가장 높고, '1%이하'가 22.6%로 조사됨

<그림 2-6-5> 해외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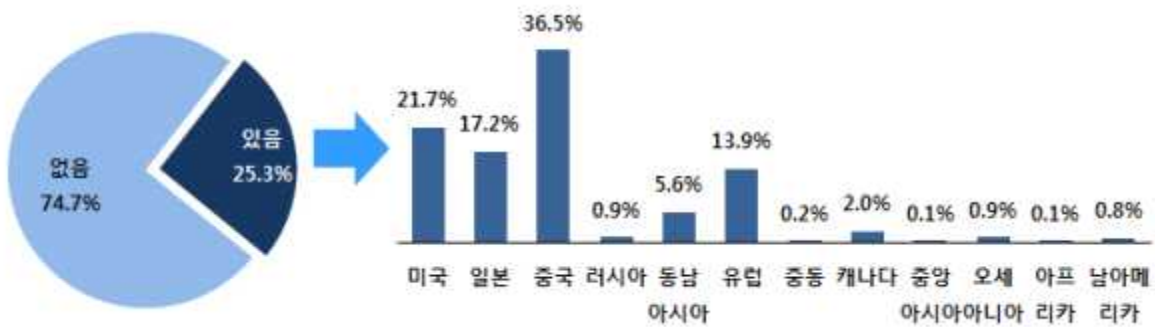
주) '-' 는 해당없음

4. 원자재 및 부품 수입

- 벤처기업이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25.3%이며, 수입 국가로는 중국이 3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 21.7%, 일본 17.2%, 유럽 13.9%, 동남아시아 5.6%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6>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복수응답>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보면, 기계/제조/자동차에서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비율이 40.3%로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수입 비율이 4.0%로 타 업종 보다 낮음
- 종사자 규모에서는 100인 이상 기업, 성장단계에서는 쇠퇴기 기업이 원자재 및 부품수입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강원에서 32.8%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전라/제주에서는 14.4%로 나타나 타 지역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2-6-2> 원자재 및 부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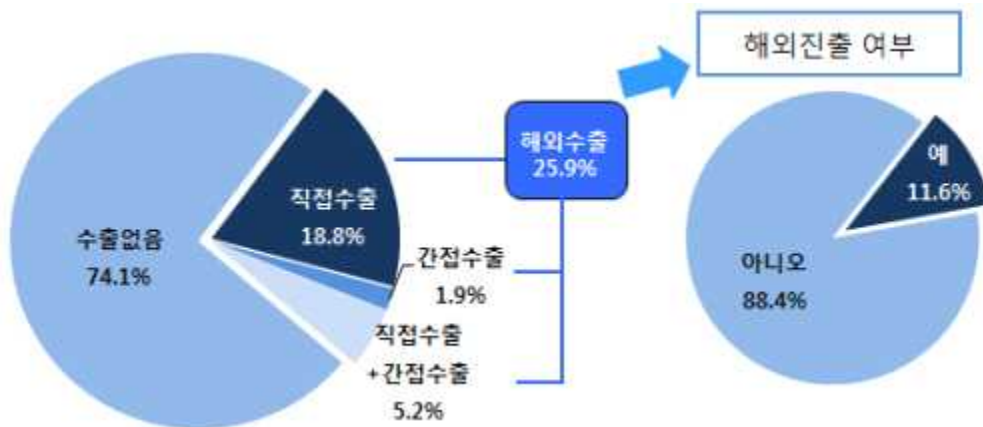
구분		모집단 크기	있음	없음	
전체		(35,187)	25.3%	74.7%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37.7%	62.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32.2%	67.8%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38.4%	61.6%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18.8%	81.2%
		기계/제조/자동차	(8,952)	40.3%	59.7%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11.1%	88.9%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4.0%	96.0%
	기타	기타	(4,762)	15.1%	84.9%
종사자규모	1~9인	(18,682)	22.7%	77.3%	
	10~29인	(11,296)	28.0%	72.0%	
	30~49인	(2,560)	29.3%	70.7%	
	50~99인	(1,725)	28.5%	71.5%	
	100인 이상	(924)	29.5%	70.5%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26.5%	73.5%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32.8%	67.2%	
	부산/경남/울산	(4,353)	14.7%	85.3%	
	대구/경북	(3,330)	21.6%	78.4%	
	광주/전라/제주	(2,161)	14.4%	85.6%	
성장단계	창업기	(403)	15.5%	84.5%	
	초기성장기	(6,715)	23.2%	76.8%	
	고도성장기	(18,251)	25.8%	74.2%	
	성숙기	(9,735)	26.2%	73.8%	
	쇠퇴기	(82)	50.3%	49.7%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14.6%	85.4%	
	4~10년	(18,012)	23.9%	76.1%	
	11~20년	(12,115)	27.6%	72.4%	
	21년 이상	(2,882)	33.1%	66.9%	

5. 해외 수출 및 진출 현황

□ 해외 수출 및 진출 현황

- 벤처기업 중 해외 수출기업은 25.9%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직접수출’만 하는 기업이 18.8%, ‘간접수출’ 1.9%, ‘직접수출 + 간접수출’ 병행 기업은 5.2%이었으며, 수출이 없는 기업은 74.1%로 조사됨
- 해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지사·지점 경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11.6% 기업이 해외 진출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7> 해외 수출 및 진출 현황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의료/정밀에서 ‘해외 수출’ 비율이 48.3%로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9.4%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종사자규모가 클수록, 성장단계가 높을수록, 업력이 클수록 ‘해외수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경남/울산에서 ‘해외 수출’ 비율이 28.4%로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전라/제주에서는 16.4%로 비율이 낮음

<표 2-6-3> 해외 직·간접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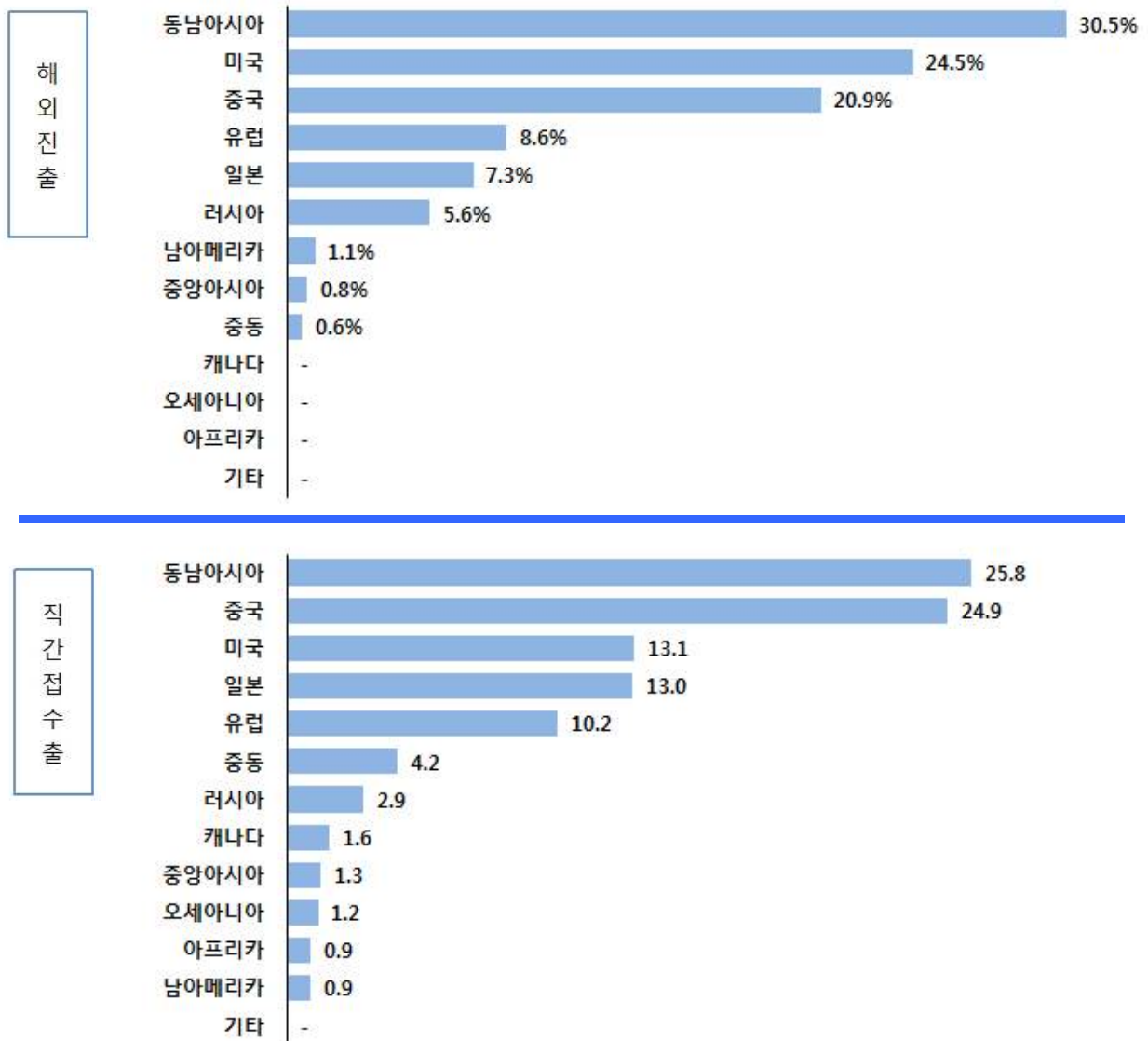
구 분		모집단 크기	해외 직·간접수출 현황				수출없음	
			계	직접수출	간접수출	직접수출 + 간접수출		
전 체		(35,187)	25.9%	18.8%	1.9%	5.2%	74.1%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48.3%	33.5%	4.2%	10.6%	51.7%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23.5%	17.1%	2.4%	4.0%	76.4%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35.3%	28.7%	0.9%	5.7%	64.7%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24.5%	17.5%	1.6%	5.4%	75.4%
		기계/제조/자동차	(8,952)	39.8%	29.0%	2.4%	8.4%	60.1%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9.4%	5.6%	1.9%	1.9%	90.6%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11.7%	6.9%	1.6%	3.2%	88.3%
기타	기타	(4,762)	10.3%	9.3%	0.4%	0.6%	89.7%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19.8%	14.5%	2.2%	3.1%	80.2%	
	10~29인	(11,296)	26.8%	19.2%	1.2%	6.4%	73.2%	
	30~49인	(2,560)	41.4%	28.6%	2.7%	10.1%	58.6%	
	50~99인	(1,725)	48.1%	34.5%	2.5%	11.1%	52.0%	
	100인 이상	(924)	54.4%	43.3%	1.3%	9.8%	45.7%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26.9%	19.0%	2.3%	5.6%	73.1%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27.6%	19.7%	1.8%	6.1%	72.3%	
	부산/경남/울산	(4,353)	28.4%	21.8%	0.4%	6.2%	71.6%	
	대구/경북	(3,330)	19.4%	14.5%	3.2%	1.7%	80.6%	
	광주/전라/제주	(2,161)	16.4%	13.9%	0.3%	2.2%	83.6%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13.4%	13.4%	-	-	86.6%	
	초기성장기	(6,715)	18.2%	14.9%	0.6%	2.7%	81.8%	
	고도성장기	(18,251)	25.9%	18.3%	2.7%	4.9%	74.0%	
	성숙기	(9,735)	31.4%	22.7%	1.1%	7.6%	68.7%	
	쇠퇴기	(82)	55.8%	5.6%	37.4%	12.8%	44.3%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12.0%	9.0%	1.6%	1.4%	87.9%	
	4~10년	(18,012)	19.8%	14.9%	1.2%	3.7%	80.2%	
	11~20년	(12,115)	35.1%	24.8%	3.2%	7.1%	65.0%	
	21년 이상	(2,882)	36.4%	25.2%	1.1%	10.1%	63.6%	

□ 해외 진출 및 직·간접수출 현황

- 해외진출 지역은 동남아시아가 30.5%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24.5%, 중국 20.9%, 유럽 8.6%, 일본 7.3%, 러시아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직·간접수출 지역 역시 동남아시아가 2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24.9%, 미국 13.1%, 일본 13.0%, 유럽 10.2%, 중동 4.2% 등의 순임

<그림 2-6-8> 해외 진출 및 직·간접 수출 지역별 현황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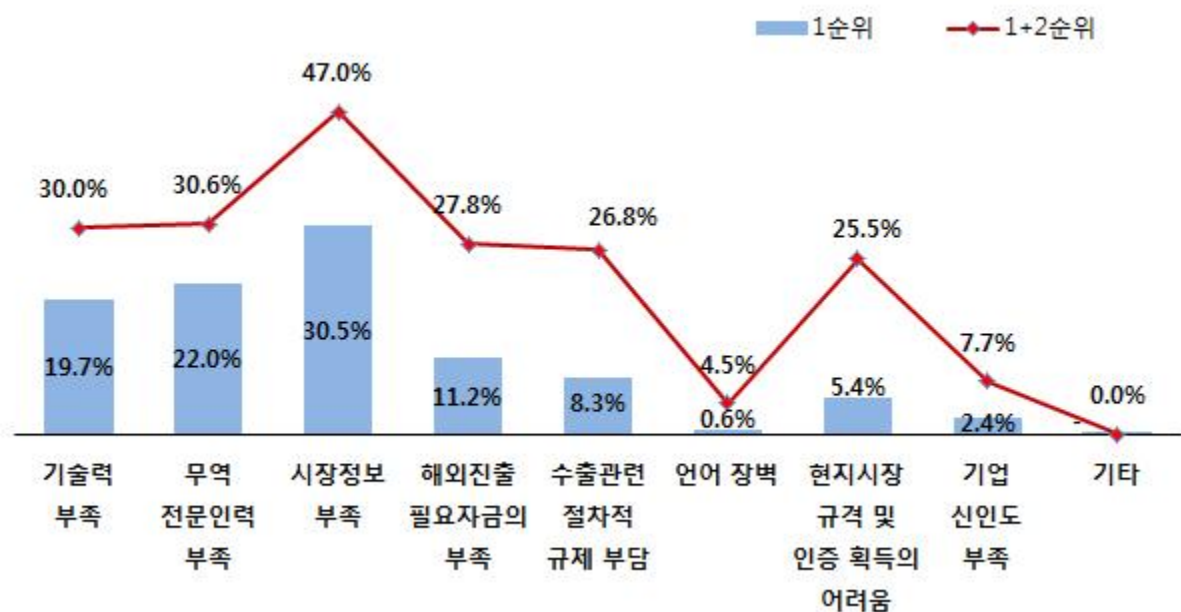


주) '-' 는 해당없음

□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

- 벤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2순위까지 살펴본 결과, '시장정보 부족'(47.0%)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무역 전문 인력 부족' 30.6%, '기술력 부족' 30.0%, '해외진출 필요자금의 부족' 27.8%, '수출관련 절차적 규제 부담(선적, 통관 등)' 26.8%, '현지시장 규격 및 인증 획득의 어려움' 2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9> 해외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



특성별 분석

- 해외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료/섬유/(비)금속이 '시장정보 부족'(50.4%)을, 소프트웨어 개발은 '무역 전문인력 부족'(47.6%)을 가장 높게 응답하여 업종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이 다를 수 있음
- 초창기 기업일수록 대체적으로 '기술력 부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4> 해외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

<1+2순위 응답 기준>

구분 ¹⁰⁾		모집단 크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5,187)	30.0%	30.6%	47.0%	27.8%	26.8%	4.5%	25.5%	7.7%	0.0%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29.5%	25.7%	46.3%	34.8%	37.3%	3.1%	20.1%	3.2%	-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29.9%	29.5%	46.2%	34.6%	24.0%	3.1%	24.2%	8.5%	-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28.7%	36.0%	37.9%	28.3%	32.7%	6.1%	24.3%	5.9%	-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34.2%	22.6%	50.4%	20.0%	30.7%	4.2%	28.9%	8.8%	0.2%
		기계/제조/자동차	(8,952)	30.2%	33.6%	47.0%	24.2%	26.4%	6.0%	26.1%	6.6%	-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28.5%	47.6%	47.0%	34.1%	20.0%	3.6%	13.8%	5.3%	0.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27.9%	27.7%	42.7%	36.5%	28.7%	4.0%	24.8%	7.6%	-
기타	기타	(4,762)	25.7%	28.5%	46.5%	29.2%	21.1%	4.8%	32.4%	11.7%	-	
중사자규모	1~9인	(18,682)	33.2%	29.0%	47.7%	23.8%	27.9%	4.8%	25.7%	7.8%	-	
	10~29인	(11,296)	26.2%	31.9%	44.7%	35.1%	25.4%	3.7%	25.9%	7.0%	-	
	30~49인	(2,560)	31.2%	32.9%	49.2%	25.2%	25.0%	5.5%	23.2%	7.5%	0.3%	
	50~99인	(1,725)	25.8%	36.6%	49.6%	24.6%	26.0%	4.6%	21.7%	10.6%	0.3%	
	100인 이상	(924)	17.5%	29.3%	48.5%	30.2%	30.0%	5.6%	30.3%	8.3%	0.3%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29.9%	29.4%	45.3%	30.3%	26.6%	4.9%	25.3%	8.2%	0.0%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27.9%	35.3%	42.4%	30.6%	27.1%	5.7%	23.8%	7.2%	-	
	부산/경남/울산	(4,353)	31.5%	26.0%	59.0%	18.9%	27.9%	1.9%	28.6%	6.2%	-	
	대구/경북	(3,330)	28.7%	34.0%	46.2%	25.7%	26.8%	5.3%	26.3%	6.7%	0.3%	
	광주/전라/제주	(2,161)	38.4%	26.2%	54.7%	18.2%	24.9%	1.1%	27.1%	9.4%	-	
성장단계	창업기	(403)	41.1%	19.2%	42.9%	39.7%	21.7%	-	21.7%	13.7%	-	
	초기성장기	(6,715)	31.4%	31.2%	49.8%	31.0%	25.2%	5.0%	22.7%	3.7%	0.0%	
	고도성장기	(18,251)	30.4%	27.6%	48.2%	26.2%	26.4%	4.2%	28.1%	8.8%	0.1%	
	성숙기	(9,735)	28.1%	36.1%	42.9%	28.1%	28.6%	5.1%	22.9%	8.1%	0.1%	
	쇠퇴기	(82)	8.5%	59.6%	40.7%	15.0%	63.1%	6.0%	4.1%	3.0%	-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24.7%	31.1%	47.7%	29.6%	25.6%	4.0%	28.9%	8.5%	-	
	4~10년	(18,012)	33.4%	28.4%	47.7%	26.4%	26.7%	4.4%	26.1%	6.9%	0.0%	
	11~20년	(12,115)	26.1%	32.3%	46.5%	31.3%	25.6%	4.3%	25.2%	8.7%	0.0%	
	21년 이상	(2,882)	29.6%	37.1%	43.8%	20.1%	33.9%	7.0%	20.8%	7.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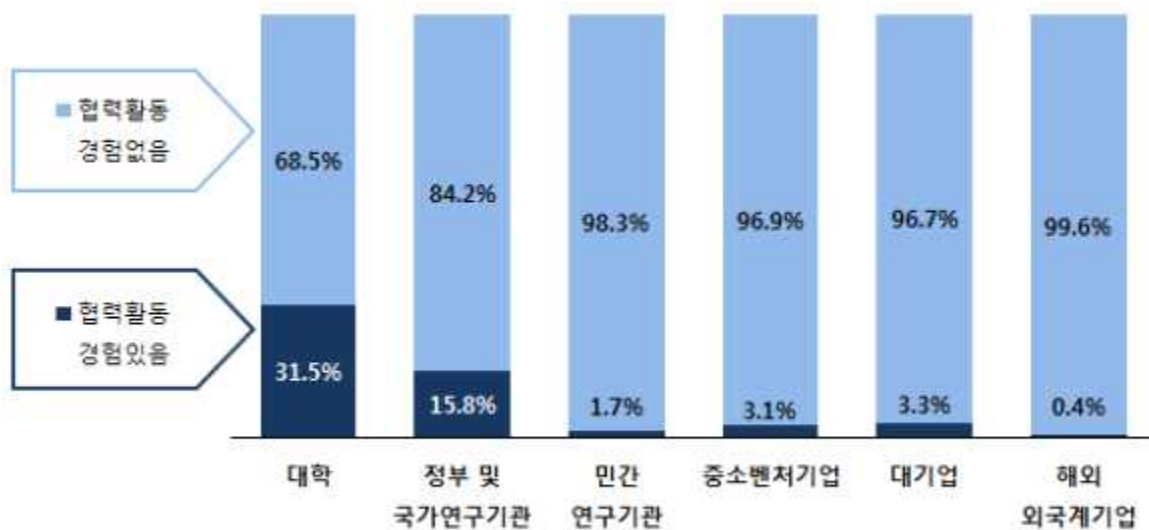
10) ① 기술력 부족, ② 무역 전문인력 부족, ③ 시장정보의 부족, ④ 해외진출 필요자금의 부족, ⑤ 수출 관련 절차적 규제 부담, ⑥ 언어장벽, ⑦ 현지시장 규격 및 인증 획득의 어려움, ⑧ 기업 신인도 부족, ⑨ 기타

제7절. 제휴 및 협력 현황

1. 협력 경험

- 벤처기업의 협력활동 경험은 대학과의 협력이 31.5%로 가장 많고,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이 15.8%, 대기업 3.3%, 중소벤처기업 3.1%, 민간 연구기관 1.7%, 해외 외국계 기업 0.4%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1> 협력활동 경험률



특성별 분석

- 대체적으로 '대학(산학협력)'을 통한 협력활동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너지/의료/정밀 업종에서 '대학(산학협력)'이 43.4%로 가장 높고,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23.6%)의 협력도 타 업종 대비 높게 조사됨
- 종사자규모별로는 100인 이상에서 '정부 및 국가연구기관', '대기업' 및 '해외 외국계 기업'과의 협력 경험이 각각 21.7%, 5.4%, 1.2%로 타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

<표 2-7-1> 협력활동 경험률

구 분		모집단 크기	대학 (산학협력)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중소 벤처기업	대기업	해외 외국계 기업	
전 체		(35,187)	31.5%	15.8%	1.7%	3.1%	3.3%	0.4%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43.4%	23.6%	1.6%	3.9%	1.2%	0.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30.2%	12.8%	0.6%	2.6%	1.7%	0.1%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32.3%	19.1%	2.4%	4.0%	2.7%	-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32.7%	16.6%	1.6%	2.2%	3.8%	-
		기계/제조/자동차	(8,952)	27.6%	13.8%	2.1%	2.4%	3.8%	0.4%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35.4%	16.8%	0.2%	4.4%	3.4%	0.2%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20.0%	8.2%	-	2.2%	0.1%	0.3%
기타	기타	(4,762)	34.4%	19.1%	3.7%	5.1%	5.4%	1.8%	
중 사 자 규 모	1~9인	(18,682)	27.8%	13.1%	0.7%	2.1%	2.9%	0.2%	
	10~29인	(11,296)	36.3%	18.2%	3.2%	5.2%	3.6%	0.8%	
	30~49인	(2,560)	35.0%	20.4%	1.9%	2.2%	4.1%	0.5%	
	50~99인	(1,725)	33.1%	20.1%	1.3%	2.5%	3.3%	-	
	100인 이상	(924)	35.2%	21.7%	2.0%	2.2%	5.4%	1.2%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26.4%	15.3%	1.4%	3.6%	3.3%	0.6%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35.8%	17.0%	1.8%	2.5%	3.2%	0.3%	
	부산/경남/울산	(4,353)	35.0%	17.0%	1.4%	1.5%	2.3%	-	
	대구/경북	(3,330)	34.9%	11.9%	2.6%	1.1%	4.1%	0.7%	
	광주/전라/제주	(2,161)	42.1%	18.4%	2.6%	7.7%	4.7%	0.8%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13.7%	5.7%	5.7%	-	-	5.7%	
	초기성장기	(6,715)	25.2%	13.2%	2.2%	2.6%	1.8%	0.7%	
	고도성장기	(18,251)	33.9%	16.9%	1.3%	2.9%	3.8%	0.2%	
	성숙기	(9,735)	32.1%	16.0%	2.0%	4.0%	3.5%	0.4%	
	쇠퇴기	(82)	33.2%	9.0%	-	-	-	-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25.8%	13.6%	3.5%	1.5%	0.6%	1.0%	
	4~10년	(18,012)	29.6%	14.8%	1.3%	2.6%	3.2%	0.5%	
	11~20년	(12,115)	35.9%	18.5%	1.8%	4.3%	3.9%	0.3%	
	21년 이상	(2,882)	29.1%	12.6%	2.1%	2.2%	3.4%	0.2%	

2. 협력활동 유형

- 벤처기업이 경험한 협력활동 중 대학(산학협력)과는 ‘공동 기술·연구개발’ 유형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훈련·인력상호 교류’(18.1%), ‘신제품 공동개발’(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 및 국가연구기관과의 협력활동은 ‘공동기술·연구개발’(52.2%) 유형이 가장 높고, 이어 ‘자금’(24.5%), ‘교육훈련·인력상호 교류’(5.7%),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상호이용’(5.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민간 연구기관과 협력은 ‘공동 기술·연구개발’(75.3%)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활동 역시 ‘공동 기술·연구개발’(48.0%) 유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산’(11.8%), ‘마케팅/판로/유통’(10.9%), ‘신제품 공동개발’(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기업과의 제휴 및 협력활동도 ‘공동 기술·연구개발’(41.7%) 유형이 가장 높고, 이후 ‘마케팅/판로/유통’(13.0%), ‘신제품 공동개발’(9.6%) 등의 순임
- 해외 외국계기업과의 협력활동 유형도 마찬가지로 ‘공동 기술·연구개발’(41.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산’(19.5%)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2-7-2> 벤처기업이 경험한 협력활동 유형

<대상별 협력활동 경험이 있는 기업,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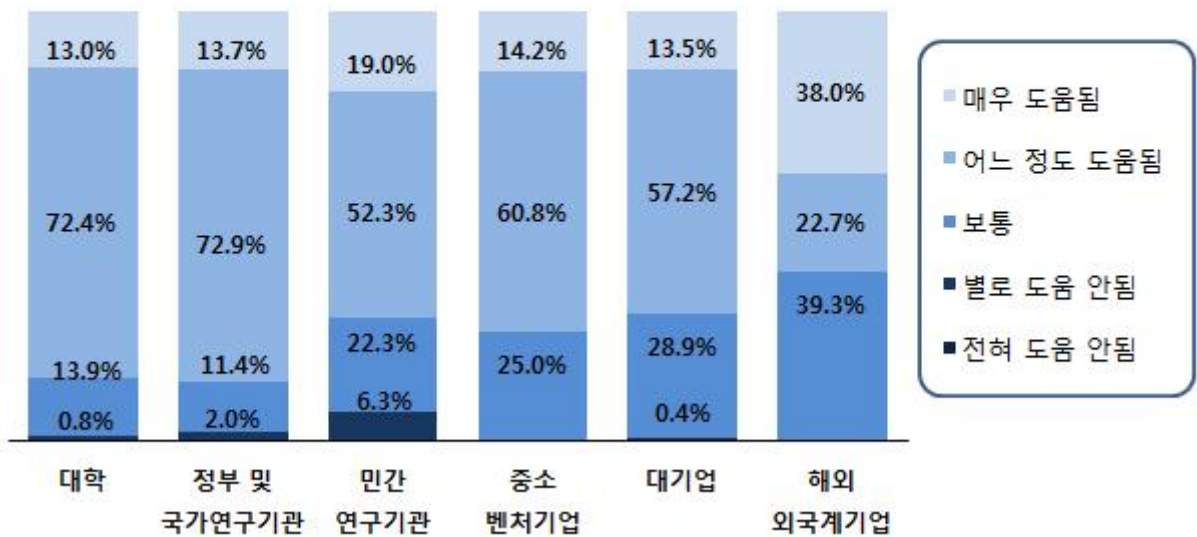
구분	모집단 크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대학	(11,082)	2.9%	62.7%	18.1%	1.1%	1.0%	0.3%	0.8%	-	3.5%	4.0%	0.1%	5.6%	0.0%
정부 및 국가연구 기관	(5,567)	2.7%	52.2%	5.7%	0.7%	24.5%	-	2.2%	0.7%	5.1%	3.6%	0.5%	2.1%	-
민간 연구기관	(588)	-	75.3%	2.2%	4.7%	0.3%	1.3%	1.6%	-	5.0%	4.5%	-	5.1%	-
중소 벤처기업	(1,088)	10.9%	48.0%	4.5%	11.8%	2.6%	-	4.0%	0.2%	0.6%	7.0%	-	10.5%	-
대기업	(1,160)	13.0%	41.7%	7.1%	4.6%	1.9%	-	1.9%	0.5%	6.0%	9.2%	4.6%	9.6%	-
해외 외국계 기업	(155)	1.2%	41.3%	8.9%	19.5%	-	-	-	-	-	-	12.0%	17.1%	-

① 마케팅/판로/유통, ② 공동 기술·연구개발, ③ 교육훈련, 인력상호 교류, ④ 생산, ⑤ 자금, ⑥ 브랜드, ⑦ 디자인, ⑧ 경영지원, ⑨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상호이용, ⑩ 기술지도, ⑪ 해외진출, ⑫ 신제품 공동개발, ⑬ 기타

3. 협력활동 유형별 도움정도

- 벤처기업의 협력활동 유형별 도움정도를 상위응답(‘어느 정도 도움됨’+‘매우 도움됨’) 비율로 살펴보면, ‘정부 및 국가연구기관’과의 협력이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대학’ 85.4%, ‘중소벤처기업’ 75.0%, ‘민간 연구기관’ 71.3%, ‘대기업’ 70.7%, ‘해외 외국계기업’ 60.7%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2> 협력활동 유형별 도움정도



주) 중소기업 및 해외 외국계기업은 '전혀 도움 안됨' 응답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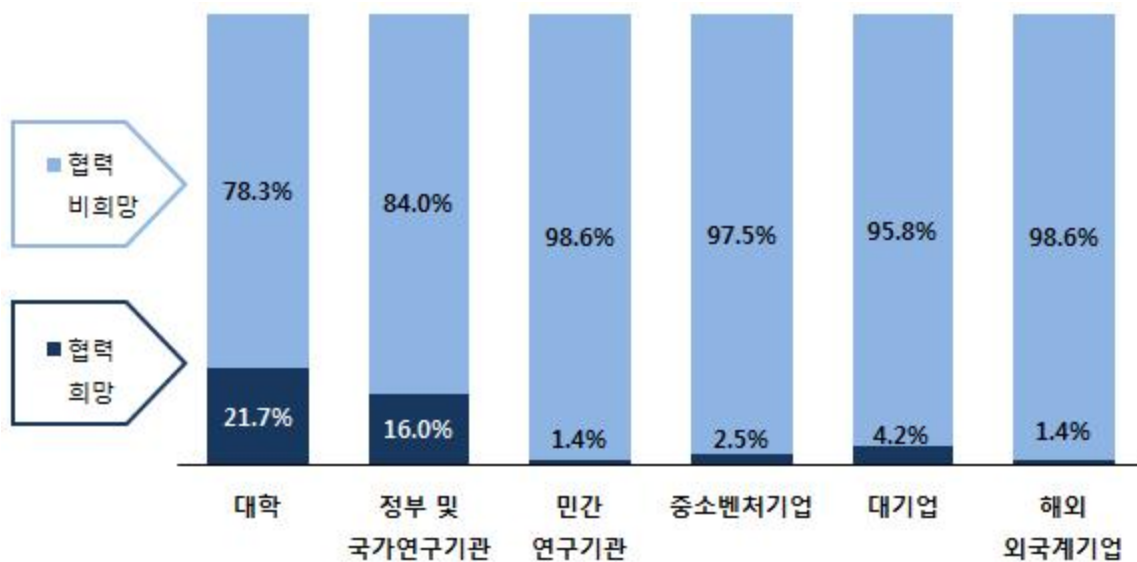
<표 2-7-3> 협력활동 유형별 도움정도

구분	대학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해외 외국계 기업
5점 척도	4.0점	4.0점	3.8점	3.9점	3.8점	4.0점
상위응답자 (매우 도움됨+ 어느 정도 도움됨)	85.4%	86.6%	71.3%	75.0%	70.7%	60.7%

4. 협력 의사

- 벤처기업의 협력 의사 희망률은 '대학'과 협력 의사가 21.7%로 가장 높고,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 16.0%, '대기업' 4.2%, '중소벤처기업' 2.5%, '민간 연구기관', '해외 외국계 기업' 각 1.4% 등의 순으로 협력 희망 의사를 보임

<그림 2-7-3> 협력의사 희망률



특성별 분석

- 타 기관과의 협력의사 희망률은 대체적으로 '대학(산학협력)'과의 희망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신기기/방송기기 업종에서는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25.6%)과의 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낮을수록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과의 협력의사 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7-4> 협력의사 희망률

구 분		모집단 크기	대학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중소 벤처기업	대기업	해외 외국계 기업	
전 체		(35,187)	21.7%	16.0%	1.4%	2.5%	4.2%	1.4%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35.9%	21.7%	1.1%	2.0%	2.8%	1.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15.2%	13.0%	0.3%	2.2%	1.6%	0.4%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16.5%	25.6%	2.6%	5.1%	4.4%	1.3%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23.8%	17.7%	0.9%	1.8%	3.7%	2.3%
		기계/제조/자동차	(8,952)	18.1%	11.9%	0.2%	1.0%	2.9%	0.8%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25.6%	14.3%	1.5%	6.0%	6.2%	1.5%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18.4%	12.8%	0.1%	1.5%	2.0%	0.1%
기타	기타	(4,762)	23.3%	20.7%	5.7%	4.3%	9.6%	2.4%	
종사자 규모	1~9인	(18,682)	20.0%	15.2%	1.3%	3.0%	4.9%	1.3%	
	10~29인	(11,296)	25.0%	16.2%	1.6%	2.2%	3.3%	1.9%	
	30~49인	(2,560)	21.4%	17.3%	1.3%	1.5%	3.0%	0.5%	
	50~99인	(1,725)	19.5%	17.4%	1.0%	1.4%	2.7%	0.1%	
	100인 이상	(924)	22.3%	23.4%	2.0%	2.6%	6.2%	3.3%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19.0%	13.6%	1.1%	2.0%	3.3%	0.6%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21.8%	18.0%	2.2%	2.7%	6.5%	2.3%	
	부산/경남/울산	(4,353)	29.5%	17.5%	-	2.6%	3.1%	-	
	대구/경북	(3,330)	21.9%	17.0%	2.5%	2.5%	3.3%	3.2%	
	광주/전라/제주	(2,161)	26.8%	21.5%	1.8%	6.1%	5.8%	4.6%	
성장 단계	창업기	(403)	-	24.9%	11.2%	5.5%	5.5%	-	
	초기성장기	(6,715)	17.9%	15.5%	1.1%	3.0%	4.5%	2.1%	
	고도성장기	(18,251)	23.7%	16.2%	1.5%	2.0%	4.1%	1.4%	
	성숙기	(9,735)	21.8%	15.7%	1.0%	3.1%	4.2%	1.1%	
	쇠퇴기	(82)	14.8%	5.2%	-	-	-	-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14.4%	19.2%	2.2%	4.8%	3.9%	2.6%	
	4~10년	(18,012)	23.5%	16.2%	1.2%	2.6%	4.3%	0.8%	
	11~20년	(12,115)	21.1%	16.0%	1.3%	2.0%	4.4%	2.0%	
	21년 이상	(2,882)	18.8%	12.1%	2.3%	2.8%	2.8%	2.0%	

5. 협력 희망 분야

- 타 기관과의 협력 희망 분야 중 대학과는 ‘공동 기술·연구개발’(56.0%) 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훈련·인력상호 교류’(21.2%) 순임
- 정부 및 국가연구기관과의 협력 희망 분야는 ‘공동 기술·연구개발’(40.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금’(25.9%) 순으로 나타남
- 민간 연구기관의 협력 희망 분야는 ‘공동 기술·연구개발’(31.9%), ‘신제품 공동개발’(17.3%),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상호이용’(10.1%) 등의 순임
- 중소기업과의 협력 희망 분야 또한 ‘공동 기술·연구개발’(34.3%), ‘마케팅/판로/유통’(15.1%), ‘신제품 공동개발’(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기업과의 협력 희망 분야는 ‘공동 기술·연구개발’(26.8%)이 가장 높고, 이어 ‘기술지도’(15.7%), ‘마케팅/판로/유통’(13.9%),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상호이용’(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외 외국계기업과의 협력 희망 분야는 ‘해외진출’(2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마케팅/판로/유통’(22.0%), ‘신제품 공동개발’(10.4%) 등의 순임

<표 2-7-5> 타 기관과의 협력 희망 분야

<대상별 협력활동 희망 기업, 복수응답>

구분	모집단 크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대학	(7,649)	2.4%	56.0%	21.2%	1.4%	0.5%	0.4%	1.6%	0.4%	5.7%	3.7%	0.2%	6.4%	-
정부 및 국가연구 기관	(5,626)	4.3%	40.7%	5.2%	0.9%	25.9%	0.4%	1.2%	1.2%	8.8%	7.0%	1.4%	3.1%	-
민간 연구기관	(492)	2.5%	31.9%	4.7%	8.9%	3.5%	3.1%	5.4%	2.3%	10.1%	2.6%	7.7%	17.3%	-
중소 벤처기업	(891)	15.1%	34.3%	4.0%	8.8%	3.6%	1.4%	5.8%	1.4%	4.2%	5.0%	1.4%	15.0%	-
대기업	(1,478)	13.9%	26.8%	3.4%	4.6%	4.4%	2.9%	2.1%	2.7%	11.6%	15.7%	4.1%	7.8%	-
해외 외국계 기업	(500)	22.0%	8.2%	2.4%	7.3%	2.7%	2.4%	2.4%	2.4%	7.8%	2.4%	29.2%	1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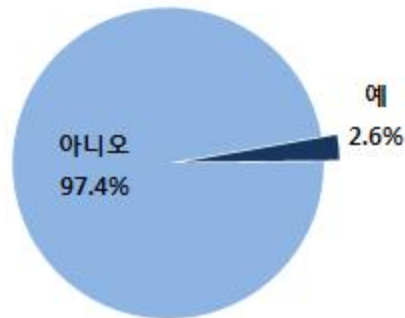
① 마케팅/판로/유통, ② 공동 기술·연구개발, ③ 교육훈련, 인력상호 교류, ④ 생산, ⑤ 자금, ⑥ 브랜드, ⑦ 디자인, ⑧ 경영지원, ⑨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상호이용, ⑩ 기술지도, ⑪ 해외진출, ⑫ 신제품 공동개발, ⑬ 기타

제8절. 벤처캐피탈 및 인수합병(M&A) 현황

1. 엔젤투자

- 벤처기업 중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2.6%로 나타남

<그림 2-8-1> 엔젤투자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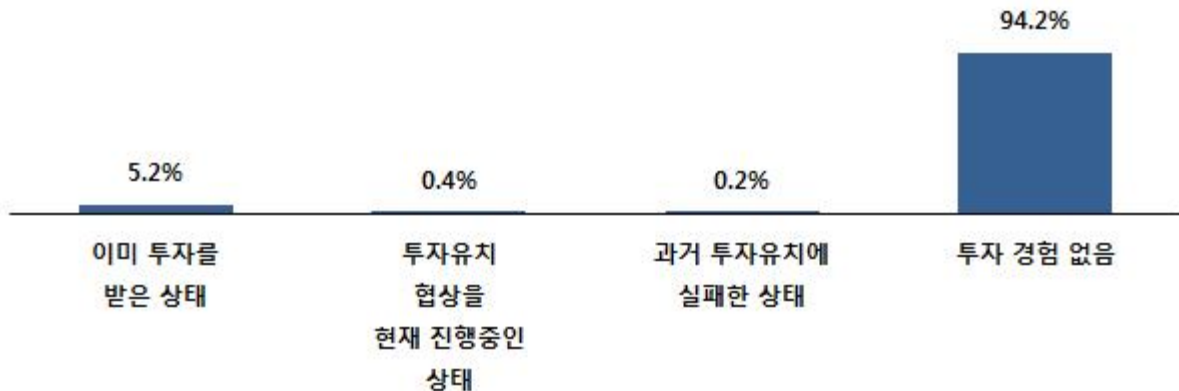


2.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현황

□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 투자유치 경험

- 벤처캐피탈로부터 이미 투자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벤처기업은 5.2%로 나타났으며, 투자 경험이 없는 벤처기업은 94.2%로 나타남

<그림 2-8-2>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의료/정밀 업종에서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이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이 9.1%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로부터 '이미 투자를 받은 상태' 비율이 19.8%로 높게 나타남

<표 2-8-1>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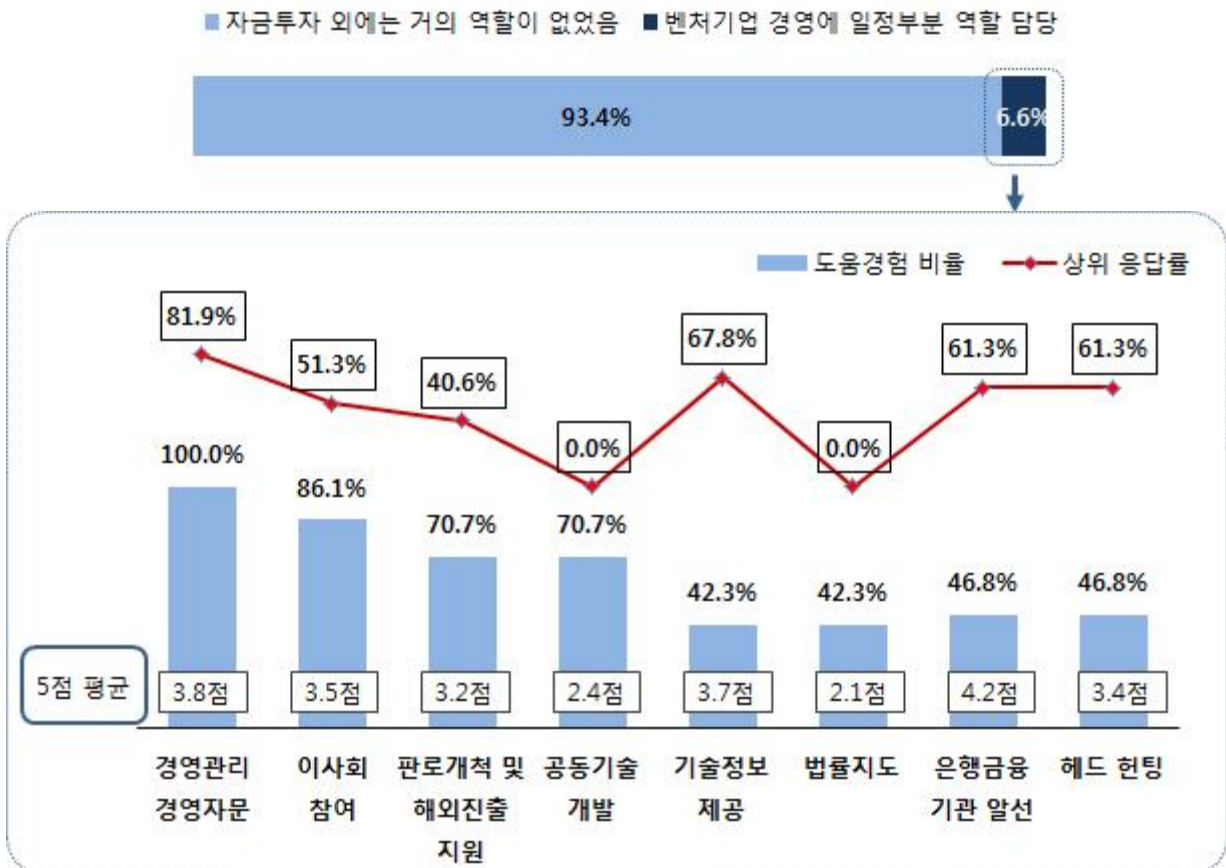
구 분		모집단 크기	이미 투자를 받은 상태	투자유치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 상태	과거 투자유치에 실패한 상태	투자 유치 경험 없음	
전 체		(35,187)	5.2%	0.4%	0.2%	94.2%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11.2%	-	-	88.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9.1%	1.7%	0.9%	88.3%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5.3%	-	-	94.7%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1.4%	-	-	98.6%
		기계/제조/자동차	(8,952)	4.9%	0.1%	-	95.0%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5.4%	1.4%	-	93.2%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9.0%	0.7%	-	90.3%
기타	기타	(4,762)	4.4%	-	0.8%	94.9%	
종 사 자 구 모	1~9인	(18,682)	4.3%	0.3%	0.4%	95.0%	
	10~29인	(11,296)	4.3%	0.6%	-	95.1%	
	30~49인	(2,560)	8.4%	-	-	91.6%	
	50~99인	(1,725)	9.4%	0.4%	-	90.3%	
	100인 이상	(924)	19.8%	-	-	80.2%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6.6%	-	0.2%	93.2%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3.9%	0.7%	-	95.4%	
	부산/경남/울산	(4,353)	1.5%	1.3%	-	97.2%	
	대구/경북	(3,330)	7.0%	-	1.1%	91.8%	
	광주/전라/제주	(2,161)	4.7%	1.2%	-	94.1%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8.0%	-	-	92.0%	
	초기성장기	(6,715)	4.7%	0.5%	0.5%	94.3%	
	고도성장기	(18,251)	6.0%	0.4%	0.2%	93.4%	
	성숙기	(9,735)	4.0%	0.4%	-	95.5%	
	쇠퇴기	(82)	7.3%	-	-	92.7%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6.1%	-	-	93.9%	
	4~10년	(18,012)	5.0%	0.3%	0.4%	94.4%	
	11~20년	(12,115)	5.5%	0.8%	-	93.8%	
	21년 이상	(2,882)	5.2%	-	-	94.8%	

□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도움 정도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 중 벤처캐피탈의 역할에 대해 '자금투자 외에는 역할이 거의 없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3.4%로 나타났으며,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벤처기업은 6.6%로 조사됨
- 벤처기업 경영의 일정부분 도움을 받은 유형 중 '경영관리 지도 또는 경영자문'의 비율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벤처기업의 벤처캐피탈 유형별 도움 정도는 '은행금융 기관 알선'이 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영관리 지도 또는 경영자문'이 3.8점, '기술정보 제공'이 3.7점으로 나타남

<그림 2-8-3> 벤처캐피탈 도움 정도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1,84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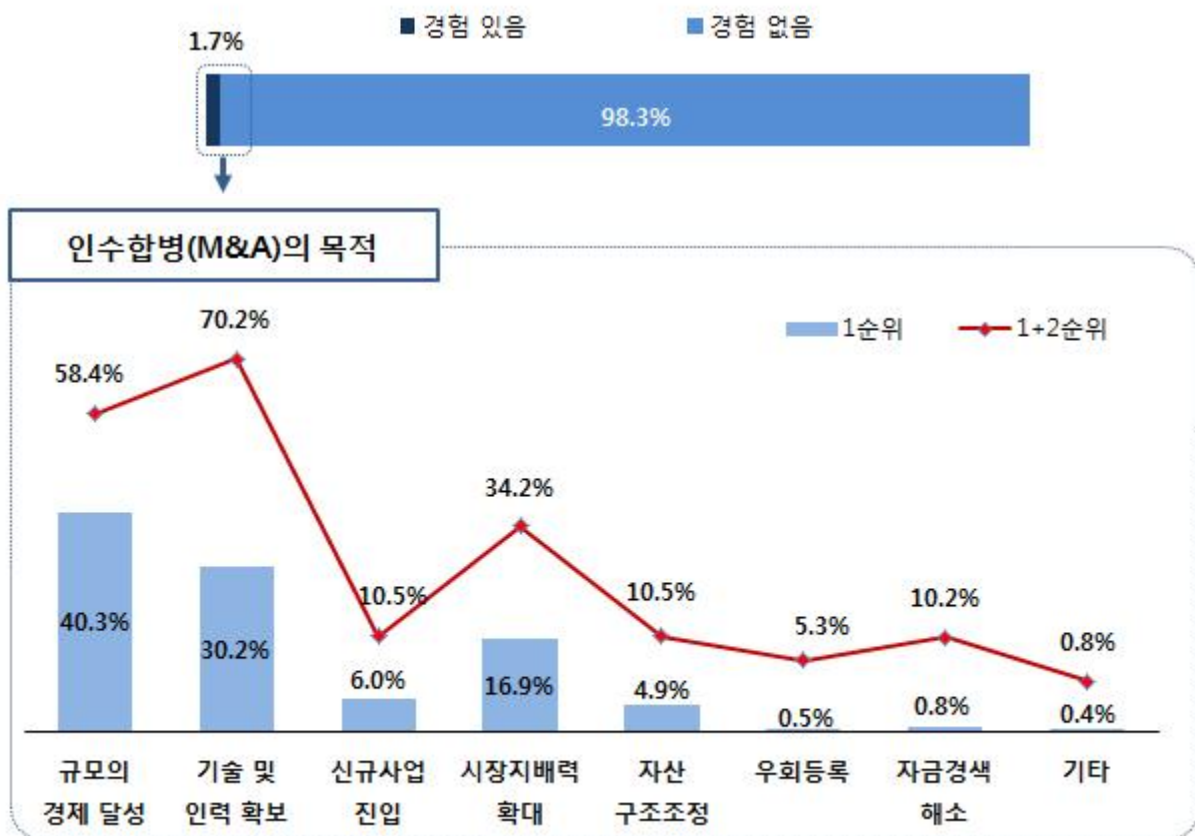
* 상위 응답률 : 다소 도움이 됨 + 큰 도움이 됨

3. 인수합병 현황

□ 인수합병 경험 및 목적

- 벤처기업의 1.7%가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목적을 2순위까지 살펴본 결과, '기술 및 인력 확보'가 70.2%로 가장 많고, '규모의 경제 달성' 58.4%, '시장지배력 확대' 3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8-4> 인수합병(M&A) 경험 및 목적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인수합병 경험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료/섬유/(비)금속이 2.4%임(기타 제외)
- 종사자 규모는 100인 이상 기업의 인수합병(M&A) 경험이 8.4%로 타 규모보다 높게 나타남

<표 2-8-2> 인수합병(M&A) 경험

구 분		모집단 크기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 체		(35,187)	1.7%	98.3%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0.1%	99.9%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0.4%	99.6%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0.3%	99.7%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2.4%	97.6%
		기계/제조/자동차	(8,952)	0.2%	99.8%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1.5%	98.5%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0.8%	99.2%
기타	기타	(4,762)	6.2%	93.8%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2.0%	98.0%	
	10~29인	(11,296)	0.9%	99.1%	
	30~49인	(2,560)	0.7%	99.3%	
	50~99인	(1,725)	2.0%	98.0%	
	100인 이상	(924)	8.4%	91.6%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1.3%	98.7%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1.6%	98.4%	
	부산/경남/울산	(4,353)	4.6%	95.4%	
	대구/경북	(3,330)	1.4%	98.6%	
	광주/전라/제주	(2,161)	-	100.0%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	100.0%	
	초기성장기	(6,715)	1.1%	98.9%	
	고도성장기	(18,251)	1.7%	98.3%	
	성숙기	(9,735)	2.2%	97.8%	
	쇠퇴기	(82)	-	100.0%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2.7%	97.3%	
	4~10년	(18,012)	1.5%	98.5%	
	11~20년	(12,115)	2.0%	98.0%	
	21년 이상	(2,882)	1.1%	98.9%	

특성별 분석

-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인수합병 목적을 2순위까지 살펴본 결과, 에너지/의료/정밀은 '기술 및 인력 확보'(100.0%)와 '시장 지배력 확대'(100.0%)의 목적이 타 업종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이상의 벤처기업은 '신규 사업 진입'(55.3%)과 '시장 지배력 확대'(47.2%)의 목적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2-8-3> 인수합병(M&A) 목적(1+2순위)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기업 603개>

구분		모집단 크기	규모의 경제 달성	기술 및 인력 확보	신규 사업 진입	시장 지배력 확대	자산 구조 조정	우회 등록	자금 경색 해소	기타	
전체		(603)	58.4%	70.2%	10.5%	34.2%	10.5%	5.3%	10.2%	0.8%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	-	100.0%	-	100.0%	-	-	-	-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6)	14.3%	42.9%	42.9%	42.9%	28.6%	-	14.3%	14.3%
		통신기기/방송기기	(4)	32.4%	67.6%	32.4%	67.6%	-	-	-	-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194)	54.2%	70.3%	6.4%	27.2%	1.3%	14.8%	25.8%	-
		기계/제조/자동차	(15)	42.5%	57.5%	19.2%	61.7%	19.2%	-	-	-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58)	71.1%	69.2%	30.8%	17.8%	5.6%	5.6%	-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0)	35.3%	77.9%	64.7%	22.1%	-	-	-	-
기타	기타	(296)	64.0%	71.7%	3.3%	40.0%	17.0%	-	3.1%	0.8%	
종사자 규모	1~9인	(372)	76.6%	76.6%	-	33.3%	-	-	13.5%	-	
	10~29인	(101)	26.3%	77.3%	-	22.7%	45.3%	28.4%	-	-	
	30~49인	(18)	30.4%	100.0%	30.4%	39.2%	-	-	-	-	
	50~99인	(35)	45.8%	27.7%	42.0%	44.7%	13.2%	-	26.5%	-	
	100인 이상	(78)	24.8%	42.9%	55.3%	47.2%	16.8%	4.1%	2.9%	6.0%	
지역	서울/인천/경기	(222)	58.6%	61.2%	18.2%	53.0%	3.4%	1.4%	2.1%	2.1%	
	대전/세종/충청/강원	(137)	57.4%	91.4%	14.8%	5.0%	5.5%	20.9%	5.0%	-	
	부산/경남/울산	(198)	50.5%	63.3%	-	38.0%	23.0%	-	25.2%	-	
	대구/경북	(46)	94.3%	80.6%	5.7%	13.7%	5.7%	-	-	-	
	광주/전라/제주	-	-	-	-	-	-	-	-	-	
성장 단계	창업기	-	-	-	-	-	-	-	-	-	
	초기성장기	(71)	9.3%	91.3%	5.3%	16.7%	3.7%	-	70.4%	3.4%	
	고도성장기	(318)	67.7%	69.8%	10.1%	40.5%	10.3%	-	1.5%	-	
	성숙기	(215)	60.8%	63.8%	12.7%	30.6%	13.0%	14.8%	3.2%	1.0%	
	쇠퇴기	-	-	-	-	-	-	-	-	-	
업력	창업 3년 이하	(59)	1.9%	89.4%	6.4%	8.2%	4.5%	-	85.4%	4.2%	
	4~10년	(273)	72.3%	74.7%	2.7%	40.3%	9.2%	-	-	0.8%	
	11~20년	(239)	57.2%	66.0%	17.1%	29.6%	14.0%	13.3%	2.9%	-	
	21년 이상	(32)	52.0%	29.2%	34.0%	63.7%	6.8%	-	1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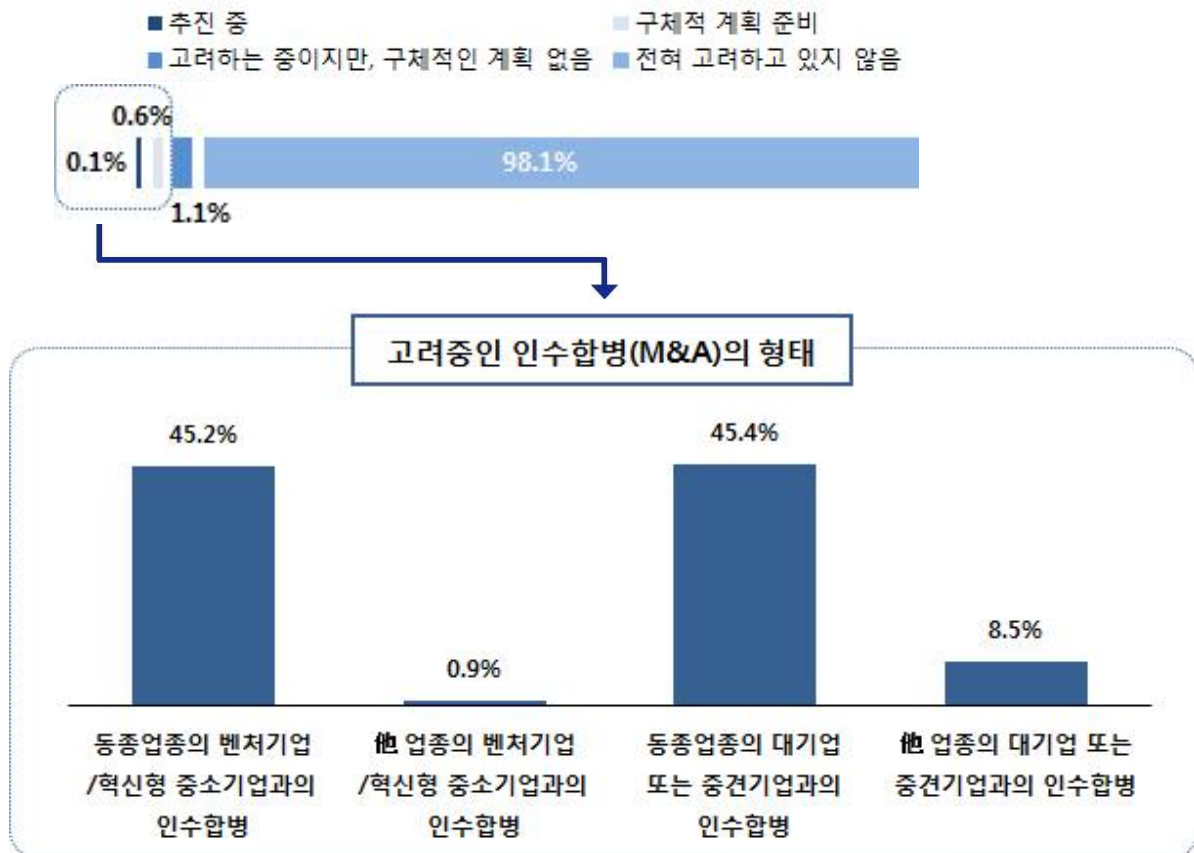
※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기업"의 응답으로 전체 수는 모집단(35,187개)과 다름

※ 모집단 추정을 위한 가중치는 업종×종사자규모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분석구분별 합은 전체 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인수합병 고려 수준

- 인수합병(M&A)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이 98.1%로 나타났으며, 이어 '고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1.1%, '구체적인 계획 준비' 0.6%, '추진 중' 0.1% 순으로 나타남
- 고려중인 인수합병의 형태로는 '동종업종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종업종의 벤처기업/혁신형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이 4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8-5> 인수합병(M&A) 고려 수준 및 형태



* '추진중', '구체적 계획 준비'에 응답한 경우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료/섬유/(비)금속은 '이미 추진 중에 있다' 비율이 0.6%로 타 업종에 비해 인수합병을 이미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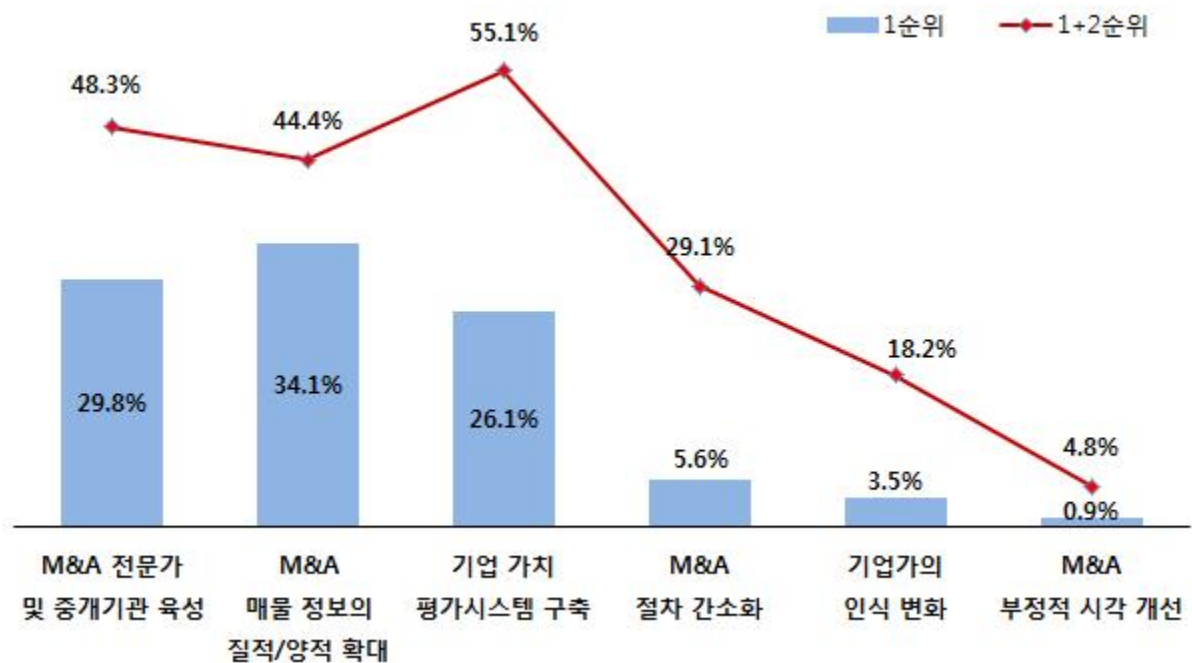
<표 2-8-4> 인수합병(M&A)의 고려 수준

구 분		모집단 크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추진 중에 있다	
전 체		(35,187)	98.1%	1.1%	0.6%	0.1%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100.0%	-	-	-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99.0%	0.7%	0.3%	-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100.0%	-	-	-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97.3%	1.4%	0.7%	0.6%
		기계/제조/자동차	(8,952)	98.3%	0.3%	1.4%	-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97.0%	3.0%	-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98.3%	1.7%	-	-
기타	기타	(4,762)	97.8%	1.6%	0.5%	0.1%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97.4%	1.7%	0.6%	0.3%	
	10~29인	(11,296)	99.1%	0.2%	0.8%	-	
	30~49인	(2,560)	99.5%	0.2%	0.3%	-	
	50~99인	(1,725)	97.8%	1.9%	0.2%	-	
	100인 이상	(924)	97.6%	1.8%	0.3%	0.3%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99.0%	0.6%	0.4%	0.0%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97.2%	2.1%	0.7%	-	
	부산/경남/울산	(4,353)	97.5%	2.5%	-	-	
	대구/경북	(3,330)	95.7%	0.2%	2.6%	1.5%	
	광주/전라/제주	(2,161)	100.0%	-	-	-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100.0%	-	-	-	
	초기성장기	(6,715)	97.9%	1.0%	0.3%	0.7%	
	고도성장기	(18,251)	98.3%	1.0%	0.6%	0.0%	
	성숙기	(9,735)	97.8%	1.3%	0.8%	-	
	쇠퇴기	(82)	100.0%	-	-	-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97.6%	2.4%	-	-	
	4~10년	(18,012)	98.1%	0.7%	0.9%	0.3%	
	11~20년	(12,115)	97.9%	1.7%	0.4%	-	
	21년 이상	(2,882)	99.6%	0.3%	0.1%	-	

4. 인수합병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을 2순위까지 꼽은 결과, '기업 가치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55.1%로 가장 높고, 'M&A 전문가 및 중개기관 육성' 48.3%, 'M&A 매물정보의 질적/양적 확대' 44.4%, 'M&A 절차 간소화' 2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8-6> 인수합병(M&A)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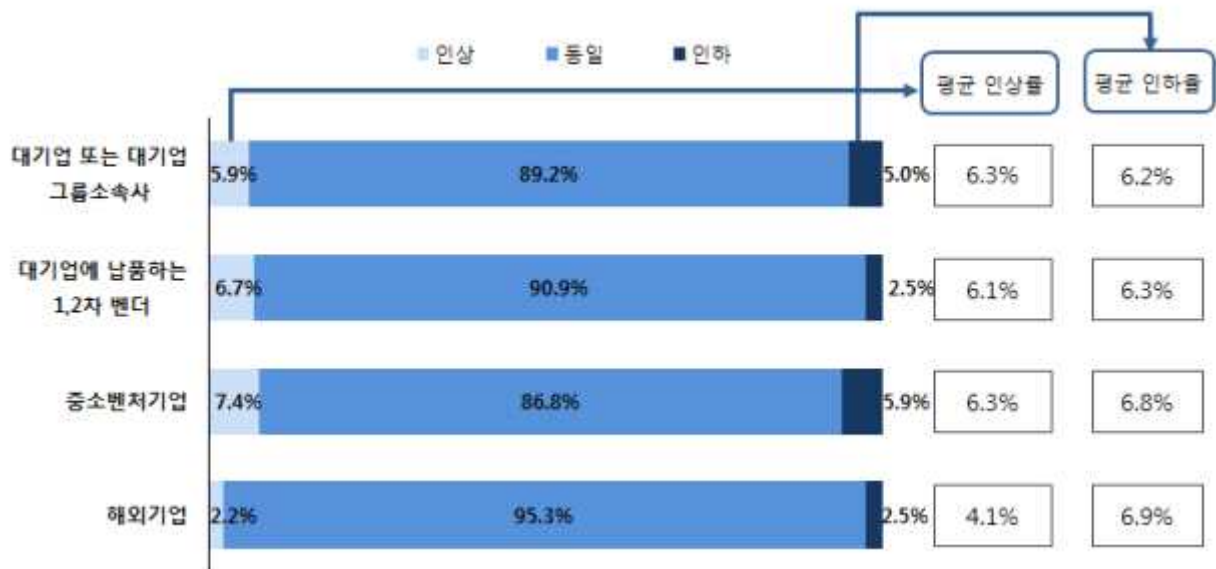


제9절. 공정거래 질서 현황

1. 거래처별 납품단가 변동현황¹¹⁾

- 벤처기업의 거래처별 납품단가 변동현황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납품단가가 인상된 경우는 '중소벤처기업'이 7.4%로 가장 높고, 인하된 경우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5.9%로 높게 나타남
- 평균 인상률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와 '중소벤처기업'이 각 6.3%로 가장 높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6.1%, '해외기업' 4.1% 순임
- 평균 인하율은 '해외기업'이 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 6.8%,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6.3%,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 6.2%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1> 거래처별 납품단가 변동현황



11) 단가 변동폭(%)=((2017년도 단가 - 2016년도 단가)/2016년도 단가)x100
 평균 인상률 및 인하율 : 무응답 제외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에서 '중소벤처기업'과 거래 시 평균 인상률 20.0%로 타 업종 대비 높으며, 인하율 또한 17.4%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30~49인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와 거래 시 평균 인상률이 8.7%로 타 종사자 규모 및 다른 기업군과의 거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인하율은 4.7%로 타 종사자 규모보다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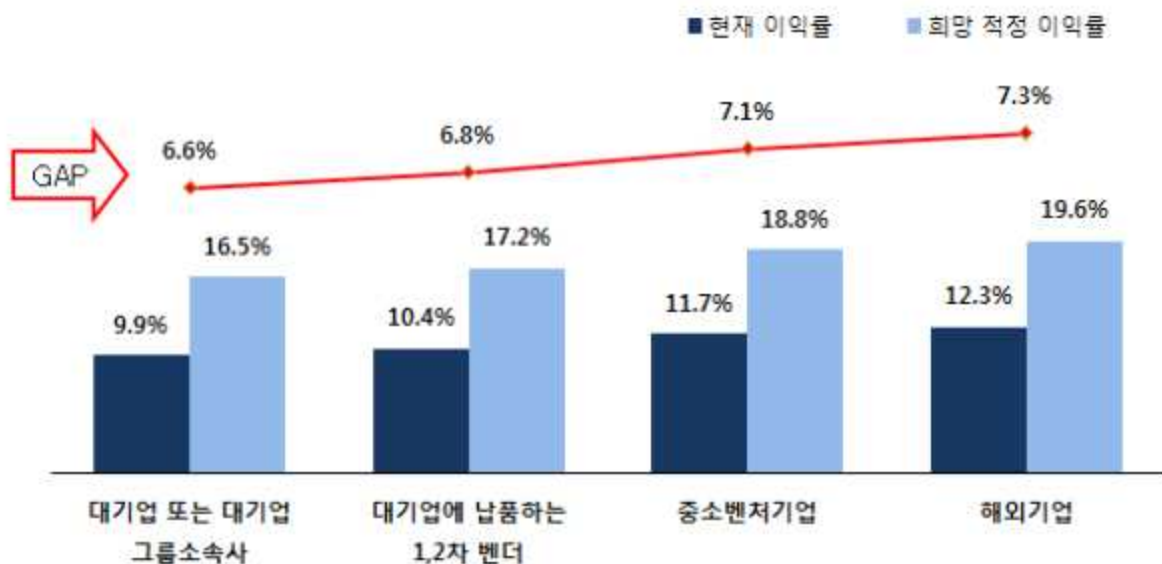
<표 2-9-1> 거래처별 평균 인상률 및 인하율

구 분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 소속사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중소벤처기업		해외기업	
			인상률	인하율	인상률	인하율	인상률	인하율	인상률	인하율
전 체			6.3%	6.2%	6.1%	6.3%	6.3%	6.8%	4.1%	6.9%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6.0%	5.0%	6.0%	-	5.8%	3.6%	3.0%	8.6%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4.0%	7.0%	3.0%	4.8%	4.5%	8.5%	2.8%	10.6%
		통신기기/방송기기	-	11.4%	6.0%	9.6%	3.6%	6.1%	-	8.9%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7.1%	5.6%	6.3%	3.0%	5.9%	6.6%	3.5%	3.9%
		기계/제조/자동차	6.5%	2.8%	7.2%	4.7%	4.6%	5.0%	4.9%	4.1%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7.8%	6.0%	-	4.6%	5.7%	5.6%	-	6.0%
	정보통신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1%	3.4%	4.5%	10.0%	20.0%	17.4%	-	3.7%
기타	기타	5.0%	5.8%	3.3%	5.8%	6.3%	6.0%	-	5.8%	
종사자 규모	1~9인		5.4%	6.5%	6.5%	5.6%	6.9%	6.7%	3.0%	10.0%
	10~29인		7.8%	7.6%	4.7%	10.0%	6.0%	7.9%	3.9%	9.0%
	30~49인		6.1%	4.1%	8.7%	4.7%	5.5%	4.6%	5.4%	3.2%
	50~99인		4.7%	6.4%	2.9%	5.2%	4.5%	5.1%	3.5%	5.0%
	100인 이상		4.5%	4.9%	2.5%	6.1%	4.0%	4.6%	2.9%	6.2%
지역	서울/인천/경기		7.2%	7.4%	6.9%	4.4%	7.3%	6.3%	4.7%	7.6%
	대전/세종/충청/강원		2.6%	6.9%	5.9%	6.1%	5.8%	7.0%	3.0%	4.1%
	부산/경남/울산		8.7%	2.9%	7.9%	9.4%	5.7%	6.5%	3.0%	9.3%
	대구/경북		6.2%	4.1%	4.0%	-	6.2%	10.0%	7.1%	3.0%
	광주/전라/제주		3.2%	-	2.3%	-	3.9%	6.7%	3.1%	3.6%
성장 단계	창업기		-	-	-	-	-	11.0%	-	-
	초기성장기		9.3%	8.7%	5.1%	10.0%	10.0%	4.6%	4.9%	-
	고도성장기		5.9%	3.9%	4.8%	5.4%	5.2%	6.4%	3.6%	6.6%
	성숙기		4.1%	6.5%	8.4%	7.5%	5.0%	8.5%	4.4%	7.4%
	쇠퇴기		-	-	-	-	-	-	-	-
업력	창업 3년 이하		-	9.3%	2.0%	8.0%	5.0%	6.4%	-	10.0%
	4~10년		6.3%	4.1%	4.7%	6.2%	6.7%	6.6%	4.4%	8.8%
	11~20년		6.9%	6.8%	5.9%	6.9%	6.1%	5.8%	2.5%	5.8%
	21년 이상		4.6%	8.1%	11.7%	4.4%	5.3%	14.0%	5.1%	5.0%

2. 현재 이익률 및 희망 적정이익률

- 매출처별 현재 이익률¹²⁾은 '해외기업'이 1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 11.7%,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10.4%,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 9.9%의 순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이 희망하는 거래처별 적정이익률은 '해외기업'이 1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 18.8%,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17.2%,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 16.5%의 순임
- 현재 이익률과 희망 적정이익률과의 차이(Gap)는 '해외기업'이 7.3%p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벤처기업'이 7.1%p,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6.8%p,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 6.6%p로 나타남

<그림 2-9-2> 거래처별 현재 이익률 및 희망 적정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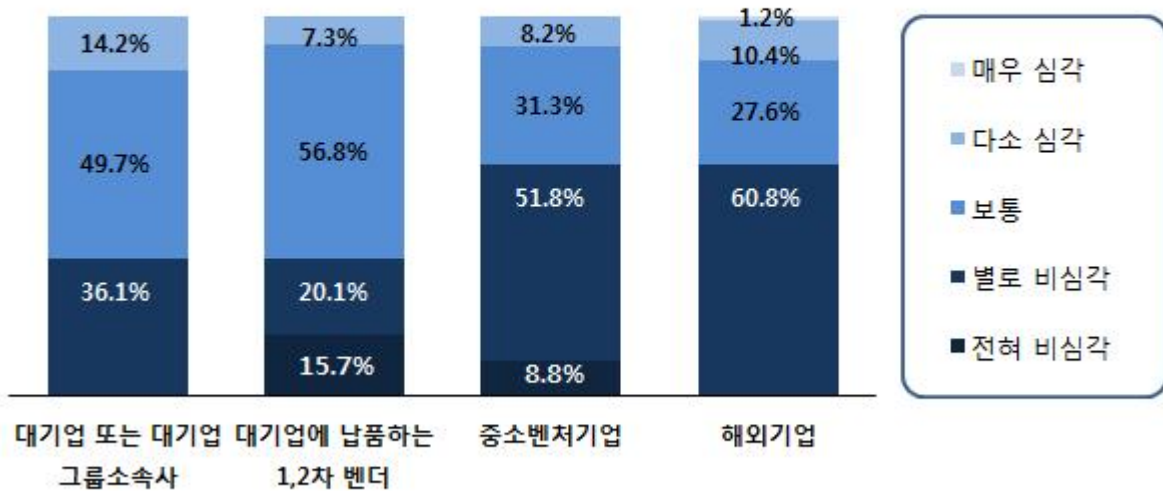


12) 이익률(%)=(이익/판매가)×100

3.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및 심각성 정도

- 거래처별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와 거래 시 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가 4.1%, '중소벤처기업' 3.9%, '해외기업' 2.0% 순임
- 불공정거래 심각성 정도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 소속사'와 거래 시 1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해외기업'이 11.6%, '중소벤처기업' 8.2%,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7.3%의 순으로 나타남(상위 응답률)

<그림 2-9-3>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및 심각성 정도



주)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기업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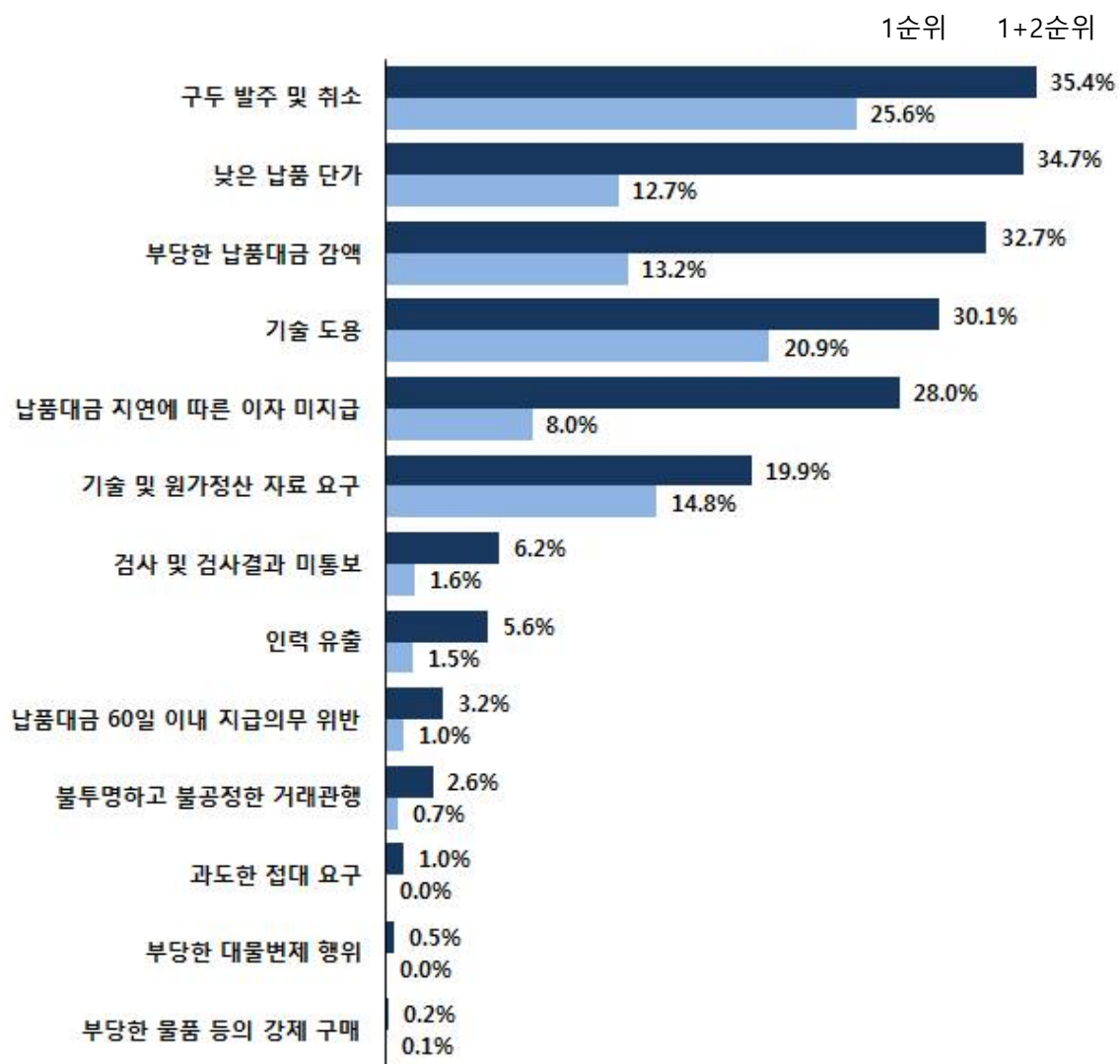
<표 2-9-2>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및 심각성 정도

구 분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중소벤처기업	해외기업
불공정거래 경험	5.3%	4.1%	3.9%	2.0%
5점 척도	2.8점	2.6점	2.4점	2.5점
상위응답자 (매우 심각+ 다소 심각)	14.2%	7.3%	8.2%	11.6%

4. 기업간 거래 시 애로사항

- 기업간 거래 시 애로사항을 2순위까지 살펴본 결과, '구두 발주 및 취소'가 3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낮은 납품 단가' 34.7%,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32.7%, '기술도용' 30.1%, '납품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미지급' 28.0%, '기술 및 원가정산 자료 요구'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4> 기업간 거래 시 애로사항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구두 발주 및 취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너지/의료/정밀(49.5%) 및 종사자 규모 50~99인(40.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9-3> 기업간 거래 시 애로사항(1+2순위)(계속)

구분		모집단 크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35,187)	35.4%	19.9%	30.1%	32.7%	5.6%	28.0%	6.2%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49.5%	17.9%	20.3%	27.3%	4.6%	22.4%	16.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44.6%	18.1%	25.7%	33.9%	6.8%	24.6%	8.6%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44.2%	14.1%	37.7%	35.2%	6.2%	24.0%	3.1%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32.4%	18.7%	28.4%	34.4%	4.3%	31.2%	3.6%
		기계/제조/자동차	(8,952)	29.1%	20.1%	35.7%	32.2%	3.7%	36.6%	7.1%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38.6%	26.2%	33.4%	26.9%	9.6%	14.0%	4.9%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44.8%	23.4%	24.1%	31.2%	7.9%	27.4%	6.0%
기타	기타	(4,762)	28.6%	18.7%	28.8%	36.9%	6.1%	24.0%	4.3%	
종사자규모	1~9인	(18,682)	34.9%	18.3%	31.9%	33.2%	4.7%	31.6%	6.1%	
	10~29인	(11,296)	35.3%	21.3%	27.4%	33.3%	6.3%	23.2%	6.6%	
	30~49인	(2,560)	34.5%	23.3%	30.8%	30.0%	7.1%	26.0%	6.5%	
	50~99인	(1,725)	40.1%	23.1%	31.1%	29.1%	6.5%	25.2%	4.5%	
	100인 이상	(924)	40.0%	18.7%	20.5%	27.6%	7.7%	22.5%	6.4%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34.2%	19.7%	31.0%	32.7%	5.4%	28.3%	5.4%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35.5%	24.0%	27.6%	33.5%	5.9%	27.8%	7.6%	
	부산/경남/울산	(4,353)	47.1%	14.7%	19.9%	30.9%	6.3%	28.5%	5.7%	
	대구/경북	(3,330)	26.3%	17.4%	40.6%	37.8%	6.1%	23.6%	6.3%	
	광주/전라/제주	(2,161)	34.7%	19.5%	36.5%	24.9%	3.4%	31.7%	8.9%	
성장단계	창업기	(403)	18.0%	15.8%	29.7%	22.8%	13.7%	57.1%	-	
	초기성장기	(6,715)	39.5%	14.3%	29.7%	38.3%	3.5%	28.7%	5.2%	
	고도성장기	(18,251)	35.2%	22.1%	30.1%	30.8%	6.1%	27.5%	6.0%	
	성숙기	(9,735)	33.4%	19.8%	30.3%	32.8%	5.5%	27.3%	7.6%	
	쇠퇴기	(82)	73.8%	6.0%	20.5%	12.8%	3.0%	5.7%	6.9%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34.1%	14.9%	28.0%	36.1%	4.1%	39.6%	3.1%	
	4~10년	(18,012)	36.5%	20.2%	31.7%	30.1%	5.7%	27.8%	5.8%	
	11~20년	(12,115)	34.1%	21.3%	27.1%	33.0%	5.8%	26.9%	7.0%	
	21년 이상	(2,882)	34.8%	15.8%	34.1%	44.6%	4.3%	24.6%	7.8%	

① 구두 발주 및 취소, ② 기술 및 원가정산 자료 요구, ③ 기술 도용, ④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⑤ 인력 유출
 ⑥ 납품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미지급, ⑦ 검사 및 검사결과 미통보

<표 2-9-3> 기업간 거래 시 애로사항(1+2순위)

구 분		모집단 크기	⑧	⑨	⑩	⑪	⑫	⑬	
전 체		(35,187)	34.7%	2.6%	1.0%	0.2%	0.5%	3.2%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28.3%	3.3%	-	-	-	9.9%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32.3%	1.4%	0.5%	0.1%	0.9%	2.7%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29.0%	4.0%	0.5%	-	-	2.0%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43.7%	0.9%	0.7%	-	0.7%	1.0%
		기계/제조/자동차	(8,952)	30.0%	1.6%	0.6%	0.4%	0.1%	2.9%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35.9%	5.7%	2.9%	-	0.1%	1.7%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22.3%	7.5%	3.1%	-	-	2.3%
기타	기타	(4,762)	40.4%	2.6%	0.5%	0.9%	1.7%	6.5%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32.5%	1.9%	1.2%	0.2%	0.8%	2.5%	
	10~29인	(11,296)	36.9%	4.0%	0.7%	0.3%	-	4.6%	
	30~49인	(2,560)	37.4%	1.6%	1.2%	-	0.4%	1.2%	
	50~99인	(1,725)	34.1%	2.1%	-	0.3%	0.6%	3.2%	
	100인 이상	(924)	46.5%	2.7%	1.2%	0.2%	1.1%	4.8%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35.6%	2.0%	1.1%	0.3%	1.0%	3.4%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31.9%	2.4%	0.7%	0.4%	0.1%	3.0%	
	부산/경남/울산	(4,353)	34.7%	5.9%	1.0%	-	0.1%	5.3%	
	대구/경북	(3,330)	35.7%	3.2%	1.8%	-	0.1%	1.1%	
	광주/전라/제주	(2,161)	38.4%	0.5%	-	-	-	1.5%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42.9%	-	-	-	-	-	
	초기성장기	(6,715)	34.5%	3.1%	0.3%	-	-	2.8%	
	고도성장기	(18,251)	34.1%	2.0%	1.6%	0.4%	0.6%	3.4%	
	성숙기	(9,735)	35.5%	3.4%	0.2%	-	0.8%	3.3%	
	쇠퇴기	(82)	63.9%	1.4%	-	-	-	6.0%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35.3%	1.5%	0.2%	-	-	3.1%	
	4~10년	(18,012)	34.4%	3.1%	1.1%	0.2%	0.4%	2.9%	
	11~20년	(12,115)	36.6%	1.9%	1.2%	0.3%	0.8%	4.1%	
	21년 이상	(2,882)	28.6%	3.6%	0.0%	-	0.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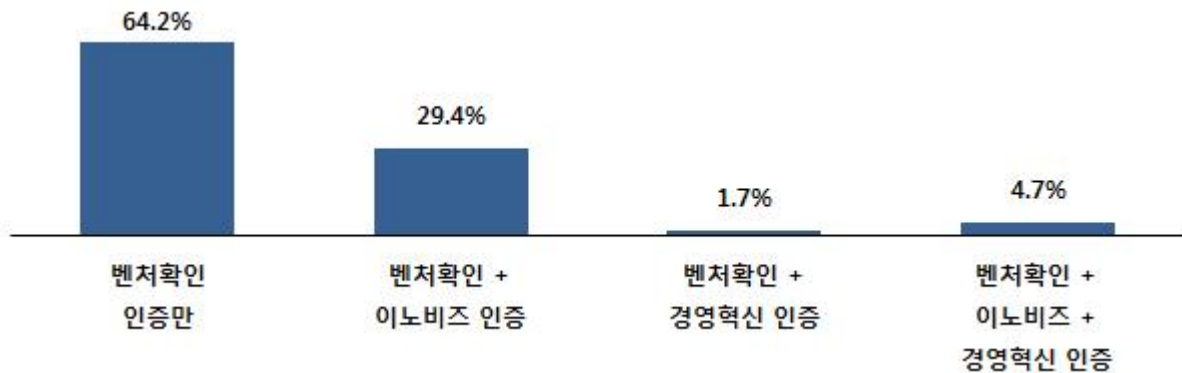
⑧ 낮은 납품 단가, ⑨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⑩ 과도한 접대 요구, ⑪ 부당한 물품 등의 강제 구매
 ⑫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⑬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의무 위반

제10절. 지원제도 및 교육, 경영애로사항

1. 인증제도 유형별 현황

- 벤처기업이 보유한 인증제도 유형별 현황은 ‘벤처확인인증’만 받은 기업이 64.2%이며, 다음으로 ‘벤처확인+이노비즈’를 함께 받은 기업 29.4%, ‘벤처확인+이노비즈+경영혁신’ 모두 인증을 받은 기업이 4.7%, ‘벤처확인+경영혁신’을 함께 받은 기업 1.7%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0-1> 인증제도 유형별 현황



- 인증제도 유형별 확인방법은 대부분 자체 해결이 높게 나타남

<그림 2-10-2> 인증제도 확인 방법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기계/제조/자동차에서 '벤처확인+이노비즈 인증(35.9%)'을 함께 받은 비율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신기기/방송기기에서는 '벤처확인+이노비즈+경영혁신(8.3%)' 모두 받은 비율이 높게 조사됨
- 종사자규모가 작을수록, '벤처확인'만 인증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규모가 클수록 '벤처+이노비즈', '벤처+경영혁신인증'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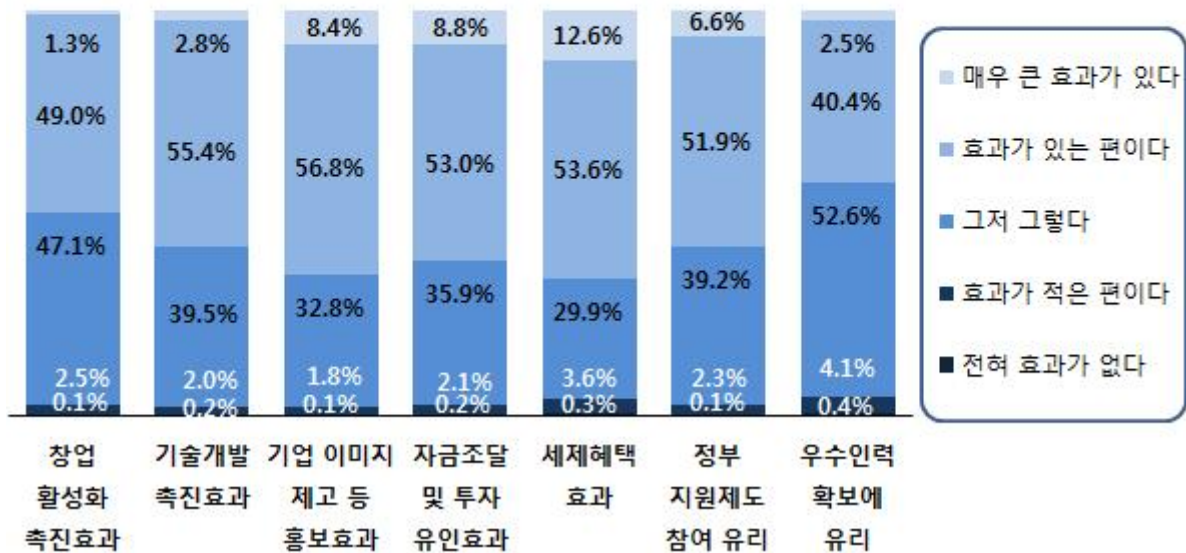
<표 2-10-1> 인증제도 유형별 현황

구분		모집단 크기	벤처확인 인증만	벤처확인 + 이노비즈 인증	벤처확인 + 경영혁신 인증	벤처확인 + 이노비즈 + 경영혁신 인증	
전체		(35,187)	64.2%	29.4%	1.7%	4.7%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59.0%	34.9%	1.0%	5.0%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66.6%	24.2%	3.5%	5.7%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56.2%	32.5%	3.1%	8.3%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65.0%	29.6%	1.6%	3.8%
		기계/제조/자동차	(8,952)	56.4%	35.9%	2.4%	5.4%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67.1%	30.1%	0.3%	2.6%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76.2%	19.1%	1.5%	3.2%
기타	기타	(4,762)	72.3%	21.7%	0.4%	5.6%	
종사자규모	1~9인	(18,682)	81.4%	16.1%	1.4%	1.1%	
	10~29인	(11,296)	51.3%	40.1%	1.6%	7.0%	
	30~49인	(2,560)	33.4%	50.9%	2.9%	12.7%	
	50~99인	(1,725)	30.2%	54.2%	2.9%	12.7%	
	100인 이상	(924)	23.8%	60.9%	3.1%	12.2%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62.6%	31.3%	1.2%	5.0%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68.0%	23.2%	3.9%	5.0%	
	부산/경남/울산	(4,353)	62.7%	33.8%	0.5%	3.0%	
	대구/경북	(3,330)	65.4%	28.1%	0.7%	5.8%	
	광주/전라/제주	(2,161)	63.4%	32.1%	0.8%	3.6%	
성장단계	창업기	(403)	81.8%	18.2%	-	-	
	초기성장기	(6,715)	84.1%	11.4%	2.3%	2.2%	
	고도성장기	(18,251)	67.8%	26.2%	1.5%	4.6%	
	성숙기	(9,735)	43.2%	48.2%	1.7%	6.9%	
	쇠퇴기	(82)	62.0%	26.1%	8.5%	3.5%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97.3%	2.4%	-	0.3%	
	4~10년	(18,012)	76.5%	19.5%	1.9%	2.1%	
	11~20년	(12,115)	48.2%	41.7%	1.7%	8.3%	
	21년 이상	(2,882)	30.0%	59.1%	1.4%	9.5%	

2.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효과성 평가

-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효과성은 '세제 혜택 효과'가 6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등 홍보효과'가 65.2%, '자금조달 및 투자 유인효과' 61.8%, '정부 지원제도 참여 유리' 58.5%, '기술개발 촉진효과' 5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상위 응답률)

<그림 2-10-3>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효과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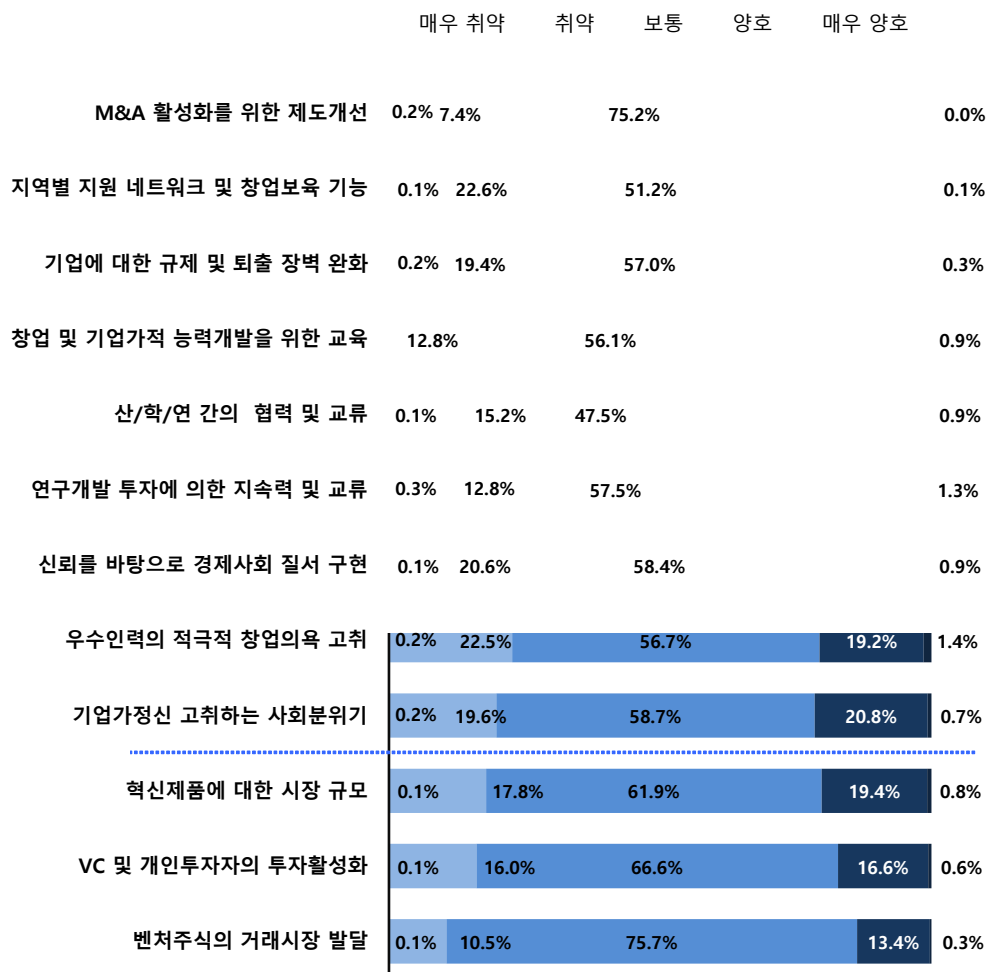


<표 2-10-2>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효과성 평가

구분	창업 활성화 촉진효과	기술개발 촉진효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홍보효과	자금조달 및 투자 유인효과	세제혜택 효과	정부 지원제도 참여유리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
5점 척도	3.5점	3.6점	3.7점	3.7점	3.7점	3.6점	3.4점
상위응답률 (매우 큰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는 편이다)	50.3%	58.2%	65.2%	61.8%	66.2%	58.5%	42.9%

3. 벤처 인프라 수준

- 벤처기업에서 생각하는 벤처 인프라 수준은 전반적으로 평균 3.0~3.2점 수준이며, 특히 '과학기술/교육분야' 인프라가 타 분야 인프라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산/학/연 간의 협력 및 교류'가 3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창업 및 기업가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31.1%,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지속력 및 교류' 2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M&A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17.1%)은 다른 분야 인프라 수준 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상위 응답률)



<표 2-10-3> 벤처 인프라 수준(계속)

구분	법/제도			과학기술/교육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역별 지원 네트워크 및 창업보육 기능	기업에 대한 규제 및 퇴출 장벽 완화	창업 및 기업가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산/학/연 간의 협력 및 교류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지속력 및 교류
5점 척도	3.1점	3.0점	3.0점	3.2점	3.2점	3.2점
상위응답률 (매우 양호+양호)	17.1%	26.1%	23.4%	31.1%	37.2%	29.5%

<표 2-10-3> 벤처 인프라 수준

구분	사회/문화			경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 사회질서 구현	우수인력의 적극적 창업의욕 고취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사회분위기	혁신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	VC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활성화	벤처주식의 거래시장 발달
5점 척도	3.0점	3.0점	3.0점	3.0점	3.0점	3.0점
상위응답률 (매우 양호+양호)	20.9%	20.6%	21.5%	20.2%	17.2%	13.7%

4. 교육 및 훈련

□ 교육·훈련에 대한 성향

- 교육·훈련에 대한 벤처기업의 성향은 적극적이라는 의견이 17.4%(매우 적극적 0.4%+적극적 17.0%), 비적극적이라는 의견은 2.6%(비적극적 2.6%+전혀 비적극적 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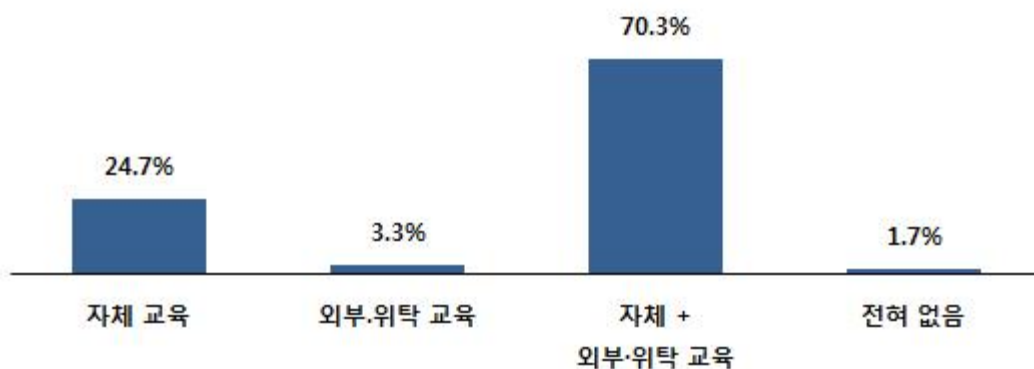
<그림 2-10-5> 교육·훈련에 대한 성향



□ 교육방법

- 벤처기업에서 시행되는 교육방법은 '자체+외부·위탁교육'이 7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체교육' 24.7%, '외부·위탁교육' 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0-6> 교육방법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자체+외부·위탁교육' 방법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항목 외에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체 교육'은 기계/제조/자동차에서 높고, '외부·위탁 교육'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이 높게 나타남(기타제외)
- 종사자 규모가 1~9인 벤처기업에서는 '자체 교육'(29.2%)과 '외부·위탁교육'(3.8%)의 비율이 타 규모 대비 높은 반면, 30~49인 기업은 '자체+외부·위탁교육'이 86.7%로 높게 나타남

<표 2-10-4> 교육방법

구분		모집단 크기	자체 교육	외부·위탁 교육	자체 + 외부·위탁 교육	전혀 없음	
전체		(35,187)	24.7%	3.3%	70.3%	1.7%	
업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18.4%	3.5%	76.6%	1.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26.2%	4.0%	67.6%	2.2%
	일반제조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19.0%	2.4%	78.6%	-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24.5%	3.3%	70.6%	1.6%
		기계/제조/자동차	(8,952)	30.0%	2.5%	67.4%	-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24.0%	2.2%	72.2%	1.6%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27.1%	0.1%	69.3%	3.5%
기타	기타	(4,762)	18.0%	6.6%	71.0%	4.4%	
종사자 규모	1~9인	(18,682)	29.2%	3.8%	64.3%	2.7%	
	10~29인	(11,296)	23.4%	2.8%	73.1%	0.8%	
	30~49인	(2,560)	10.9%	2.5%	86.7%	-	
	50~99인	(1,725)	12.8%	1.8%	85.1%	0.3%	
	100인 이상	(924)	10.2%	3.6%	86.2%	-	
지역	서울/인천/경기	(16,798)	21.6%	4.1%	71.2%	3.1%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28.6%	1.7%	69.3%	0.4%	
	부산/경남/울산	(4,353)	23.5%	2.9%	73.6%	-	
	대구/경북	(3,330)	29.2%	4.3%	66.5%	-	
	광주/전라/제주	(2,161)	28.9%	2.8%	66.8%	1.5%	
성장단계	창업기	(403)	27.4%	5.5%	67.1%	-	
	초기성장기	(6,715)	26.1%	2.4%	69.4%	2.2%	
	고도성장기	(18,251)	23.8%	3.8%	70.3%	2.1%	
	성숙기	(9,735)	25.3%	2.9%	71.2%	0.6%	
	쇠퇴기	(82)	26.4%	-	67.6%	6.0%	
업력	창업 3년 이하	(2,178)	19.3%	7.6%	70.2%	3.0%	
	4~10년	(18,012)	28.9%	3.2%	65.7%	2.2%	
	11~20년	(12,115)	19.4%	3.0%	76.5%	1.1%	
	21년 이상	(2,882)	25.1%	1.4%	73.3%	0.2%	

5. 현재 필요교육

- 벤처기업이 현재 필요로 하는 교육은 '기술사업화 교육'이 3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 트렌드 교육' 24.7%, '영업/마케팅 교육' 16.9%, '생산/품질관리 교육' 6.0%, 'CEO 및 임원 교육' 4.6%, '인사/조직관리 교육' 4.5%, '신입사원 역량강화 교육' 4.1%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10-7> 현재 필요교육

<복수응답>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산업 트렌드 교육'(28.9%)에 대한 요구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신기기/방송기기 업종은 '영업/마케팅 교육'(20.8%)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종사자규모별로 1~9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현재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으로 '기술사업화 교육'(34.1%)을 가장 높게 응답함

<표 2-10-5> 현재 필요교육(계속)

<복수응답>

구 분		모집단 크기	CEO 및 임원 교육	산업 트렌드 교육	기술 사업화 교육	인사/조직관리 교육	영업/마케팅 교육	
전 체		(35,187)	4.6%	24.7%	32.4%	4.5%	16.9%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6.8%	22.6%	29.2%	0.8%	16.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6.6%	22.7%	31.0%	6.8%	13.9%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3.3%	21.9%	31.0%	3.3%	20.8%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3.9%	26.8%	31.5%	3.6%	19.9%
		기계/제조/자동차	(8,952)	5.0%	22.6%	33.9%	5.1%	15.2%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3.4%	28.9%	30.5%	4.0%	15.3%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5.6%	24.5%	30.4%	3.4%	20.4%
기타	기타	(4,762)	2.9%	24.7%	36.8%	6.0%	15.6%	
종사자 규모	1~9인	(18,682)	5.2%	27.3%	34.1%	3.7%	16.0%	
	10~29인	(11,296)	4.0%	21.0%	30.2%	5.8%	17.6%	
	30~49인	(2,560)	3.4%	24.0%	30.5%	4.5%	19.1%	
	50~99인	(1,725)	3.8%	22.5%	33.7%	3.0%	18.0%	
	100인 이상	(924)	3.0%	23.9%	29.5%	4.8%	17.1%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4.6%	23.1%	32.3%	5.3%	18.0%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4.3%	27.2%	30.6%	4.4%	15.8%	
	부산/경남/울산	(4,353)	3.5%	29.2%	35.0%	2.7%	16.5%	
	대구/경북	(3,330)	6.1%	23.4%	30.4%	3.9%	17.9%	
	광주/전라/제주	(2,161)	5.4%	19.6%	38.6%	3.2%	11.6%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2.8%	16.4%	24.1%	-	36.3%	
	초기성장기	(6,715)	4.5%	26.2%	31.9%	4.3%	14.3%	
	고도성장기	(18,251)	5.5%	23.3%	32.9%	4.9%	17.5%	
	성숙기	(9,735)	3.1%	26.5%	32.3%	3.9%	16.6%	
	쇠퇴기	(82)	-	25.8%	26.9%	6.7%	9.6%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3.9%	28.2%	28.2%	3.2%	18.6%	
	4~10년	(18,012)	4.4%	24.4%	32.3%	4.3%	17.3%	
	11~20년	(12,115)	5.4%	24.3%	32.8%	4.9%	16.2%	
	21년 이상	(2,882)	2.9%	25.3%	34.4%	4.7%	15.4%	

<표 2-10-5> 현재 필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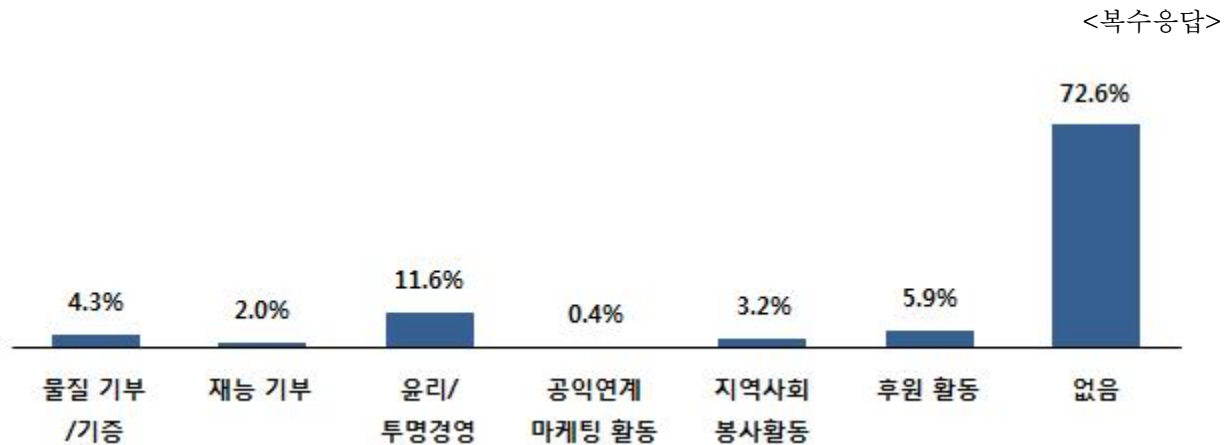
<복수응답>

구 분		모집단 크기	유통/물류관리 교육	재무관리 교육	생산/품질관리 교육	신입사원 역량강화 교육	중간 관리자 교육훈련	기타	
전 체		(35,187)	3.6%	1.6%	6.0%	4.1%	1.7%	0.0%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1.9%	1.0%	11.9%	6.5%	2.5%	-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3.2%	2.8%	7.8%	4.6%	0.6%	-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4.9%	1.2%	8.8%	3.8%	1.0%	-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4.0%	1.2%	6.4%	1.3%	1.2%	0.2%
		기계/제조/자동차	(8,952)	5.8%	2.2%	6.1%	2.8%	1.3%	-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2.4%	1.0%	4.2%	7.6%	2.6%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0.9%	1.6%	5.4%	7.6%	0.1%	-
기타	기타	(4,762)	2.1%	1.4%	1.7%	4.8%	4.0%	-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3.2%	1.5%	4.1%	3.5%	1.4%	-	
	10~29인	(11,296)	3.7%	1.9%	8.5%	4.7%	2.4%	0.1%	
	30~49인	(2,560)	4.9%	1.6%	7.3%	3.7%	1.0%	-	
	50~99인	(1,725)	4.6%	1.6%	6.5%	4.9%	1.2%	-	
	100인 이상	(924)	4.6%	1.7%	6.2%	6.7%	2.5%	-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3.8%	1.4%	5.2%	4.5%	1.9%	0.1%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4.5%	1.8%	6.0%	3.6%	1.8%	-	
	부산/경남/울산	(4,353)	1.2%	1.0%	5.2%	4.4%	1.3%	-	
	대구/경북	(3,330)	2.9%	2.7%	8.8%	2.7%	1.1%	-	
	광주/전라/제주	(2,161)	4.0%	2.3%	9.2%	4.1%	2.0%	-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	9.3%	4.1%	7.0%	-	-	
	초기성장기	(6,715)	3.5%	1.1%	5.6%	5.9%	2.6%	-	
	고도성장기	(18,251)	3.4%	1.5%	6.0%	3.7%	1.3%	0.1%	
	성숙기	(9,735)	4.2%	1.8%	6.2%	3.4%	2.0%	-	
	쇠퇴기	(82)	0.9%	3.0%	12.7%	8.2%	6.3%	-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7.1%	2.2%	3.9%	3.3%	1.4%	-	
	4~10년	(18,012)	3.6%	1.5%	5.7%	4.7%	1.8%	0.1%	
	11~20년	(12,115)	2.7%	1.6%	6.9%	3.5%	1.7%	-	
	21년 이상	(2,882)	4.8%	1.9%	5.5%	3.1%	1.8%	-	

6.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 참여

-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 참여는 '윤리/투명경영'이 1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후원활동' 5.9%, '물질 기부/기증' 4.3%, '지역사회 봉사활동' 3.2%, '재능기부' 2.0%,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 0.4%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 참여가 없는 기업은 72.6%임

<그림 2-10-8>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 참여



특성별 분석

- 대체로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 참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계/제조/자동차 업종이 81.5%로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윤리/투명경영'에 22.0%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예로, '후원활동'의 비율은 100인 이상 벤처기업이 13.8%, 1~9인 벤처기업은 3.9%로 나타남

<표 2-10-6>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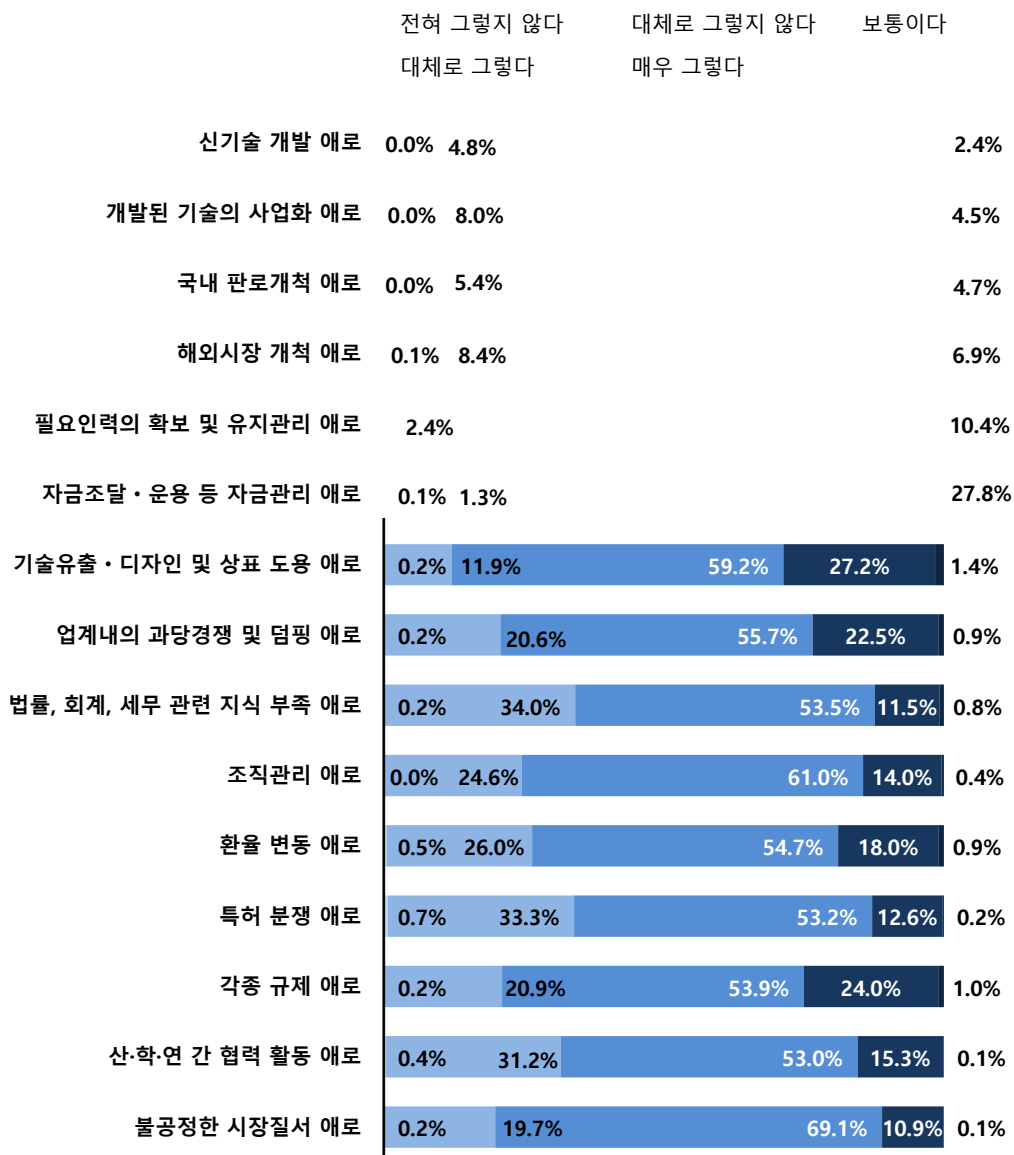
<복수응답>

구 분		모집단 크기	물질 기부/기증	재능 기부	윤리/투명 경영	공익 연계 마케팅 활동	지역 사회 봉사 활동	후원 활동	없음	
전 체		(35,187)	4.3%	2.0%	11.6%	0.4%	3.2%	5.9%	72.6%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3.0%	0.4%	19.8%	0.1%	2.0%	4.9%	69.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5.1%	1.0%	11.9%	0.1%	3.0%	4.7%	74.1%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3.9%	0.6%	14.3%	-	3.4%	5.9%	71.9%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4.0%	2.9%	6.1%	0.6%	5.4%	10.3%	70.6%
		기계/제조/자동차	(8,952)	4.5%	0.9%	7.2%	0.7%	2.0%	3.2%	81.5%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5.0%	4.3%	22.0%	0.1%	3.6%	3.8%	61.2%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1.5%	1.1%	20.3%	-	1.1%	3.2%	72.8%
기타	기타	(4,762)	5.6%	2.8%	11.3%	0.5%	3.1%	7.5%	69.3%	
종 사 자 규 모	1~9인	(18,682)	2.5%	2.2%	8.0%	0.6%	2.7%	3.9%	80.1%	
	10~29인	(11,296)	4.8%	2.0%	16.1%	0.2%	3.4%	6.1%	67.4%	
	30~49인	(2,560)	9.0%	0.8%	11.5%	-	3.4%	12.0%	63.3%	
	50~99인	(1,725)	10.4%	1.4%	9.7%	0.5%	5.0%	11.6%	61.5%	
	100인 이상	(924)	9.3%	1.8%	27.5%	0.4%	6.2%	13.8%	40.9%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4.5%	2.2%	12.3%	0.4%	2.4%	5.4%	72.7%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4.8%	1.6%	10.4%	0.8%	3.3%	5.3%	73.7%	
	부산/경남/울산	(4,353)	3.6%	0.8%	13.6%	0.1%	5.9%	4.6%	71.5%	
	대구/경북	(3,330)	3.3%	2.5%	7.5%	-	4.0%	9.4%	73.3%	
	광주/전라/제주	(2,161)	3.9%	3.2%	12.4%	-	2.6%	9.2%	68.7%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	-	32.7%	-	-	2.2%	65.1%	
	초기성장기	(6,715)	4.0%	0.4%	12.2%	0.7%	2.3%	4.5%	76.0%	
	고도성장기	(18,251)	4.1%	2.4%	10.5%	0.5%	3.1%	5.8%	73.6%	
	성숙기	(9,735)	5.2%	2.3%	12.3%	0.1%	4.1%	7.1%	69.1%	
	쇠퇴기	(82)	4.2%	-	7.4%	-	10.2%	15.6%	62.6%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2.9%	-	12.5%	2.1%	4.3%	3.4%	74.7%	
	4~10년	(18,012)	3.7%	2.4%	11.1%	0.1%	3.0%	6.0%	73.7%	
	11~20년	(12,115)	5.6%	2.0%	13.1%	0.6%	3.1%	6.3%	69.4%	
	21년 이상	(2,882)	4.2%	0.7%	7.0%	-	4.7%	5.4%	78.1%	

7. 경영 애로사항

-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7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애로' 63.1%,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애로' 54.9%, '국내 판로개척 애로' 51.8% 등의 순으로 나타남(상위 응답률)

<그림 2-10-9> 경영 애로사항



<표 2-10-7> 경영 애로사항(5점 척도)(계속)

구 분	신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국내 판로 개척	해외시장 개척	필요인력 확보유지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 관리	기술유출 및 도용
5점 척도	3.4점	3.5점	3.5점	3.4점	3.7점	4.0점	3.2점
상위응답률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43.4%	54.9%	51.8%	41.2%	63.1%	74.6%	28.6%

<표 2-10-7> 경영 애로사항(5점 척도)

구 분	과당경쟁 덩핑	세부 법률지식 부족	조직관리	환율변동	특허분쟁	각종규제	산·학·연간 협력 활동	불공정한 시장질서
5점 척도	3.0점	2.8점	2.9점	2.9점	2.8점	3.0점	2.8점	2.9점
상위응답률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23.4%	12.3%	14.4%	18.9%	12.8%	25.0%	15.4%	11.0%

특성별 분석

- 벤처기업 경영 애로사항은 대체로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업종(87.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사자규모별로 1~9인아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77.9%로 타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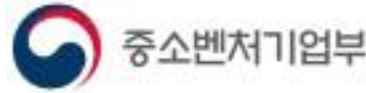
<표 2-10-8> 경영 애로사항(상위 응답률)(계속)

구 분		모집단 크기	신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국내 판로 개척	해외 시장 개척	필요 인력 확보 유지	자금 조달·운용 등 자금 관리	기술 유출 및 도용	
전 체		(35,187)	43.4%	54.9%	51.8%	41.2%	63.1%	74.6%	28.6%	
업 종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2,342)	54.0%	62.3%	42.4%	46.6%	61.0%	69.0%	21.9%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10)	46.2%	55.0%	48.1%	41.1%	70.2%	72.5%	24.6%
		통신기기/방송기기	(1,274)	49.0%	56.6%	52.0%	54.2%	51.5%	74.2%	44.2%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8,008)	38.7%	51.8%	50.6%	38.9%	71.5%	74.4%	29.3%
		기계/제조/자동차	(8,952)	40.6%	41.9%	50.4%	39.6%	70.9%	70.9%	28.4%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3,787)	44.5%	73.0%	58.4%	47.7%	35.3%	77.5%	21.3%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52)	38.0%	45.1%	45.2%	19.6%	52.6%	87.8%	13.3%
기타	기타	(4,762)	49.5%	70.1%	62.3%	46.9%	60.4%	77.8%	43.2%	
종사자 규모	1~9인	(18,682)	41.2%	53.1%	49.4%	37.4%	67.3%	77.9%	27.1%	
	10~29인	(11,296)	45.7%	57.4%	57.6%	43.8%	58.1%	73.7%	30.7%	
	30~49인	(2,560)	44.8%	58.0%	48.5%	46.0%	56.8%	64.2%	31.8%	
	50~99인	(1,725)	49.3%	53.3%	49.9%	50.2%	62.8%	68.7%	30.6%	
	100인 이상	(924)	45.5%	52.3%	44.4%	53.8%	58.1%	60.0%	20.2%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798)	43.2%	58.0%	52.4%	42.7%	61.5%	75.3%	30.6%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47.1%	53.1%	49.0%	40.3%	67.1%	70.9%	30.9%	
	부산/경남/울산	(4,353)	44.2%	58.7%	54.4%	43.4%	61.2%	79.7%	22.4%	
	대구/경북	(3,330)	36.6%	37.3%	56.5%	32.6%	69.5%	76.6%	21.4%	
	광주/전라/제주	(2,161)	39.3%	55.5%	47.1%	40.9%	53.8%	71.5%	27.6%	
성 장 단 계	창업기	(403)	46.3%	47.7%	62.4%	65.7%	85.5%	94.3%	14.7%	
	초기성장기	(6,715)	43.9%	57.1%	46.0%	41.6%	59.0%	76.9%	27.3%	
	고도성장기	(18,251)	42.9%	56.2%	54.4%	39.5%	64.3%	76.9%	29.9%	
	성숙기	(9,735)	43.8%	51.1%	50.8%	42.6%	62.8%	68.1%	27.7%	
	쇠퇴기	(82)	53.3%	41.3%	40.8%	68.8%	65.6%	62.6%	26.6%	
업 력	창업 3년 이하	(2,178)	32.4%	45.3%	43.3%	43.9%	55.9%	74.5%	20.8%	
	4~10년	(18,012)	44.3%	56.2%	51.5%	36.6%	65.3%	77.4%	29.8%	
	11~20년	(12,115)	43.9%	56.8%	54.8%	46.3%	62.5%	71.7%	30.4%	
	21년 이상	(2,882)	44.2%	45.1%	47.7%	45.5%	57.5%	69.9%	19.1%	

별첨. 설문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사)벤처기업협회
 연구책임자 김 영 수 사무국장
 참여연구원 이 정 민 부 소 장
 이 재 남 실 장
 엄 수 지 선임연구원
 서 옥 산 주임연구원
 실사협력사 한 국 기 업 데 이 터 (주)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협회에 의뢰하여 벤처기업의 일반 및 경영현황, 활동내용,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정부승인통계로 2017년 12월말 기준,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귀사에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조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33조, 34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허락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기업부는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

< 응답 요령 >

1. 응답은 반드시 귀사의 인력, 기술, 내수, 수출 등 경영의 전반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대표이사나 임원 및 관리자(과장급 이상)**께서 직접 작성하셔야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응답자 편의를 위해 먼저 **설문지를 인쇄하셔서 각 설문지 파트 별 응답 대상자와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시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응답 도중에 질의사항이나 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내용 문의 : 한국기업데이터(주) 리서치사업부

4. 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 응답의 경우 설문 중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는 다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후 문항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응답자 정보는 오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반드시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성명		소속 부서	1. 인사·총무 2. 재무·회계 3. 기획 4. 홍보 5. 마케팅·영업 6. 자재구매 7. 연구개발 8. 기타()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자 이메일	
작성자 직위	1. 대표이사 2. 임원 3. 부장·차장·과장 4. 대리·주임·사원		

A. 기업 일반현황

A1. 응답기업 정보

A1-1. 회사명			
A1-2.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A1-3.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A1-4. 벤처확인 유형	①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 ②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 ③ 벤처투자기업(창투사 등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 ④ 연구개발기업		
A1-5. 회사주소	시(도)	구(군)	
A1-6. 귀사의 주 산업은 어떤 업종에 속하십니까?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KSIC코드 ()	A1-6-1. 1단계 업종분류	대분류 :
		A1-6-2. 2단계 업종분류	중분류 :
		A1-6-3. 3단계 업종분류	소분류 :

* A1-6은 웹에서 직접 입력할 경우 응답자 선택에 따라 A1-6-1~A1-6-3은 자동적으로 분류됨

A2. 기업 일반현황

A2-1. 창업년도	년[4자리]				
A2-2. 기업 성장단계	① 창업기	② 초기성장기	③ 고도성장기	④ 성숙기	⑤ 쇠퇴기
	회사를 창업하고, 제품(서비스)을 개발하는 단계	신규 제품(서비스)이 출시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	후속 신규제품이 출하되어 제품 및 시장이 다각화 되고 매출이 증폭되는 단계	경쟁이 심화되고, 매출 및 시장이 포화되어 성장이 둔화된 단계	매출이 급락하고 기업 활동이 정체되거나 철수가 고려되는 단계
A2-3. 제조 및 비제조	① 자체 제조 ③ 전부 외주(아웃소싱)		② 일부 제조+ 일부 외주(아웃소싱) ④ 비제조기업		
A2-4. 거래소나 코스닥 등 상장여부 및 향후 계획 여부	① 현재 상장기업 (상장년도 _____ 년)			㉠ 코스피 () ㉡ 코스닥 () ㉢ 코넥스 ()	
				② 현재 추진 중 ④ 2년 이내 추진할 계획	
A2-5. 귀사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복수응답 가능)	① 벤처촉진지구 () ③ 창업보육센터 () ⑤ 협동화단지 () ⑦ 아파트형 공장 () ⑨ 기타 일반지역 ()		② 테크노파크 () ④ 벤처집적시설 () ⑥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 ⑧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		

C. 인력 및 조직 현황

C1. 귀사의 인력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업년도 연동/고려 필요)

	2016년 12월말 기준(CEO/임원 포함)	2017년 12월말 기준(CEO/임원 포함)
C1-1. 총 정규직 수	남성()명, 여성()명, 합계(자동계산)	남성()명, 여성()명, 합계(자동계산)
C1-2. 총 비정규직수	남성()명, 여성()명, 합계(자동계산)	남성()명, 여성()명, 합계(자동계산)
C1-3. 총 종사자수	남성()명, 여성()명, 합계(자동계산)	남성()명, 여성()명, 합계(자동계산)

※ [총 종사자수 = 정규직 +비정규직] 자동계산

※ 정규직은 비정규직(계약직, 위촉직, 파견직, 인턴 등)을 제외한 모든 인력

C2. 귀사의 인력 구성 중 2017년 12월말 기준, 외국인 수는?

C2-1. 외국인 수	남성 () 명, 여성 () 명	합계(자동계산)
-------------	--------------------	----------

C3. 귀사 총 종사자(정규직 + 비정규직)의 인력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업년도 연동/고려 필요)

구 분	관리	생산	영업	R&D	기타	합계
C3-1. 2017년 말 직종별 인력구성	명	명	명	명	명	(자동계산)
C3-2. 2017년 말 직종별 부족인원	명	명	명	명	명	(자동계산)

※ C3-1의 합계는 2017년 총 종사자수 합계와 일치해야 함. C1-3의 2017년 12월말 총 종사자수와 맞는지 확인 필요

※ R&D인력은 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R&D 전담하는 모든 인력을 의미함

※ 부족인원은 필요인력 수 대비 현원의 차이임. 평균 인력수가 과잉이거나 부족하지 않은 경우는 0명으로 기입

C4. 귀사 인력의 학력별 구성비는?

구 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합계
고용인력의 학력별 구성							100%

※ 해당란에 0명일 경우, 0으로 표기

C5. 귀사의 2018년도 하반기와 2019년도의 예상 신규채용(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력은 몇 명입니까?

구 분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신규채용 의사		2018년 하반기	2019년	합계
C5-1. 신규 인력수요	①있다	②없다 ⇨ C5-1-2	약 _____ 명	약 _____ 명	자동합계

※ 해당란에 0명일 경우, 0으로 표기

C5-1-1. (C5-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귀사 신규채용 인력의 희망 학력은? (2018년 하반기 + 2019년)

구 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합계
신규채용 희망 학력	명	명	명	명	명	명	자동합계

※ C5와 C5-1-1의 합계 동일

C5-1-2. (C5-1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만) 귀사가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에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없다면 주요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이미 상반기에 채용 ③ 매출 등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⑤ 기타 (적을 것 : _____)	② 이미 규모 대비 인력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④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	---

C6. 귀사의 2017년도 퇴사 임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2017년 1월~12월)

구분	임원급 (대표, 전무, 상무, 이사 등)	중간 관리자급 (부장, 차장, 과장 등)	초기 관리자급 (대리, 주임)	사원급	합계
2017년도 퇴사 임직원수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자동 합계

* 해당 없을 시 각 칸에 0을 기재

C7. 귀사가 현재 가장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은 어디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생산기능 인력	② 인사 및 조직관리 인력	③ R&D 인력	④ 재무관리 인력
⑤ 영업 및 마케팅 인력	⑥ 경영 기획 및 전략 인력	⑦ 중간관리자급 인력	⑧ 임원급 인력

D. 재무 및 자금 현황

D1. 2017년도 12월말 귀사의 지분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구분	① 창업자	② 창업자가 아닌 대표이사	③ 창업자의 가족이나 친지	④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지	⑤ 일반 임직원	⑥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⑦ 타기업	⑧ 개인 투자자	⑨ 기타	합계
보유지분 비율	%	%	%	%	%	%	%	%	%	100%

* 총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D2. 귀사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초 질문입니다. (창업년도 연동 필요)

구분	2016년도 12월말 기준	2017년도 12월말 기준
D2-1. 자산 총계	(자동계산)	(자동계산)
D2-2. 부채 총계	백만원	백만원
D2-3. 자본 총계	백만원	백만원

*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응답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 해당년도 창업 이전인 경우 기재하지 마십시오.

D3. 귀사의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초 질문입니다. (창업년도 연동/고려 필요)

구분	2016년도 12월말 기준	2017년도 12월말 기준
D3-1.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D3-2. 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D3-3. 금융비용(이자비용)	백만원	백만원
D3-4. 당기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응답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 해당년도 창업 이전인 경우 기재하지 마십시오.

D4. 귀사의 매출구조는? (창업년도 연동/고려 필요)

구성	국내					해외*	합계
	B2B(기업매출)			B2C (소비자 매출)	B2G (정부 매출)		
	대기업 또는 대기업그룹사 소속사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협력업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2017년도	%	%	%	%	%	%	100%

* 해당 없을 경우, 각 칸에 0을 기재

* 해외는 직접수출액 + 간접수출액

[직접수출: 해외에 완제품 직접 수출]

[간접수출: 부품이나 중간재 판매 후, 매입처에서 제품완성 후 해외수출]

☞ 국내 응답은 i항목과 고려, 해외 응답은 F항목과 고려

D5. 귀사는 2017년에 정부의 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D5-1 ② 없다 ☐D6

D5-1. 귀사가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경험이 있다면, 정부지원 종류별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창업년도 연동/고려 필요)

구분		2017년도	
		경험 여부	2017년 총 금액
광의 정부 정책 지원	D5-1-1. R&D자금(출연금)	① 있다 ② 없다	백만원
	D5-1-2. 융자(정책자금)	① 있다 ② 없다	백만원
	D5-1-3. 보증서 지원(보증서발급 대출)	① 있다 ② 없다	백만원
D5-1-4 합계			(자동계산)

D6. 귀사의 2017년 신규 자금조달 규모 및 방법은 무엇입니까? (창업년도 연동/고려 필요)(*D5-14 고려)

구분	신규 자금 조달 규모	신규자금 조달 방법						합계
		IPO (기업 공개/상장)	캐피탈 · 엔젤투자	회사채 발행	정부 정책지원금 (R&D, 융자, 보증서 지원)	은행 등 일반금융	기타	
2017년도	백만원	%	%	%	%	%	%	100%

※ D5-1에서 2017년 정부지원 금액이 있다면 D6의 '정부 정책지원금'의 비율 반드시 입력

D7. 귀사의 각 투자처별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창업년도 연동/고려 필요)

구분	국내설비투자액	국내R&D투자액	해외투자액	기타	합계
D7-2. 2017년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동계산)

※ 국내설비투자액은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중 기계류 및 운송장비 등을 구입·취득한 금액

※ 국내R&D투자액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및 기타의 경비 금액

※ 해외투자액은 해외 자회사 설립, 회사 인수, 지분참여 등 해외직접투자 금액

D8. 스톡옵션(Stock Option)에 관한 귀사의 상황은? (D8-1, D8-2, D8-3 모두 응답)

과거 (D8-1)		현재 (D8-2)		미래 (D8-3)	
①	②	①	②	①	②
과거 활용	과거 미활용	현재 활용	현재 미활용	활용계획 있음	활용할 계획 없음

D8-4 스톡옵션 실시의 주요 목적은? ☐D8-1~D8-2 중 하나라도 ①에 응답한 경우	① 우수인력 유입 ③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	② 핵심인력 이탈방지 ④ 기업 경영성과 개선
D8-5 스톡옵션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D8-1~D8-2 중 하나라도 ②에 응답한 경우	①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③ 불합리한 회계·세무 처리 ⑤ 횡령이나 배임 등 법률적 문제 야기 소지 내재 ⑥ 비상장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의 Merit가 없음	②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 ④ 복잡한 제도 및 행정 절차 ⑦ 기타

E. 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E1. 귀사의 주력제품(서비스)과 관련성이 가장 큰 기술은 무엇입니까? () <한 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IT (Inform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 ② BT (Biology Technology : 바이오기술)
 ③ NT (Nano Technology : 나노기술) ④ ET (Environment Technology : 환경기술)
 ⑤ CT (Culture Technology : 문화컨텐츠기술) ⑥ ST (Space Technology : 우주항공기술) ⑦ 해당 없음

- ※ IT : 정보를 생성, 도출, 전송, 저장하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로 인터넷,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등 정보기술의 융합에 따른 기술
 ※ BT :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 NT : 물질을 원자, 분자크기의 수준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
 ※ ET : 환경오염을 저감, 예방하는 기술로 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환경기술
 ※ CT : 디지털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방송·영화·음악·게임 등 문화예술 산업을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
 ※ ST : 위성체, 발사체, 항공기 등의 개발과 관련된 복합기술

E2. 귀사의 산업재산권 등록 보유 건수와 출원절차를 진행 중인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국내 산업재산권				해 외 산업재산권	합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E2-1. 현재 등록 보유	건	건	건	건	건	(자동계산)
E2-2. 현재 출원 중	건	건	건	건	건	(자동계산)

E3. 현재 귀사가 획득하고 있는 해외특허나 국제규격 등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해외특허 ② 해외유명규격(UL, JIS등) ③ 국제규격(ISO, CE등) ④기 타() ⑤ 해외특허·국제규격 없음

E4. 귀사의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단계는? (여기서 **주력제품 또는 서비스**란, 귀사에서 현재 전략적으로 가장 중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초기 개발단계	시제품 개발단계	제품화 또는 상용화 실현단계 (매출 미발생)	초기 시장진출단계 (1-2년 매출 발생)	시장확대단계 (3년 이상 매출 발생)
1	2	3	4	5

E5. 귀사의 제품 및 서비스 구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하나의 대표 제품 또는 서비스에만 집중
 ② 두 세개 정도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주력
 ③ 4개 이상 복수의 제품 및 서비스 다각화 추구 (정확한 개수는? _____ 개)

E6. 귀사의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 기업**의 기술력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세계 유일기술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거의 100%수준)	약간 미흡 (80% ~ 99%수준)	미흡 (60% ~ 80%수준)	경쟁열세 (60% 이하수준)
1	2	3	4	5

E7. 귀사의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은 **국내 최고수준 기업**의 기술력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국내 유일기술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거의 100%수준)	약간 미흡 (80% ~ 99%수준)	미흡 (60% ~ 80%수준)	경쟁열세 (60% 이하수준)
1	2	3	4	5

E8. 귀사는 자체 연구개발 관련 기술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부설연구소는 없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③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는 없지만, 연구개발 인력 보유
 ④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이 없음

E9. 귀사가 가진 경쟁력은 동종업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과 비교 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항 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E9-1. 기술 경쟁력	1	2	3	4	5
E9-2. 가격 경쟁력	1	2	3	4	5
E9-3. 디자인 경쟁력	1	2	3	4	5
E9-4. 품질 경쟁력	1	2	3	4	5
E9-5. 조직관리 경쟁력	1	2	3	4	5
E9-6. 마케팅 경쟁력	1	2	3	4	5

E10. 귀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성은 어떻습니까?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2	3	4	5

F. 마케팅, 해외진출 현황

F1. 귀사는 현재 자사브랜드 또는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 분	해당 여부	보유 개수 *왼쪽 항목 '있다'일 경우
F1-1. 자사브랜드	① 있다 () ⇨ F1-1-1 ② 없다 ()	F1-1-1. ()개 보유
F1-2. 공동브랜드	① 있다 () ⇨ F1-2-1 ② 없다 ()	F1-2-1. ()개 보유

F2. 귀사의 영업 및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 ① 자체 유통망에 의한 직접 영업
- ② 대리점이나 전문 유통기관(ex. 홈쇼핑)을 통한 위탁영업
- ③ 직접영업과 위탁영업 병행
- ④ 기타 ()

F3-1. (2017년 기준) 귀사 주력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 % ⇨ 0~100%까지 입력 가능

F3-2. (2017년 기준) 귀사 주력제품의 해외 시장점유율은? () % ⇨ 0~100%까지 입력 가능
⇨ 앞D4 해외매출이 있을 경우만 응답

F4. 귀사는 원재료나 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 F4-1에 응답 ② 없음 ⇨ F5에 응답

F4-1. 귀사의 원자재나 부품 등의 주요 수입국은 어디입니까? () 복수응답 가능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러시아	⑤ 동남아시아	⑥ 유럽	⑦ 중동
⑧ 캐나다	⑨ 중앙아시아	⑩ 오세아니아	⑪ 아프리카	⑫ 남아메리카	⑬ 기타(_____)	

F5. (2017년 기준) 귀사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 ① 직접수출 ② 간접수출 ③ 직접수출+간접수출 ④ 수출 없음 ⇨ F7에 응답

[직접수출: 해외에 완제품 직접 수출]

[간접수출: 부품이나 중간재 판매 후, 매입처에서 제품완성 후 해외수출]

⇨ 앞D4 해외매출이 있는 경우(F3-2에 %가 있는 경우) ①,②,③만 응답 가능, 해외매출이 0이면 ④ 응답후 F7로 이동

F5-1. (⇨F5에서 ①, ②, ③응답한 경우만) 귀사는 해외진출을 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해외진출이란, 해외에 지사나 지점을 설치하고 기업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지칭함]

F6. (☞F5에서 ①, ②, ③ 또는 F5-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귀사의 해외진출 지역 혹은 직·간접 수출지역은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기타의 경우 지역명 기입>

구분	<보기>에서 해당번호 기입 (복수응답)	<보기>
F6-1. 해외진출 지역은? (F5-1=①인 경우만 응답)	(번호 :)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러시아 ⑤ 동남아시아 ⑥ 유럽 ⑦ 중동 ⑧ 캐나다
F6-2. 직·간접수출 지역은? (F5=①②③인 경우만 응답)	(번호 :)	⑨ 중앙아시아 ⑩ 오세아니아 ⑪ 아프리카 ⑫ 남아메리카 ⑬기타()

F7. (2017년 기준) 귀사가 해외시장 진출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 ① 기술력 부족 ② 무역 전문인력 부족 ③ 시장정보 부족 ④ 해외진출 필요자금의 부족
 ⑤ 수출관련 절차적 규제 부담(선적, 통관 등) ⑥ 언어 장벽(계약협상, 통번역 등)
 ⑦ 현지시장 규격 및 인증 획득의 어려움 ⑧ 기업 신인도 부족 ⑨ 기타 (기재:)

G. 제휴 및 협력 현황

G1. 아래 <보기>에서 각 기관별 귀사가 경험한 제휴 및 협력활동 유형과 도움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복수응답)

<보기>

- ① 마케팅/판로/유통 ② 공동 기술·연구개발 ③ 교육훈련, 인력상호 교류 ④ 생산
 ⑤ 자금 ⑥ 브랜드 ⑦ 디자인 ⑧ 경영지원 ⑨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상호이용 ⑩ 기술지도
 ⑪ 해외진출 ⑫신제품 공동개발 ⑬기타 ()

구분	협력활동 경험		<위 보기 참조> 귀사가 경험한 제휴 및 협력활동 유형 ☞협력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복수응답 가능)	타기관과의 협력활동이 귀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협력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있다	없다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어느 정도 도움됨	매우 도움됨
G1-1. 대학과 협력(산학 협력)	①	②	(번호 :)	1	2	3	4	5
G1-2. 정부 및 국가연구기관과 협력	①	②	(번호 :)	1	2	3	4	5
G1-3. 민간 연구기관과 협력	①	②	(번호 :)	1	2	3	4	5
G1-4. 중소벤처기업과 협력	①	②	(번호 :)	1	2	3	4	5
G1-5. 대기업과 협력	①	②	(번호 :)	1	2	3	4	5
G1-6. 해외 외국계기업과 협력	①	②	(번호 :)	1	2	3	4	5

G2. 위 <보기>에서 귀사의 타기관과의 협력 의사와 희망하는 협력분야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협력 의사		<위 보기 참조> 협력 희망 분야 ☞협력 희망 경우만, 응답(복수응답 가능)
	협력 희망	협력 비희망	
G2-1. 대학과 협력(산학 협력)	①	②	번호 : ()
G2-2. 정부 및 국가연구기관과 협력	①	②	번호 : ()
G2-3. 민간 연구기관과 협력	①	②	번호 : ()
G2-4. 중소벤처기업과 협력	①	②	번호 : ()
G2-5. 대기업과 협력	①	②	번호 : ()
G2-6. 해외 외국계기업과 협력	①	②	번호 : ()

H. 벤처캐피탈 및 M&A 현황

H1. 귀사는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H2. 귀사는 벤처캐피탈(투자조합포함)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이미 투자를 받은 상태 ⇨ H2-1로 이동 ② 투자유치 협상을 현재 진행중인 상태 ⇨ H3으로 이동
 ③ 과거 투자유치에 실패한 상태 ⇨ H3으로 이동 ④ 투자 경험 없음 ⇨ H3으로 이동

H2-1. (H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귀사에 투자한 벤처캐피탈(투자조합포함)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 ① 자금투자 외에는 경영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 등 거의 역할이 없었다. ⇨ H3로 이동
 ② 자금투자 외에 벤처기업 경영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였다. ⇨ H2-2로 이동

H2-2. (H2-1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만) 귀사의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로부터 도움분야와 도움정도는 어떠십니까?

구 분	(H2-1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벤처캐피탈						
	도움 여부		귀사에 도움되는 정도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안됨	별로 도움이 안됨	보통	다수 도움이 됨	큰 도움이 됨
H2-2-1. 경영관리 지도 또는 경영자문	①	②	1	2	3	4	5
H2-2-2. 이사회 참여 의사결정과정 감독 관여	①	②	1	2	3	4	5
H2-2-3. 제품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또는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①	②	1	2	3	4	5
H2-2-4. 대학/연구소 등과의 공동기술개발 중재	①	②	1	2	3	4	5
H2-2-5. 관련 기술정보 소개 또는 제공	①	②	1	2	3	4	5
H2-2-6. 지적재산권/특허권 관련 법률지도	①	②	1	2	3	4	5
H2-2-7. 은행/금융 기관소개 알선	①	②	1	2	3	4	5
H2-2-8. 필요 전문인력 소개 또는 헤드 헌팅	①	②	1	2	3	4	5

H3. 귀사는 인수합병(M&A)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경험 있음 ⇨ H3-1 ② 경험 없음 ⇨ H4

H3-1. (H3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귀사의 인수합병(M&A)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다?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 ① 규모의 경제 달성 ② 기술 및 인력 확보 ③ 신규사업 진입 ④ 시장지배력 확대
 ⑤ 자산 구조조정 ⑥ 우회등록 ⑦ 자금경색 해소 ⑧ 기타 ()

H4. 귀사는 현재 타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H5 ② 고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 H5
 ③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 H4-1 ④ 이미 추진 중에 있다 ⇨ H4-1

H4-1. (H4에서 ③,④에 응답한 경우만) 귀사가 현재 고려 중인 인수합병(M&A)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 동종업종의 벤처기업/혁신형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 ② 他 업종의 벤처기업/혁신형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
 ③ 동종업종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 ④ 他 업종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
 ⑤ 해외 외국계 기업과의 인수합병 ⑥ 기타(적을 것: _____)

H5. 귀사는 벤처기업의 M&A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 ① M&A 전문가 및 중개기관 육성 ② M&A 매물 정보의 질적/양적 확대
 ③ 기업 가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시스템 구축 ④ M&A 절차 간소화
 ⑤ '내 기업이어야 한다'는 기업가의 인식 변화 ⑥ M&A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개선

I. 공정거래 질서 현황

주의 : 다음은 거래처 구분별 기업 매출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D4에서 B2B 매출, 해외 매출이 있는 경우와 Cross Check)

I1. 귀사는 전년도(2017년) 대비 금년도(2018년)의 주요 거래처 납품 단가는 변동이 있으십니까?(V 체크), 변동 되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단가 변동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2017년도 대비 2018년 납품단가			단가 변동폭(%) ☞납품단가가 인상 또는 인하인 경우 응답
		인상	동일	인하	
거래처 구분	I1-1.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에 매출	①	②	③	
	I1-2. 대기업에 납품하는 1, 2차 벤더에 매출	①	②	③	
	I1-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매출	①	②	③	
	I1-4. 해외기업에 매출	①	②	③	

* 주) 단가 변동폭(%) = (2018년도 단가-2017년 단가) / 2017년 단가 × 100

I2. 귀사의 주요 거래처로부터의 현재 이익률 및 희망하는 적정이익률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거래처 및 제품/서비스가 여러 개일 경우, 평균이익률, 평균 적정이익률 기입)

구분		현재 이익률 (이익/판매가)	희망 적정 이익률 (이익/판매가)
거래처 구분	I2-1. 대기업 또는 대기업그룹 소속사에 매출	() %	() %
	I2-2. 대기업에 납품하는 1, 2차 벤더에 매출	() %	() %
	I2-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매출	() %	() %
	I2-4. 해외기업에 매출	() %	() %

* 이익률 = (이익/판매가) × 100

I3. 귀사는 거래기업간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와 불공정거래의 심각성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불공정거래의 심각성 정도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전혀 비심각	별로 비심각	보통	다소 심각	매우 심각
거래처 구분	I3-1.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에 매출	①있음 ②없음	1	2	3	4	5
	I3-2. 대기업에 납품하는 1, 2차 벤더에 매출	①있음 ②없음	1	2	3	4	5
	I3-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매출	①있음 ②없음	1	2	3	4	5
	I3-4. 해외기업에 매출	①있음 ②없음	1	2	3	4	5

I4. 귀사의 기업 간 거래 시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① 구두 발주 및 취소 | ② 기술 및 원가정산 자료 요구 | ③ 기술 도용 |
| ④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 ⑤ 인력 유출 | ⑥ 납품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미지급 |
| ⑦ 검사 및 검사결과(불합격 사유) 미통보 | | ⑧ 낮은 납품 단가 |
| ⑨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지연, 학연 등) | | ⑩ 과도한 접대 요구 |
| ⑪ 부당한 물품 등의 강제 구매 | ⑫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⑬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의무 위반 |

J. 벤처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교육, 인프라, 경영애로사항

J1. (2017년 기준) 귀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당 사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제도 확인 유형	해당 여부	인증 확인 방법 ☞ 옆 문항에서 예라고 한 경우만, 응답
J1-1. 벤처확인제도	① 예 ()	① 자체 해결 () ② 외부 도움 ()
J1-2. 이노비즈(Inno-Biz) 인증제도	① 예 () ② 아니오 ()	① 자체 해결 () ② 외부 도움 ()
J1-3. 경영혁신(Main-Biz) 인증제도	① 예 () ② 아니오 ()	① 자체 해결 () ② 외부 도움 ()

J2. 벤처확인제도가 다음 항목에서 갖는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항 목	전혀 효과가 없다	효과가 적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효과가 있는 편이다	매우 큰 효과가 있다
J2-1. 창업 활성화 촉진효과	1	2	3	4	5
J2-2. 기술개발 촉진효과	1	2	3	4	5
J2-3. 기업 이미지 제고 등 홍보효과	1	2	3	4	5
J2-4. 자금조달 및 투자 유인효과	1	2	3	4	5
J2-5. 세제혜택 효과	1	2	3	4	5
J2-6. 정부지원제도 참여에 유리	1	2	3	4	5
J2-7.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	1	2	3	4	5

J3. 귀하가 생각하기에 현재 벤처인프라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취약	취약	보통	양호	매우 양호	
법·제도	J3-1.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	2	3	4	5
	J3-2. 지역별 지원 네트워크 및 창업보육 기능	1	2	3	4	5
	J3-3. 기업에 대한 규제 및 퇴출 장벽 완화	1	2	3	4	5
과학기술·교육	J3-4. 창업 및 기업가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1	2	3	4	5
	J3-5. 산/학/연 간의 협력 및 교류	1	2	3	4	5
	J3-6.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지속력 및 교류	1	2	3	4	5
사회·문화	J3-7.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 사회질서 구현	1	2	3	4	5
	J3-8. 우수인력의 적극적 창업의욕 고취	1	2	3	4	5
	J3-9.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사회분위기	1	2	3	4	5
경제	J3-10. 혁신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	1	2	3	4	5
	J3-11. VC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활성화	1	2	3	4	5
	J3-12. 벤처주식의 거래시장 발달	1	2	3	4	5

J4. 귀사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어디에 해당 되십니까?

항 목	전혀 비적극적	비적극적	보통	적극적	매우 적극적
교육 및 훈련	1	2	3	4	5

J5. 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자체 교육 ② 외부·위탁 교육 ③ 자체 + 외부·위탁 교육 ④ 전혀 없음

J6. 귀사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 () (복수응답)

① CEO 및 임원 교육	② 산업 트렌드 교육	③ 기술사업화 교육
④ 인사/조직관리 교육	⑤ 영업/마케팅(국내, 해외) 교육	⑥ 유통/물류관리 교육
⑦ 재무관리 교육	⑧ 생산/품질관리 교육	⑨ 신입사원 역량강화 교육
⑩ 중간관리자 교육훈련	⑪ 기타()	

J7. 아래 보기 중 귀사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 (복수응답)

- ① 물질 기부/기증 ② 재능 기부 ③ 윤리/투명 경영
 ④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 ⑤ 지역사회 봉사활동 ⑥ 후원 활동 ⑦ 없음

*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이란? 사회 공헌 및 공익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나 제품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마케팅 기법

J8. 귀사는 다음 경영상 애로사항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J8-1. 신기술 개발 애로	1	2	3	4	5
J8-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애로	1	2	3	4	5
J8-3. 국내 판로개척 애로	1	2	3	4	5
J8-4. 해외시장 개척 애로	1	2	3	4	5
J8-5.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애로	1	2	3	4	5
J8-6.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	1	2	3	4	5
J8-7. 기술유출·디자인 및 상표 도용 애로	1	2	3	4	5
J8-8. 업계내의 과당경쟁 및 덤핑 애로	1	2	3	4	5
J8-9. 법률, 회계, 세무 관련 지식 부족 애로	1	2	3	4	5
J8-10. 조직관리 애로	1	2	3	4	5
J8-11. 환율 변동 애로	1	2	3	4	5
J8-12. 특허 분쟁 애로	1	2	3	4	5
J8-13. 각종 규제 애로	1	2	3	4	5
J8-14. 산·학·연 간 협력 활동 애로	1	2	3	4	5
J8-15. 불공정한 시장질서 애로	1	2	3	4	5

J9. 끝으로, 귀사의 경영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J9-1. 업종관련 애로사항 (구체적으로 기술)	
J9-2. 경영 애로사항 (구체적으로 기술)	
J9-3. 정책 건의사항	

-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벤처산업의 발전과 혁신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8 Survey of Korea Venture Firms)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일
2018. 12

수행기관
[사]벤처기업협회
